

창립 30주년 기념자료집

傳統文化研究會 30年の回顧와 展望

주최 :  세담 전통문화연구회

후원 : 한국고전번역원 세담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社) 傳統文化研究會 창립 30주년 기념 자료집 목차

◆ 30주년 기념 특집

기념사	李漢東	傳統과 現代의 架橋, 傳統文化研究會	1
축 사	安炳周	‘無用之用’에서 ‘與時俱化’로	5
	鄭愚相	憲法裁判官 네 분의 高貴한 意見	7
	申用浩	傳統文化研究會와 나	13
	宋載邵	傳統文化研究會의 30주년을 축하하며	16
	金 炫	앞으로 30년 : 데이터 時代의 漢文古典	18
회고사	李啓冕	先進文化韓國 VISION 2030-2050을 기대하며	24
본회 설립 취지 및 연혁, 임·위원, 임직원 명단			27
중점 사업		先進文化韓國 VISION 2030-2050	33
		21세기 大韓民國 東洋古典翻譯의 尺度, 五書五經讀本	37
		漢文讀解捷徑 시리즈	40
		東洋古典情報 國際化	42
사업 성과		東洋古典 翻譯・刊行 事業 실적	44
		東洋古典教育事業 실적	55
		東洋古典情報化事業 실적	62
		학술발표회 개최 현황	67
		한자교육 국민운동	73
사업 계획	고전번역	東洋古典譯註事業 長期計劃	74
		十三經注疏 譯註 특별계획	76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간행계획	78
		東洋古典解題集 사업	79

	고전교육	古典硏修院	80
		사이버書堂, 사이버書院	81
	고전정보화	동양고전종합DB	83
		동양고전어휘정보화	84

◆ 학술발표

	沈慶昊	漢文古典의 범위와 전통문화연구회 역주사업	85
	安載澈	漢文 文章의 효과적인 解釋 方法은 무엇인가? - ‘漢文讀解捷徑’을 중심으로	105
	金 炫	데이터 기반 漢文 古典 研究를 위한 試論	120

傳統과 現代의 架橋, 傳統文化研究會



李 漢 東

前 국무총리, 본회 상임고문

傳統文化研究會와의 추억을 反芻하려면 꽤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본인이 民族文化推進會의 會館 마련에 微力이나 마 보태면서 관계 인사들과 교류가 있었고, 전통문화연구회가 설립된 뒤로는 語文政策 등과 관련한 일로 긴밀하게 협조하였다. 전통문화연구회와는 30년 세월이고, 고전번역 관련 인사들과는 그보다 더 오랜 세월을 함께 하였다. 참으로 感懷가 새롭다.

‘海不讓水’라는 말이 있다. 바다는 어떤 물도 마다하지 않아 大洋을 이룬다는 말이다. 우리가 ‘漢字文化圈’이라고 말하는 세계를 어떤 특정 사상이나 문화로 정의할 수 있을까? 나는 오히려 맑은 물, 흙탕물 구분 없이 흘러드는 바다의 包容性이 바로 ‘한자문화권’의

특성과 상통한다고 생각한다.

‘漢字’는 ‘한자문화권’의 여러 문자들과의 상호 영향관계 속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발전한 문자이다. 그리고 그 한자라는 언어를 근간으로 꽃피운 한자문화 또한 어떤 단일 민족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民族과 王朝, 學者와 民衆에 의해 형성된 共同的 產物이다. 우리 민족 역시 ‘한자문화권’ 형성의 중요한 주체였다.

그러나 한자문화를 대하는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시각은 점차 偏狹해지고 歪曲되고 있다. 지금의 영토 관념으로 선을 그어 네 것과 내 것을 나누고 배척하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言語와 文化는 섞이는 것이 기본 속성인데 國境이 어디 있단 말인가. 물론 한

글專用論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일제의 言語抹殺政策에 저항하기 위하여 우리말을 보존하려는 의식이 강렬하게 형성되었고, 그것이 광복 이후 한글전용정책으로 이어진 역사적 맥락이 있다. 그러나 역사적 트라우마가 언어의 鎖國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우리의 것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의 根幹을 이루는 한자문화를 繼承하고 發展시킬 필요가 있다.

標準國語大辭典의 51만 標題語 중 순우리말은 25%이고 65%가 한자어의 한글 표기이다. 한자와 우리말이 섞인 단어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80% 가까이는 한자에서 왔다.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한 단어들은 말 그대로 한자의 발음기호에 불과한데 그 語源을 모르고 어떻게 그 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한글전용정책은 사실상 우리말을 毀損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정말 우려되는 것은 言語의 限界는 곧 認識과 思考의 限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공교육에서 한자 교육을 포기하고, 일상생활에서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 줄도 모르고 사용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많

은 대학생들이 쉬운 맞춤법을 흔히 틀린다고 하니 먼 미래의 일도 아니다.

中國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 몇 마디만 나눠보면 그 사람의 학력 수준을 금방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배움의 단계마다 배우는 故事成語가 다르기 때문이다. 얼마나 고급 단계의 成語를 구사하느냐가 그 사람의 知的 水準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日本도 表音文字 ‘가나’와 表意文字 ‘한자’를 함께 쓰면서 한자문화권의 용어와 성어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고 사용한다. 학술적으로는 오래 전부터 漢字語를 이용하여 서구의 概念語를 번역하는 전통을 이어왔는데, 스무 명이 넘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를 상징적으로 대변한다고 하겠다.

우리는 世界化를 구호처럼 외치면서 당장 주변 국가들과 기본적인 성어와 상식으로 대화를 나눌 수준도 되지 못하니, 이는 스스로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개구리로 자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도 希望이 있는 것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歷史와 文化에 관심을 갖고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의 韓流가 몇몇 뛰어난 배우와 가수에 의해

서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土壤이 없었다면 지금의 세련된 문화를 꽃피울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史劇이 해외에서 큰 호응을 얻고, 한국의 가수들이 세계에 한글과 韓服을 전파하는 소식을 듣노라면, 세계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悠久한 文化傳統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새삼 느낀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의 문화 수준을 이룩한 숨은 助力者들이 함께 떠오른다. 한국의 漢文古典 翻譯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묵묵히 역사적 과업을 자임한 이들이 있었고, 그들의 공로로 오늘날 우리의 역사는 다채롭게 서술되고 있다. 나는 그 중심에 韓國古典翻譯院과 傳統文化研究會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고전번역원은 그 前身인 民族文化推進會 시절부터 우리 민족문화의 精髓인 한문 고전을 번역·정리하고 이를 담당할 인재를 양성해온 단체이다. 1965년에 창립한 민족문화추진회는 2007년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하여 명실공히 한국고전 번역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고전번역원이 韓國古典 翻譯의 中樞라면, 전통문화연구회는 東洋古典 翻譯의 中

樞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동양고전의 토양 위에서 생각을 하고 글을 썼다. 따라서 한국고전 번역의 근간에는 동양고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1988년 창립된 전통문화연구회는 우리 문화전통의 源流인 동양고전을 傳承하고 啓發하기 위하여 번역, 교육, 연구 사업에 매진해 온 단체이다.

전통문화연구회가 지난 30년간 이룩 성과는 실로 놀랍다. 四書三經은 물론이고 唐宋八家文 등 古來로 우리 선조들이 중요하게 공부하였던 주요 동양고전을 순차적으로 번역하였고, 이를 대중에 보급하기 위하여 교육의 장을 마련하였다.

그 성과는 단순히 양적으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타의 追從을 불허한다. 철저한 資料 調査의 바탕 위에 最高 水準의 학자들이 번역에 참여하였고, 치밀한 校訂 작업을 거쳐 수준 높은 번역서를 완성하였다.

또 명망 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講義로 풀어내었다. 이러한 결과물은 모두 on-line 서비스로 제공하여 視空間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사회적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語文政策正常化推進會를 창립하여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 法制가 갖는 違憲性을 지적하여 憲法訴願을 제기하였다. 비록 헌법소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정부의 교육정책은 우리 언어의 다양성을 拋棄하는 쪽으로 逆行하였지만 사회의 많은 인식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 활동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통문화연구회는 새로운 30년을 위한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있다. 어문정책 정상화와 동양고전 현대화를 선결과제로 달성하고 이를 통해 國民意識 전환과 先進文化強國 정립을 이룩하여 세계문화를 先導하는 先進文化韓國을 건설하는 礎石을 마련하고자 한다.

어떤 곤경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전통문화연구회의 지난 30년 세월을 돌아보았을 때, 이러한 비전을 충분히 수행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통문화 계승과 어문생활 정상화를 위한 한결같은 신념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하지 못한 일을 民間團體가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추진해왔다는 것은 사회 각계가 讚辭를 보내야 마땅하다.

芝草와 蘭草는 깊은 숲속에서 피어나 봐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변함없이 香氣를 피운다고 하였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사명의식을 가지고 전통과 현대의 架橋 役割을 해온 전통문화연구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㉞



‘無用之用’에서 ‘與時俱化’로

安 炳 周

성균관대 명예교수, 본회 초대 회장



《莊子》에 ‘無用之用(쓸모없음의 쓸모)’이라는 말이 있다. 세속적 쓰임이 있는 나무는 잘려 말뚝과 대들보로 쓰이고, 꺾여 땔감으로 쓰인다. 반대로 이러한 유용성이 없는 나무는 백 아름에 수십 길이 되도록 天壽를 누리며 巨木으로 성장한다. 人爲的인 관점에서는 쓸모없는 無用이 실은 有用한 것이라는 莊子의 인식의 전환은 지금 우리에게도 示唆하는 바가 크다.

모든 것이 경제 논리로 置換되는 昨今の世態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쓸모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가치는 부정되고 존재는 위협받는다. ‘百年之大計’를 세워야 하는 教育政策은 집단들 간의 이해관계에 얽혀 수시로 수정된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漢字의 의미를 함께 표기하기로 했던 정책이 하루아침에 한 마디 설명도 없이 폐기되었던 것이 대표적인 一例라고 할 수 있다. 미래를 위한 根幹을 세우는 일이 無知의 所致와 편견으로 뒷전으로

밀려나버린 것이다.

人文學에 대한 사회의 시각도 巨木을 만들어 낼 토양을 조성하지 못한다. 시중의 인문학 베스트셀러들은 깊은 통찰을 담은 책보다 당장의 時流에 편승하여 판매 부수만 올리는 책들 一色이다. 시간을 들여 古典이 내포한 複雜多端한 생각의 결을 탐구하고 음미할 여유를 현대인에게로는 찾아보기 힘들다.

성과만능주의가 팽배한 요즘 세상에, 어떤 분야든지 하나의 원칙을 갖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문화연구회의 30년은 단순히 한 민간단체의 30년 세월을 축하하는 데에 의미가 국한되지 않는다. ‘無用之用’의 경지를 실천한 龜鑑으로 사회에 膾炙되어야 마땅하다.

1988년 올림픽이 개최되던 해 늦봄, 몇몇 이들의 뜻을 모아 전통문화연구회가 처음 문을 열었다. 東洋古典 現代化라는 기치 아래,

전통과 현대의 架橋 역할을 자임하며 부단히 도 애써왔다. 여러 번 간판을 내릴 위기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聲援과 정부의 지원, 有志들의 후원이 있었기에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 30년, 만만치 않은 勞苦와 隘路를 감당하면서, 어떠한 ‘一時的 有用’에도 흔들리지 않고 ‘大用’을 위해 곳곳이 사업을 전개해 온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동양학·한국학 研究와 한국고전 翻譯의 先決과제인 동양고전 번역사업을 진행하였고,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양고전 강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단 하나의 誤譯도 후세의 學人들에게 累를 끼치는 것이라 생각하여 단어 하나, 글자 하나에 심혈을 기울인 책들이 30년 세월 동안 200책이 넘는다. 번역의 성과는 교육사업으로도 이어져 수만 명의 수강생들이 良質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동양고전 번역의 不毛地에 훌륭한 滋養分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단체를 운영했다면 대중의 嗜好와 거리가 먼 난해한 동양고전 번역서들이 세상에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일시적인 대중의 수요에 영합하여 수준 낮은 번역서를 急造하지 않은 30년 세월이 우수한 번역 결과물을 만들어낸 動因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너무 無用의 경지만을 고집한다면 세상과의 孤立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장자는 無用과 有用의 구분을 넘어 만물의 변화와 일체화를 추구하는 유연한 대처를 강조하였는데, 이를 ‘與時俱化(때

와 함께 변화)’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전통문화연구회는 기존의 틀에 얽매어 하나의 방법만 固守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귀 기울여 시대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情報化 시대에 발맞춰 번역 및 교육 성과물을 온라인으로 대중에 공개하였고, 한글한자 자동변환 프로그램과 동양고전 어휘정보망 구축을 광범위하게 달성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전통문화연구회의 ‘與時俱化’ 정신을 엿볼 수 있게 한다.

《莊子》의 成語를 사용했지만 결국 ‘無用之用’과 ‘與時俱化’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위한 양 날개이다. 그리고 전통문화연구회는 그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위해 30년 세월을 奮闘하였고, 漢字教育에도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앞으로의 30년도 그렇게 다짐하고 있다.

전통문화연구회는 ‘先進文化韓國’의 토대를 다지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적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점과제인 ‘五書五經讀本’, ‘漢文讀解捷徑’, ‘東洋古典情報 國際化’를 완수하기 위해 拍車를 가하고 있다. 세 가지 중점과제는 모두 앞서 언급한 ‘無用之用’에서 ‘與時俱化’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전통문화연구회의 굳건한 使命感과 不屈의 의지를 고려하였을 때, 이는 一抹의 의심의 여지도 없다. 나는 전통문화연구회가 앞으로도 不斷한 發展을 계속해나갈 것을 기원해 마지않으며 믿어 의심치도 않는다. ㉞

憲法裁判官 네 분의 高貴한 意見

鄭 愚 相

서울교대 명예교수, 본회 고문



傳統文化研究會 30주년을 眞心으로 祝賀합니다. 전통문화연구회는 그동안 漢字・漢文教育을 위한 우리나라 唯一의 私設 教育機關으로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傳統文化研究會는 1988년에 몇몇 뜻 있는 분들이 창설하여 安炳周 님을 초대 회장님으로 모시고 日就月將 발전하여 現今에 이르렀습니다. 사단법인 인가를 얻어 동양고전 국역 사업에 착수하여 번역사에 빛나는 懸吐完譯과 四書三經을 비롯한 東洋古典譯註叢書를 간행하고 古典研修院을 設立하여 기초한문과 四書三經 등 東洋古典을 講讀하였습니다.

또한 漢文教育 전문센터를 창설하여 漢字教育 國民運動, 사이버 書堂 운영 등 漢字漢文教育의 核心으로 探究發展시켜 오늘에 빛나는 未曾有의 漢字・漢文교육과 古典研究의 深淵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漢字는 2,000여 년 동안 우리 민족과 더불어 살아 온 慣習憲法事項상 國字인데 國語基本法에서는 外國 文字로 푸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漢字로 表記된 三國遺事와 三國史記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인 八萬大藏經도 5,200만 자의 한자로 表記되어 있는데 이들이 모두 우리 遺産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리고 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우리 祖上님들이 남겨놓은 珠玉같은 많은 文集들이 한자로 表記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유산이 아니고 中國 유산이란 말입니까?

한자는 形・音・義 三要素로 構成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形・音・義가 모두 中國의 인 것이어야 中國의 것이지 形과 義가 같더라도 音이 다르다면 音의 소속에 따라 한자의 국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Roma字가 사용에 따라 各國의 文字가 되는

것과 같은 論理입니다. ‘學生’이라는 단어를 ‘쉬웨성’이라고 중국어 발음을 하면 中國 漢字가 되지만 ‘각세이’라고 일본 발음으로 하면 日本 漢字가 되고 ‘학생’이라고 한국 발음을 하면 韓國 漢字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즉 八萬大藏經이나 朝鮮王朝實錄 등은 한국 사람이 韓國語로 발음하였으니까 韓國 漢字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론을 기본으로 考察할 때 國語基本法에서 慣習憲法事項으로 한국 漢字를 國字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違憲事項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2012년 10월에 國語基本法 등에 대한 憲法訴願 請求書を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9월에 李漢東 전 국무총리를 會長으로 모시고 社團法人 語文政策正常化推進會를 창립하였습니다. 그리고 傳統文化研究會의 李啓晁 회장이 특별히 物心 양면으로 후원을 하며 상임이사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李啓晁 회장님은 癌과 鬪病하면서도 생명을 걸고 헌법소원을 승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대표로 陳泰夏, 金勳, 鄭愚相과 많은 학자들이 이에 참여하였습니다.

즉 國語概念의 定立과 국어기본법의 違憲性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研究하여 저서도 발간하며 憲訴에 대비했습니다. 2016년 11월

24일 判決文이 나올 때까지 온갖 연구와 調査를 해서 憲訴에 우리의 主張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棄却 내지 却下되고 말았습니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중 한자 교육 및 한문 관련 부분에 대한 判決에서 재판관 9명 중에서 4명의 재판관들이 반대하여 5 : 4로 却下되었습니다. 비록 각하되었지만 9명의 재판관 중 4명의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폐소되기는 하였으나 漢字 관련 고시에 대한 4명의 반대 재판관들이 所重한 意見을 통해 漢字 漢文教育에 대한 넓고 깊은 식견과 꼼꼼하고 치밀한 意見을 表明해 주어서 답답했던 우리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했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영호** 등 네 재판관들이 漢字 관련 고시에 반대 意見을 가지고 판결한 것은 비록 초등한자교육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이 나라의 漢字·漢文教育의 장래가 밝고 희망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이에 네 재판관들의 高見은 漢字·漢文 教育政策에 대한 眞髓를 정확하고 과감하게 피

력하였기 때문에 마치 다 꺼져가는 한자 한
문 교육정책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의 불이
타오르게 한 것입니다. 이에 온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널리 알리려고 반대 판결한 내용

을 加減 없이 알리기 위하여 주문(판결문)
에 고시된 그대로를 숨김없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㉞

○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이 사건 한자 관련 고시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한자 내지 한문을 최소한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 대하여는 필수과목으로 가
르쳐야 함에도 중·고등학교에 대하여도 선택과목으로 편제하고 있는 이 사건 한자 관
련 고시는 위헌이라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우리 문화의 주요 구성요소인 한자의 기능

한자는 수천 년 동안 우리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오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
와 전통, 문화와 사상을 담아내는 도구로서 자리 잡아 왔다. 우리 민족이 사용하여 온
한자는 그 속에 우리만의 고유한 소리와 뜻이 담겨있고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스며있으
며, 우리의 과거와 전통,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화요소이다. 이러한 점은 학
생이나 학부모의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 달라지거나 선택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
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역사적·문화적 사실이다.

또한 우리말은 한자어와 고유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한자어가 약 70%를 차지하
며, 추상어, 개념어, 학술어, 전문어 등 주요 어휘들은 상당부분 한자어이다. 함축된 뜻을
담고 있는 한자어를 한글로만 이해하는 것과 한자를 통하여 이해하는 것은 그 언어에
담긴 정확한 의미와 語感을 이해하고 표현함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한자를 알고 있던 사람에게는 그 의미가 이미 머릿속에 있어 본래의 의미를 인식해
낼 수 있지만,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말의 맥락 속에서만 파악하여 인식하는데 그치고,
이렇게 인식한 한자어를 적절하게 구사하거나 응용하는 데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자어를 고유어로 대체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우리말에서 한자어를 모두 제
거할 수 없는 한, 우리말의 정확한 이해와 사용을 위하여 한자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한글이 우리말의 고유어를 표기하는 문자로 더 없이 훌륭하고 과학적인 문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글자생활에서 한자어를 한자로 표기할 때의 장점과 한자가 가지는 조어력·축약력 등의 특성을 활용한다면 우리의 언어생활이 보다 풍부하고 정확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 한자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한자교육은 외국 글자를 하나 더 알기 위한 학습이 아니라, 우리말을 더욱 완벽하게 구사하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의 하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미 살핀 바와 같이 한자지식은 우리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자어의 정확한 이해와 사용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필수요소로서, 전문서적의 해독이나 학술분야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통해 한국인으로서 자아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이자 덕목이다.

특히 언어와 이를 표현하는 글자는 사람 사이의 의미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서 사고의 도구로 쓰이므로, 도구의 다양성과 정교함은 사고의 폭과 깊이를 넓히기 위한 중요한 바탕이 된다. 한자는 5천년 동양문화의 지혜가 녹아 있는 문명의 도구로서 함축성과 조어력이 풍부하며, 복잡한 사물의 이치나 추상적인 개념을 압축하여 두세 자의 한자로 표현해 낼 수 있다. 따라서 한자를 통해 한자어를 학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고하는 방법과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며, 단순히 한자독해력을 갖는 것을 넘어서서 언어적 사고력·응용력·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나아가 한자는 비록 그 음과 형태, 뜻에 차이가 있지만, 동아시아 문화권 국가들의 이해를 촉진하는 공통의 문화코드이며, 상호협력과 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특히 한자는 우리나라와 물적·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중국, 일본이 상용하고 있는 문자로, 문자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 삼국 간 관계이다.

한자를 통한 문화교류는 과거사·영토·정치 갈등과 관계없이 세 나라 국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아시아에 강력한 문화적 연대를 확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2014년 4월 한중일 한자 전문가들이 모여 ‘한중일 공용한자 808자’를 선정한 바 있으며, 한중일 정부 차원에서도 한자

를 통한 문화교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위 공용한자 808자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우리 전통에 대한 이해, 더 풍부하고 정확하며 바람직한 언어생활, 사고력·응용력 및 창의력 계발, 동아시아에서의 문화적 연대와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서는 공교육 과정에서의 한자 내지 한문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 한자교육의 시기와 이 사건 한자 관련 고시에 대한 판단

(1) 한자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으나, 아이들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한자교육의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모국어의 기초 낱말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우리글의 기본과 언어 예절, 대화 방법 등 기초적인 언어습관을 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한자교육을 한글교육과 동시에 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은 우리말과 글에 대한 이해와 사용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로, 한자교육이 한글학습이나 기초적인 언어습관 형성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적절한 수준의 한자교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전통에 대한 이해와 사고를 기르고, 우리말의 어휘력을 향상시키며, 각 교과과목의 필수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이나 사회에 진출한 후 새로이 한자를 접하고 익히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중고등학교에서부터 기본적인 한자지식을 갖추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에서는 보다 심화된 내용의 한자 학습과 학문적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적어도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 대하여는 한문을 필수교과로 편제하여 모든 학교에서 반드시 일정 시간 이상 가르치도록 함으로써, 공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자지식을 갖추 수 있도록 한자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른 학습 부담 증가의 우려는 가르칠 한자의 수를 적절히 제한하고 그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습득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하는 등의 방법

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한자 관련 고시는 중고등학교의 한문과목을 여러 선택 과목 중 하나로 지정하고 있어 한문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공교육을 통해 한자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다.

한문을 선택과목으로 배우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대학입시 위주로 수업이 운영되는 교육현실을 고려할 때 필수과목에 비해 학습량이나 학습동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통계상 80%가 넘는 중고등학교에서 한문을 선택과목으로 가르치고 있고, 중학교 900자, 고등학교 900자를 교육용 기초한자로 선정하여 교육하고 있다고 하니, 이러한 교육을 받고도 대학과 사회에 진출한 젊은 세대들이 한자사용에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공교육과정 속에서 한자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교육과정에서 영어과목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다. 현재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고등학교 전 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도록 되어 있고 연간 수업시수도 국어나 수학에 버금가는 수준의 상당히 많은 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이와 비교해보더라도 오히려 우리의 전통·문화와 더욱 깊은 관계가 있고 우리 의식구조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한자 내지 한문에 대한 교육은 그 비중이 지나치게 낮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통계상 중학교의 경우 11%, 고등학교의 경우 17%의 학교에서 한문을 선택과목으로도 가르치고 있지 아니하는 등 공교육과정에서 한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일정부분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은 사교육에 의해 한자를 배울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으므로 결국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한자 학습 및 이를 통한 교육적 성장과 자아실현에 있어 형평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한자 관련 고시는 최소한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 대하여는 한문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선택과목으로 편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자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 한자 내지 한문교육을 통하여 인격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傳統文化研究會와 나



申 用 浩
公州大 名譽教授

嚴酷하기 그지없는 5공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희망이 움트기 시작하던 1988년,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李啓晁 회장님의 主導로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모여 傳統文化研究會를 結成하였다.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선양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체가 비로소 첫발을 내딛게 된 데 대하여 기쁨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방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本會가 크게 발전하기를 기원하기만 했을 뿐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다가, 拙著《先賢들의 字와 號》(공저) 및 《漢詩形式論》을 本會에서 간행해주면서부터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 후 2002년에 漢詩講義 請託을 받아 강의를 시작한 후 주로 漢文學 분야의 강의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번역에도 참여하여 《唐宋八大家文抄 王安石 1·2》 등 몇 권의 典籍도 刊行하였다.

한편 先賢들이 자신의 名이 지니고 있는 意義를 돌이켜보면서 그 뜻에 맞게 살고 있는가를 반성했던 顧名思義의 정신을 이어받고, 社會名士들의 名을 英文 頭文字를 붙여 부르는 경박한 사회풍조를 바로잡고자 本會에서 추진한 '雅號 지어 부르기 운동'에도 참여하여 號를 갖고자 원하는 많은 분들에게 號를 지어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되돌아보니 지금까지 20여년을 本會와 이런저런 인연을 맺고 지내온 셈이다.

이제 本會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본회가 이룩한 至大한 업적은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수많은 典籍의 간행, 古典研修院에서의 교육, 사이버서당의 운영, 各種 研究發表會와 語文政策 正常化를 위한 활동 등을 통하여 國學과 東洋學에 속한

各分野 學問의 專攻者들에게 길잡이가 될 만한 基本書를 제공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통문화를 계승 선양하며, 국민의 교양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잘못된 어문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운동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개인적으로는 본회의 동양고전 교육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왔는데, 그 경험에 비추어볼 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 없이 발전 방안을 강구하는 又日新의 자세는 참으로 높이 살 만하다.

동양고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던 시절에 저변 확대를 위해 古典硏修院을 설립하였고, 인터넷이 상용화되자 동양고전 강의를 온라인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동양학에 대한 관심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

專門 人力을 양성하는 일에도 책임을 다하여 ‘집중연수과정’을 개설하여 미래에 투자하였고, 한문 학습의 難解함을 解消할 革新的인 학습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漢文讀解捷徑’ 등의 연구 개발에 全力을 다하였다. 본회가 만약 당장의 수익에 연연하여 현상 유지에만 급급했다면 오늘과 같은 교육사업의 놀라운 성과는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본회는 창립 30주년을 계기로 그동안 축적한 역량을 더욱 발휘하여 앞으로 전통문화의 계승과 선양에 더욱 크게 기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난관도

山積해 있다.

첫째, 우리 역사에 면면히 이어온 전통문화를 계승하려는 노력을 守舊의이고, 時代風潮에 逆行하는 것이라고 否定的으로 보는 풍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둘째, 西歐文化만이 至高至善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고 이를 따르려 하는 풍조를 극복해야 한다.

셋째, 각종 電子기술이 발전하고 생활의 많은 부분을 電子器機에 의존하게 되면서, 능력이 높아지고 생활이 편리해지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輕妄하고 卽興의이고 速度만을 중시하는 부정적인 단면도 드러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할 代案을 전통문화의 정신에서 찾아야 한다.

넷째, 전통문화라 하면 冠婚喪祭 등 日常生活의 儀式을 形式的으로 전통에 따르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러한 전통생활의 內面에 一貫하는 根本精神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이를 널리 알리는 데에 특히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 계승해야 할 傳統文化의 根本精神이 무엇인가와 이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所懷의 一段을 제시해보려 한다.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根本理念은 ‘最小限의 努力으로 最大限의 效果’를 거두는 데에 맞추어져 있다. 그것이 인간의 물질생활을 향상시

키고 肉身을 평안하게 하고 업무의 能率을 향상시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만 추구하면 萬事가 해결된다고는 할 수는 없다. 우선 道德性을 향상시키고 高雅한 品性을 기르는 일은 ‘最小限의 努力’으로는 이를 수가 없다.

輕妄하고 卽興인 풍조가 만연해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國際競技에 우리 팀이 勝利하면 歡喜雀躍하며 狂亂의 도가니에 빠지고, 敗北하면 怏怏不樂하며 억지로라도 怨望의 대상을 만들어내어 집중공격을 가하기도 하는데, 이런 풍조는 溫柔敦厚한 性情으로 得意平然하고 失意泰然하며 樂而不淫하고 哀而不傷했던 우리 전통문화와는 相馳되는 행위이다.

絢爛할 정도로 華麗하고 力動的인 노래와 춤과 패션의 유행으로 세계인의 이목을 끄는 일을 크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이는 변화만 추구할 뿐 가치의 추구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彗星처럼 등장했다가 泡沫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고, 長久하게 지속될 수가 없다.

이렇게 순간적이고 표피적인 자극만을 추구하는 문화는 깊은 내면의 心性을 갖고 닦는 質朴하면서 重厚한 문화, 千年萬年 영구히 이어갈 문화, 즉 大羹玄酒 같은 문화를 숭상했던 先賢들의 정신세계와는 맞지 않는 일이다.

자기와 이념이 다르거나 당파가 다르면 氷炭不相容의 원수가 되어 죽기 살기로 敵對視하는 풍조는 周而不比 和而不流를 신조로 삼

아, 所信을 지키면서도 반대편에 선 사람도 寬容했던 전통과는 맞지 않는 일이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빠르게 성과를 보려 하는 기풍은 大器晚成을 생활지침으로 삼고 愚公移山의 정신으로 遠大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 평생을 변함없이 精進했던 선현들의 생활 자세와는 맞지 않는 일이다.

學問을 探究하는 목표를 자신을 과시하고 私利를 추구하는 爲人之學에 두고 있는 現今의 풍조는, 자신의 內面을 갈고 닦는 데에 치중하는 爲己之學에 목표를 두었던 우리의 전통과는 맞지 않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문화가 현대사회에는 맞지 않는 것인가?

아니다. 그 반대이다. 속도와 능률을 중시함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현대사회의 갖가지 한계를 극복하고 그 病弊를 치유하는 良藥이 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指南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대로 이어온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 들어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개될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의 여부는 바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계승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이런 사명을 앞장서서 이끌어갈 전통문화연구회가 지금까지 이룩한 업적에 安住하지 말고, 앞으로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에 있는 것이다. ㉞

傳統文化研究會의 30주년을 축하하며

宋 載 邵

성균관대 명예교수
본회 東洋古典翻譯研究所 소장



傳統文化研究會가 창립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다.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에 문득 30년 전의 일이 떠오른다. 30년 전 어느 날 이계황 회장님이 나의 연구실로 찾아오셔서 전통문화연구회의 창립 취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시며 도와달라고 부탁하셨다.

참으로 의욕적이고 원대한 계획이어서 솔직히 말하면 그때 나는 이 회장님의 말씀을 데면데면하게 들었다. 설립 취지는 전폭적으로 지지했지만 그렇게 거창한 단체의 설립에 도움이 될 만한 능력이 없었고 또 이 회장님의 계획이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이 회장님의 거듭된 요청을 뿌리칠 수 없어서 ‘도와드리기로’ 약속을 했다. 약속은 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과연 이 계획이 성사될 수 있을까’ 하는 미심쩍은 구석이 남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시작한 전통문화연구회가 지금은 韓國古典翻譯院과 더불어 漢文古典을 번역하는 양대 기관으로 성장했다.

오늘날의 전통문화연구회가 있게 된 데에는 이 회장님 개인의 獻身的인 노력이 큰 몫을 차지한다. 이 회장님은 한문고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남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문고전 번역의 중요성을 내다본 이 회장님의 使命感과 그칠 줄 모르는 推進力에 힘입어 연구회가 지금까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돌이켜 보면 설립 당시에 회의적인 시각으로 망설였던 나 자신이 부끄럽기만 하다.

연구회는 일찍부터 한국고전번역원과 역할을 분담했다. 즉 고전번역원은 韓國古典을,

연구회는 東洋古典을 번역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중국고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양고전은 오늘의 동양문화를 胚胎시킨 사상적 토양이어서 그 자체로서도 매우 가치 있는 것이지만 중국고전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先賢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인 수많은 古典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고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통문화연구회가 번역해낸 동양고전이 백여 책을 훨씬 上廻한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분량이다. 분량도 엄청나지만 번역의 質 역시 놀랍다. 研究翻譯을 기치로 내건 연구회의 번역서들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韓中日의 新舊 註釋을 망라하여 참조했기 때문에 名實相符한 完譯이라 할 만하다.

교육부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東洋古典譯註叢書’는 經史子集을 망라한 총 200종의 동양고전을 역주할 계획을 세우고 2035년까지 50종 500책을 먼저 완료할 계획이다. 韓中日 삼국에서 최초로 완역되는 《十三經注疏》의 역주사업도 2039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 수행하고 있으며,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의 역주도 우수한 번역진을 초빙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창립 30주년을 맞아 야심적으로

새롭게 기획한 ‘五書五經讀本’의 역주사업이 눈길을 끈다. 전통문화연구회에서는 이미 1990년대 초에 四書五經의 역주서를 출간하여 儒敎經典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필독서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현대적 감각에 맞게 다시 번역할 필요성을 느껴 새롭게 기획한 것이다. 四書五經에 《小學》을 추가하여 五書五經으로 편성하여 총 22책으로 간행될 예정이다.

이 ‘五書五經讀本’은 한글 번역문에 漢字를 併記하고 현대어법에 맞게 번역하여 初學者로부터 전문 연구자에 이르기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내외 연구 성과를 광범위하게 수렴한 주석을 달아 그야말로 ‘smart한’ ‘21세기판 五書五經’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전통문화연구회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리고 연구회의 30년 역사는 이제 황 회장님과 그 숨결을 같이 해왔다. 연구회가 社團法人이긴 하지만 이 회장님 없는 연구회를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회장님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은 나만의 희망이 아닐 것이다. 연구회가 앞으로 또 30년 아니 300년 후까지 존속하여 이 나라 문화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㉞

앞으로 30년 : 데이터 時代의 漢文古典

金 炫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 교수
본회 동양고전정보화연구소 소장



傳統文化研究會 創立 30周年을 맞아 연구회의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漢文과 古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통문화연구회라는 기관의 이름이 낯설지 않다. 이곳의 漢文古典 강좌를 직접 수강하지 않았어도 서울과 지방의 대형 서점의 서가에서 찾을 수 있는 東洋古典名著의 번역서를 통해서,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온라인 書堂을 통해서 우리는 전통문화연구회의 健實한 존재를 확인한다.

전통시대에 漢文은 知識과 智慧를 전파하는 文字言語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오늘날 그 문자언어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줄었다고 해도, 그 언어로 표현하였던 사실과 생각들은 여전히 우리의 사고의 뿌리가 되어 있고 傳統文化의 正體性으로 유지되고 있다. 현대

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도, 불현듯 그 삶의 意味와 價値에 대해 생각이 미치는 순간 잊혀진 언어 뒤에 감춰져 있던 精神的 遺産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된다.

이러한 기대를 갖고 漢文古典의 세계에入門하려 하는 사람들이 가장 용이하게 그 문턱을 넘어설 수 있고, 신뢰와 감사의 마음으로 그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봉사해 온 기관이 전통문화연구회이다.

전통문화연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過去로부터 이어져온 전통적인 지식이지만, 연구회는 그 지식이 현대 사회에서 잊히지 않고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敎育과 社會的 疏通의 방법을 革新하는 데에도 과감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인터넷은 현대의 가장 유력한 의사소통 환

경이다. 전통문화연구회의 값진 지식 콘텐츠는 이곳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정부나 언론에서 그 공로를 대대적으로 치하하지 않는다 해도, 전통문화연구회가 현대 한국 사회에서 꼭 있어야 할 기관으로서,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을 묵묵히, 그렇지만 굳건히 수행해 온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필자 또한, 전통문화연구회가 우리 사회에 제공해 온 漢文古典 콘텐츠의 혜택을 오랫동안 누려 온 수혜자의 한 사람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전통적인 인문지식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그 방법의 일환으로 다양한 문화적 소재들을 탐구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필자가 하고 있는 일이다. 전통문화연구회의 연구원들과 연구회를 돕는 고전번역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가고 있는 東洋古典綜合DB는 필자의 연구와 교육에 큰 도움을 주는 자원이었다.

이제, 전통문화연구회의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은 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이 소중한 자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進化해야 할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앞으로의 30년-전통문화연구회의 제2세대는 우리의 次世代에게 어떠한 봉사를 해야 할지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디지털 공간에서 운영되는 전통문화연구회의 온라인 서당과 동양고전종합DB가, 그 환경을 의사소통과 배움의 무대로 삼는 젊은이들이 이 기관의 존재를 알고 이곳의 著作物을 활용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전통문화 지식 콘텐츠의 정보화는 過去의 아날로그 환경에서 소통되던 형태의 지식 콘텐츠를 디지털 媒體를 통해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기술정보화 추세를 적절하게 따라간 것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더 급격하게 변화해 갈 미래의 지식 사회에 대한 대비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무엇이 어떻게 더 달라져야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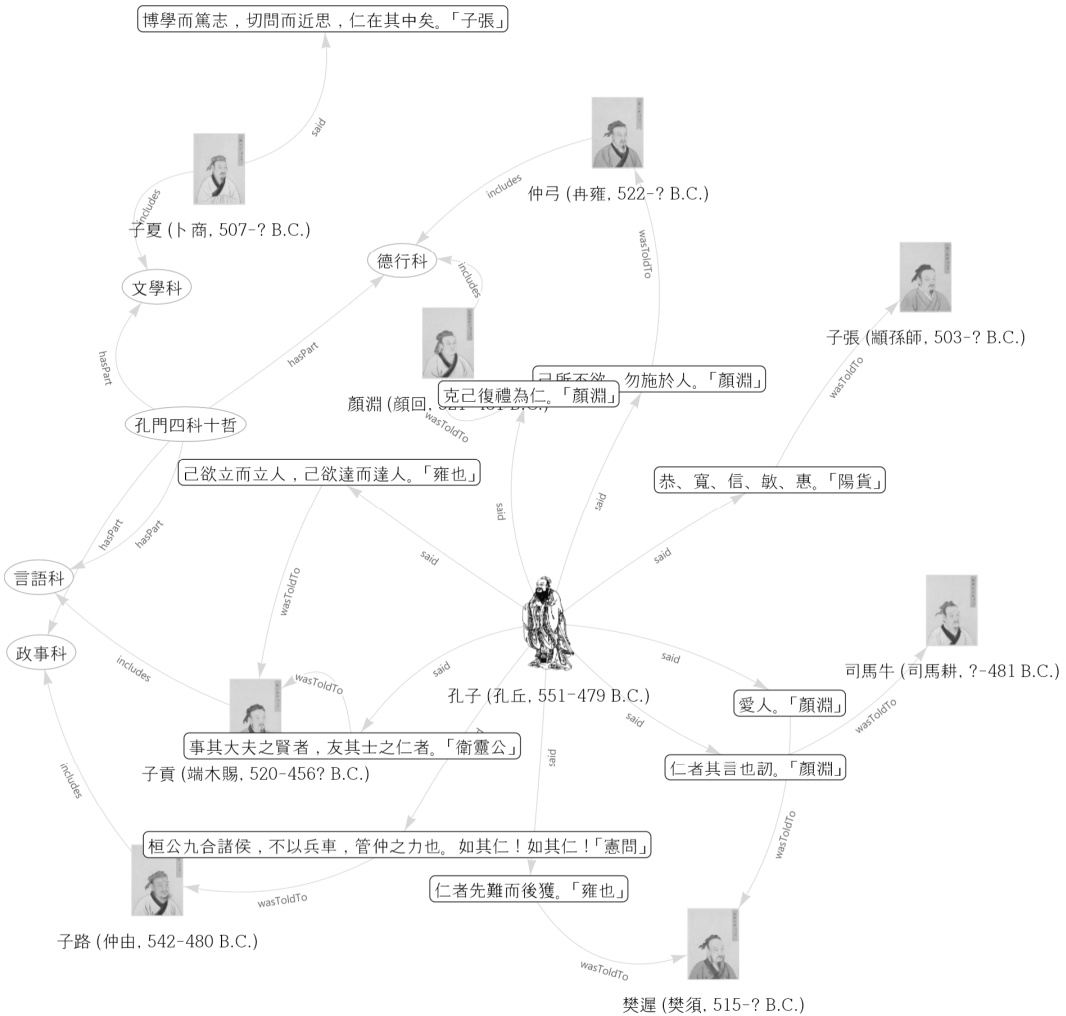
전통문화연구회의 온라인 서당은 오프라인 서당에서 시행되는 古典講義의 디지털 영상을 인터넷상에서 제공한다. 동양고전종합DB는 책으로 출판된 漢文古典翻譯書의 텍스트를 온라인상에서 검색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이것은 소비자들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서,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동양 고전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값진 裝置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情報化는 어디까지나 媒體의 전환을 위주로 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인

식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매체에 담
기는 내용물이 디지털 환경에서 보다 유용하
고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해 내용물 자체를 정보화하는 것이다.

‘미디어의 정보화’를 넘어서서 ‘콘텐츠의
정보화’를 추구하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
보기로 하자. 다음의 例示는 필자가 實驗的
으로 만든 《論語》 經文 데이터베이스 속의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보인 것이다.



《論語》의 글을 네트워크 그래프로 읽는 것이 讀者들에게는 아마도 익숙하지 않은 일 이겠지만, 이 시각적 텍스트 속에 담긴 내용은 우리가 평소에 읽어오던 《論語》의 글 그대로이다. 다만, 그 글을 디지털 매체에 기록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다.

《論語》의 여러 곳에는 孔子와 그의 弟子들이 仁이나 知와 같은 德目에 대해 나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공자는 대화의 상대에 따라 그 덕목의 의미를 달리 이야기했다. 당사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일로써, 또는 그의 관심사에 비추어 가장 쉽게 이해하고 준행할 수 있는 길을 알려 주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공자의 그와 같은 설명은 대화의 상대가 누구였고, 그 사람은 어떠한 개성을 지닌 사람이었는지 함께 살펴볼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위에 예시로 보인 데이터는 仁에 관해서 언급한 몇 개의 글에 대해, 그것의 話者和 聽者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情報를 附加한 것이다. 아울러 그 대화를 나눈 인물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첨가하였다.

예를 들어, 그래프에 보이는 데이터 중 孔子와 子路의 대화는 ‘管仲은 어질지 않다’는 자로의 판단에 대해 공자는 ‘桓公이 전쟁에 의존하지 않고도 霸業을 이룰 수 있었던 것

은 管仲의 도움에 의한 것이니 그 점에서 어질다고 할 수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子路가 孔子의 10대 제자 중에도 정치와 군사적인 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부류[政事科]의 인물이었기에 그들의 대화는 정치에 관한 담론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그 세계에서의 仁은 主君과 생사를 같이하는 義理보다, 그가 百姓들의 삶을 보존할 수 있도록 啓導하는 일에 더 가깝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온라인 상에서 그래프에 나타난 子路의 초상화를 클릭하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후세인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는 백과사전 기사를 열람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온 古典資料 데이터베이스는 종이 책에 쓰인 글을 그 글이 쓰인 형태 그대로 디지털 매체에 수록하는 데 머물렀다. 그 글 속에 담긴 내용이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거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有關한 參考資料를 찾는 일은 모두 그 데이터베이스 밖에서 별도의 일로 수행되어야 했다. 그 별도의 일은 우리가 예전부터 해오는 전통적인 공부 방법으로 하는 일이었다.

21세기 데이터 시대의 디지털 저작물은 텍스트(text)뿐만 아니라, 그 텍스트 속의 文脈(context)도 데이터로 기록하여 독자들로 하

여금 의미 있는 지식을 보다 넓고 깊게 탐구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 그것이 왜 필요한가? 그렇게 함으로써 공부의 자료뿐 아니라 공부의 행위도 디지털 세계에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오늘의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하나의 표현으로 ‘디지털 原語民’(Digital Natives)이라는 말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나 디지털로 소통하고 디지털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을 말한다.

전통문화연구회가 설립된 이후 오늘날까지의 30년은 이 새로운 디지털 원어민 세대가 처음 태어나 성장해 온 세대였다. 아직까지 그들은 이 사회의 주류가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앞으로 30년 후, 세상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미래 사회의 變化象은 누구도 쉽게 예견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훨씬 더 많이 디지털화 될 것이라는 점에는 누구도 異見을 갖지 않는다.

장남감이나 책, 음반과 같이 유형 사물로 존재하거나 유형의 매체에 담겼던 콘텐츠만 디지털 세계로 옮겨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물건을 이용하고 향유하는 行爲도 디지털 세계로 移住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종이책을 보는 대신 인터넷에서 電子化된 텍스트를 검색해서 읽는 것은 그 변화하는

모습의 中間 樣態일 뿐이다. 텍스트의 내용 중에서 자기에게 더욱 의미 있는 요소를 발견하고, 거기에서부터 자신의 호기심이 이끄는 방향으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학습의 과정까지도 디지털 세계에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세계의 教育政策 당국자들이 가장 중요한 未來教育 科題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코딩(coding) 교육’은 未來社會를 이끌어갈 디지털 원어민들이 데이터라고 부르는 지식의 요소들을 스스로 組合하고 構成하여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새로운 畵을 열어가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필자는 청년 시절 나에게 큰 感動을 주었고, 세상을 보는 眼目을 높여 준 우리의 漢文 古典이 未來社會의 디지털 원어민들에게도 배우고 싶은 知識의 資源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漢文을 배우고 經文을 암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예로부터 이어져온 지식의 내용이 소중하다고 해서 그것을 공부하는 방법까지 옛것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사고는 자신이 익숙한 것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들의 獨善일 수 있다.

디지털 원어민들은 우리와는 다른, 그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지식을 탐구하고 지혜를

얻으려 할 것이다.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 고전 텍스트 속에 있는 지식을 자유롭게 발굴하고 재미있게 엮어낼 수 있다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 資源의 寶庫에 접근하여 데이터와 씨름하며 그들에게 의미 있는 知識을 探究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제부터 앞으로 30년 후까지, 전통문화연구회의 제2세대 고객들에게 봉사할 漢文古典 데이터베이스는 마치 레고 블록 같은 조립식 장난감을 다루듯 그 속에 있는 지식의 조각들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의미의 연결고리를 쫓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형태여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編纂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동떨어진, 전혀 다른 성격의 일이 결코 아니다. 전통문화연구회에서 간행하는 모든 저작물은 古典學의 전문연구자들이 刻苦의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어내는 古典研究의 결과물이다.

고전 번역은 옛 언어로 기록된 事實과 思想에 대한 정확한 解析이 우선이다. 번역은 그 해석된 내용을 현대의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 번역에서는 문장을 문장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내용 해석을 위해 찾아낸 수많은 관련 지식을 譯註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업이 된다.

解析과 註釋 작업을 수반하는 고전 翻譯・編輯 과정에서는 당연히 텍스트 속에 있는 지식의 단위 요소들 概念語, 故事成語, 人名, 地名 등이 하나하나 識別되고 그 意味가 파악된다. 현재의 고전 번역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로 남지 않고, 韓國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만 표현되고 있다.

이 정보가 일정한 약속을 따르는 데이터로 기술되어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組合과 構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第2世代 동양고전 종합DB의 발전 과제이다. 그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漢文古典 텍스트가 未來世代들의 디지털 教育空間에서 외면당하지 않고, 그 시대 그들의 삶을 고양시킬 수 있는 학습의 교재이자 놀이의 도구로 쓰일 수 있게 하는 길이 될 것이다. ㉞

先進文化韓國 VISION 2030을 기대하며

李 啓 晁
본회 회장



1988년에 처음 발걸음을 내딛은 ‘傳統文化 硏究會’가 어느덧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다. 傳統文化의 傳承·啓發을 취지로 설립한 본회는 그 선결과제인 ‘東洋古典의 現代化’를 위해 ‘翻譯’·‘敎育’·‘情報化’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傾注해왔다.

많은 분들이 본회의 책으로 학문을 연마하였고, 본회의 고전연수원에서 切磋琢磨하였으며, 본회의 DB 情報網을 활용하여 연구 및 실용 분야에 활용하였다.

具色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본회의 간관을 내걸던 創立 당시를 회고해보면 실로 感懷가 새롭다. 본회가 지나온 30년이라는 세월은 한 세대가 교체되는 참으로 긴 시간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생각해보면 겨우 한 週期를 마무리한 짧은 세월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文化의 根幹을 세우는 사업에 30년이라는 세월은 그저 刹那와 같은 시간이다. 孔子 같은 聖人도 30세가 되

어서야 비로소 바로 설 수 있었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제 겨우 걸음마를 댄 본회의 갈 길은 아직 遙遠하다.

先人들의 지혜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동양의 오랜 전통이고, 수천 년 先人의 지혜가 集約된 동양고전은 현대인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제시해주는 귀중한 寶庫이다.

우리 선조들은 우리의 것과 외래의 것을 현명하게 융합하여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 15세기 ‘訓民正音’의 창제로, 더욱 풍요로운 언어생활을 營爲하였던 것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表音文字인 한글과 表意文字인 한자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 사고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고 사고력의 증진은 문화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그러나 한글전용주의자들의 策動으로 한자 문화는 ‘事大主義의 遺産’으로 罵倒되었고, 몰지각한 이들에 의해 私敎育을 조장하는 主

犯'으로 낙인되었다. 정부는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초등교과서 300字 한자표기 정책마저 은근슬쩍 폐기해버렸다.

우리말의 한 축인 漢字語 교육정책이 輿論에 휘둘려 최소한의 학습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한심한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자기 나라 말의 根幹을 교육하는 것이 '사대주의'로, '사교육'으로 비방 받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던 말인가.

昨今の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 수준의 人文學 基盤 造成을 바라는 것은 焉敢生心이다. 말로는 '人文學熱風'이라고들 하지만 특정 인기고전에 집중된 상업출판물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그 외의 동양학 주요고전들은 여전히 대중에게 소외받고 있다.

한글이 학계와 일반에 걸쳐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채 50년도 되지 않는다. 그 이전 수천 년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문으로 이루어진 동양고전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

본회는 悠久한 전통문화를 현대인에게 최대한 原義 그대로 전달하기 위하여 한문고전을 流麗한 현대어로 번역하는 일에 專力해왔고, 그 고전을 원문으로 읽을 수 있는 人才를 養成하는 사업에도 본회의 死活을 걸고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였다.

'基礎漢文教材 발간사업'과 '東洋古典國譯叢書 발간사업'을 통해 기초한문교재와 東洋學・韓國學의 주요고전을 국내 최초로 懸吐

完譯하여 대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뜻 있는 분들의 도움으로 국고 지원을 받아 '동양고전역주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수십 종의 번역서가 한학자와 전공자에 의해 세상에 소개되었고, 이는 동양고전 번역의 地平을 劃期的으로 넓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經學의 精髓라고 할 수 있는 '十三經注疏'의 번역을 韓中日 最初로 본회에서 착수한 것은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그 외에도 世宗大王께서 직접 命하고 지도하여 편찬한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이 상당 부분 번역되었고, 《唐宋八大家文抄》는 내년에 완간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한국학의 地平이 넓어지고 국제화되고 있다.

본회의 창립과 함께 설립된 '古典研修院'은 수만 명의 수강생 분께 한문과 동양사상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강의 내용은 온라인상에 등재하여 언제든지 自習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작하여 水準別로 한자・한문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

본회의 강의 범위는 유아 단계부터 동양학 연구자 수준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를 아우른다. 이를 '사이버서당'과 '사이버서원'으로 二元化하여 필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간의 이러한 교육사업은 동양학에 대한 관심을 획기적으로 提高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감히 자부해본다.

한편,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주요 동양고전의 원문 자료와 번역 자료를 DB로 구축하여 대중에게 제공하였고, ‘한글-한자 자동변환시스템’, ‘스마트 기기용 앱’ 등을 개발하여 한자·한문과 고전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도 다양한 시스템을 연구 개발 중이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AI가 인간의 모든 역할을 대체하는 시대가 아니라, AI의 도움을 받아 인간의 思考가 보다 성숙하는 시대이다. 정보의 범람 속에서 인간의 주체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동안 축적된 先人の 教훈을 다시금 되새기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시대적 使命感은 더욱 확고히 하되 미래 전망은 더욱 세밀하게 밝혀 ‘先進文化韓國’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말·우리문화’의 기본 토대를 구축하는 일환으로 ‘語文政策 正常化’·‘東洋古典 現代化’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점차 국민의식을 전환하고 先進文化強國을 정립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회는 ‘五書五經讀本 발간사업’, ‘漢文讀解捷徑 개발’, ‘東洋古典情報 國際化’를 중점 선결과제로 설정하였다.

1. 번역 - ‘五書五經讀本 발간사업’

우리 선조들이 중시한 주요 고전의 ‘標準

翻譯’을 제시하고,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五書五經’을 완전히 새롭게 번역한다. ‘오서오경독본’은 研究書와 教養書의 장점을 접목한 새로운 번역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동양고전번역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2. 교육 - ‘漢文讀解捷徑 개발’

동양고전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그 원문을 정확하게 독해하는 힘이 필요하다. 번역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동양학 고전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한문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본회에서는 현대인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방안을 연구해왔다. 수 천 년 漢文 言語障壁을 해소하기 위한 革新的인 학습 방법을 대중에게 소개할 것이다.

3. 정보화 - ‘東洋古典情報 國際化’

그동안 구축한 情報和 資料를 補強하고 나아가 이를 국제 학계와 일반에 공유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할 것이다. 해외의 주요 동양학 연구기관 및 학자들과 상시적으로 교류, 협력할 계획이다. 현재 이를 위한 기초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함께한 많은 분들이 있었다. 오늘의 榮光이 그간 묵묵히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의 獻身 덕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甚深한 感謝의 인사를 전한다. ㉞

－ (社) 傳統文化研究會 설립취지 －

우리 민족은 고대부터 동북아의 맹주로 자리 잡고 있었으나 4천여 년 간 수많은 異民族의 침략과 견제를 받으면서도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반만년의 悠久한 역사적 전통을 지닌 세계 人類史上 그리 흔치 않은 文化民族으로서 찬란한 빛을 발하며 이 땅에 살아왔다. 이는 우리 민족이 그러한 온갖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말과 글과 풍속·사상 등의 文化的 傳統을 상실하지 않고 부단히 이어온 데서 기인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開化期 이후 사회가 급격히 西歐化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우리의 언어·음식·음악·주거·학문 등에서부터 심지어는 사고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두 서구화를 理想으로 여기게 되었고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의 서구화 경향은 급기야 우리의 전통은 非能率的인 것이고 따라서 無價値한 것이라는 통념이 우리들 모두의 뇌리에 자리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傳統文化의 전승·계발과 선양이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종래에 전통문화의 계발이 可視的인 분야에만 편중되어 온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문화를 창출하고 이끌어 갔던 精神的 측면의 계발에 보다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의 마음을 모아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회'를 창립하고자 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전통시대의 문화를 창출하고 이를 이끌어 갔던 우리 선인들의 슬기와 경험의 집적인 각종 문헌을 조사·정리·평가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정신문화의 형성에 영향을 준 각종 동양고전의 翻譯과 古典講座의 개설 및 이에 수반되는 研究誌의 발간·講演會의 개최 등의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의 많은 參與 있으시기 바란다.

(社) 傳統文化研究會 沿革

年 度	沿 革
1988년	창립총회 개최. 초대회장 安炳周 박사 취임 사단법인 인가 (문화부 제604호) 동양고전국역 종합계획 「고전연수원」 개원
1989년	출판사 등록 (제1-936호) 「기초한문교재」 발간사업 착수
1990년	「동양고전국역총서」 발간사업 착수
1991년	四書集註 완간
1992년	「기초한문교재」 완간
1994년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한자한문교육에 관한 우리의 견해」 대정부 건의 「동양문화총서」 발간 시작
1996년	「한자한문교육총서」 발간사업 착수
1997년	회보 《전통문화》 창간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한자교육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서」 제출
1998년	창립 10주년 기념식, 「懸吐完譯 四書三經」 완간 출판기념회 개최
1999년	‘한국어문화’와 공동으로 교육용 한자 1,800자 대표음 선정
2000년	「사이버서당」 개설
2001년	「동양고전역주사업」 착수 - 교육인적자원부 국고보조
2002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 《경전으로 본 세계종교》, 《심경부주》

2003년	서울디지털대학 등 원격대학에 교양한문 콘텐츠 제공 시작
2004년	한자교육 강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2005년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한자교육국민운동」 확대
2006년	재정경제부 지정 공익성기부금 단체 선정 (재정경제 2006-92)
2007년	한자교육국민운동 학술대회 개최
2008년	《唐宋八大家文抄》 역주 착수 창립 20주년 기념 한자교육 관련 수기 논문 시상식
2009년	「사이버書堂」 무료 한자교육 사이트로 전환 - 한문고전연수 사이트 「사이버書院」으로 분리 개편
2010년	동양고전정보화사업 착수, 「동양고전종합DB」 서비스 개시
2011년	「十三經注疏 譯註 특별계획」 착수 「五書五經讀本」 발간사업 착수 「문화문고」 발간 시작
2012년	「동양고전해제집」 사업 착수
2013년	「동양고전어휘정보화」 사업 착수, 사이버서당 모바일 서비스 개시
2014년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웹 서비스 공개
2016년	「漢字路 Add-in 프로그램」 특허 등록 「漢文讀解捷徑」 개발 착수 ‘국어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017년	초등학교 교과서 漢字表記정책 폐기에 대한 대정부 질의 (3회)
2018년	「동양고전정보국제화」 사업 착수 「五書五經讀本」 발간 시작

임 · 위 원 명 단

■ 임원 명단

상임고문	李漢東	국무총리
고 문	琴章泰	서울대 명예교수(현)
	宋載邵	성균관대 명예교수(현)
	安炳周	성균관대 명예교수(현)
	李龍兌	(사)박약회 회장(현)
	李澤徽	동원학원 이사장(현), 서울교대 총장
	李廷燮	국학진흥원 전임교수(현)
	鄭愚相	서울교대 명예교수(현)
	鄭太鉉	한국고전번역원 명예한학교수(현), 한학자
이 사 장	趙富英	국회부의장
회 장	李啓冕	민족문화추진회 이사 겸 사무국장
부 회 장	金千式	(주)서울문고 대표이사(현)
	成百曉	한국고전번역원 명예한학교수(현), 한학자
	宋丙大	국회의원
	李戊澈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본부장
이 사	權五春	(사)국어고전문화원 이사장(현)
	金東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문위원, 한학자
	金炫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현)
	文福姬	가천대학교 교수(현)
	朴錫興	언론인, 건양대 대우교수(현)
	徐彤來	언론인, 청와대 정부비서관
	宋基采	한국고전번역원 명예한학교수(현), 한학자
	吳圭根	한학자
	李建一	(주)골든듀 대표이사(현)

	李光虎	前 연세대 교수
	李相鎭	한국사이버대 겸임교수(현)
	李英姬	한교련 공동집행위원장(현)
	全廣鎭	성균관대 교수(현)
	田好根	경희대 교수(현)
	趙源喆	(주)원영무역 대표이사(현)
	崔三龍	한국지업주식회사 회장(현)
	韓熙喆	한희건설주식회사 회장
	許鎬九	단국대 초빙교수(현), 한학자
상임이사	咸明淑	전통문화연구회 사무국장(현)
감 사	李殷澤	세무사 사무실 대표(현)
	金炳愛	(사)전통문화연구회 번역위원

■ 위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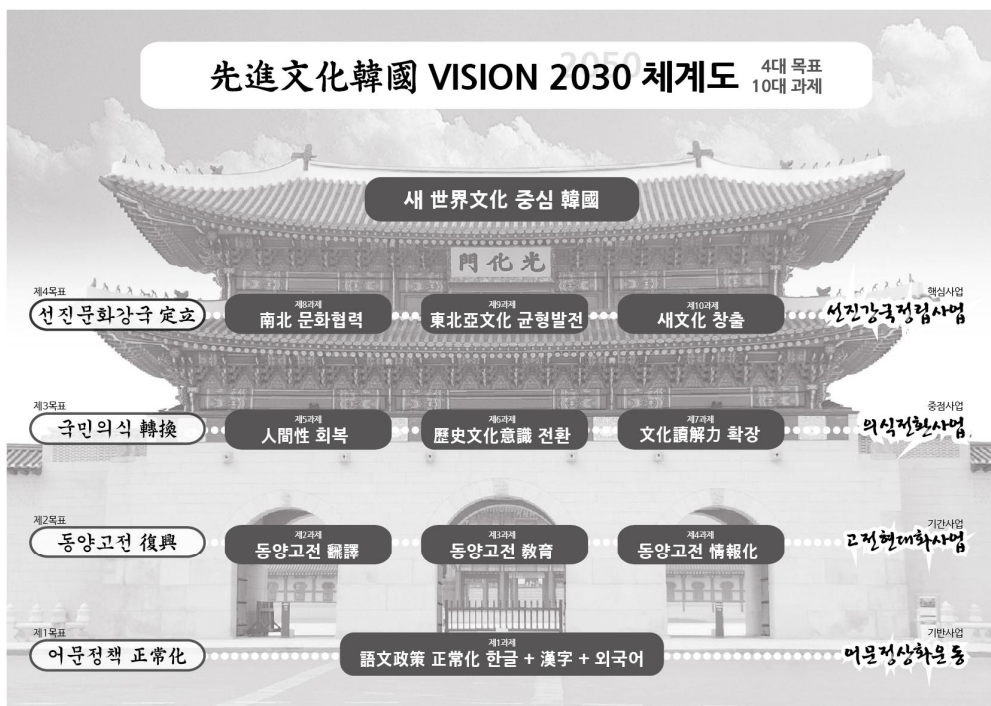
운영위원회	李啓冕(전통문화연구회 회장) 金炫(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宋丙大(前 국회의원) 宋載邵(성균관대 명예교수)
동양고전번역 편집위원회	宋載邵(성균관대 명예교수) 金慶浩(성균관대 교수) 沈慶昊(고려대 교수) 田好根(경희대 교수) 崔錫起(경상대 교수) 河元洙(성균관대 교수) 許敬震(前 연세대 교수)
정보화위원회	金炫(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白漢基(한국고전번역원 고전정보센터장) 梁章珍(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정보화실장) 玉哲榮(울산대 교수) 李東哲(용인대 교수) 崔熙洙(상명대 교수)
교무위원회	李忠九(성신여대 연구교수) 權卿相(동방한문연수원 원장) 金炳愛(전통문화연구회 번역위원) 元周用(성균관대 초빙교수) 李吟昊(성균관대 교수) 李라나(본회 연구위원)
사이버교육위원회	李相鎭(한국사이버대 겸임교수) 姜明姬(이화여대 교수) 南守極(정덕초등학교 교사) 方仁泰(前 서울고대 교수) 吳亨珉(장충고등학교 교사) 李大範(SK테크엑스 팀장) 許喆(성균관대 연구교수)

※ 음영표시는 위원장

■ 임직원 명단

직책 / 직급	성 명	담 당 업 무
회 장	李啓晁	대표이사
상임이사	咸明淑	사업관리, 사무총괄, 법인관리 등
동양고전번역연구소		
연구위원	朴勝珠	번역도서 연구, 윤문, 색인
번역기획연구실장 책임연구원	南賢熙	동양고전번역 연구, 연구기획, 윤문 및 교정
책임연구원	李孝宰	번역서 조사정리, 기타 번역 실무
선임연구원	田炳秀	번역서 조사정리, 기타 번역 실무
연 구 원	金曉東	번역서 조사정리, 기타 번역 실무
연 구 원	金主賢	도서편집, 교정
부연구원	郭成龍	번역서 조사정리, 기타 번역 실무
부연구원	俞在衡	번역서 조사정리, 기타 번역 실무
동양고전정보화연구소		
연구위원	李祉坤	고전교육 콘텐츠 및 교재 연구
고전교육연구실장 책임연구원	李和春	고전DB 연구, 고전교육콘텐츠 및 교재 연구, 한자교육국민운동
고전정보화연구실장 책임연구원	安成守	고전어휘정보화 연구, 정보화기술 연구
책임연구원	鄭仁基	현대어휘정보화 연구, 정보화기술 연구
연 구 원	金黃虎	정보화사업, 멀티미디어DB, 온라인 회원관리
부연구원	申洋先	고전연수원 관리, 정보화사업 보조, 고전자료 콘텐츠 정리 검수
부연구원	李珍善	정보화사업 보조, 어휘 말뭉치 구축
부연구원	崔麗鎮	정보화사업 보조, 정보화웹서비스구축관리
사무국		
과 장	徐源英	도서관리, 보급 및 홍보

선진문화한국 VISION 2030





우리 大韓民國은 開國 이래 웅장하고 강인한 大陸文化와 함께 섬세한 海洋文化가 어우러진 찬란한 文化를 이룩하며 반만년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왔다. 그러나 불행히도 조선 후기 敎祖化 된 事大主義와 日帝에 의한 國權侵奪, 그리고 光復 후 美蘇軍政의 南北分斷과 극심한 左右理念 對立에 同族相殘의 비극인 韓國戰爭으로 인해 찬란한 文化는 바닥에 떨어졌고, 장기간 지속된 군사정권 하에 급격한 産業化와 무분별한 西歐化의 엄습은 우리의 正體性과 傳統文化의 존립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최근 北韓의 무력시위 격화로 3次大戰 발발의 위험성과 東北亞에서 地政學的 요충지인 한반도를 둘러싼 美中日蘇 등 세계 列強의 끊임없는 세력 다툼 속에서, 우리는 오랜 정치적 불안정, 지역과 세대 및 이념의 葛藤이 舊韓末보다 심각하여 百尺竿頭·風前燈火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內憂外患을 타개·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世界地圖에서 없어질 國家存亡의 위기에 봉착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終末을 고하게 될 것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未來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념과 지역·세대를 초월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指向해야 할 목표가 있어야 하며, 실천 과정 속에서 국민 大각성과 外交를 통한 南北統一과 韓中日 세력균형의 三國鼎立, 地球村 衣食住 해결의 처방과 兩性平等, 文化福祉 등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선조들이 이룩한 전통문화와 正體性을 새롭게 발굴·계승·발전시키며, 동시에 文化讀解力을 확장함으로써 세계의 다양한 文化의 이해와 존중, 그리고 주체적 수용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世界에 새로운 思想 새로운 文化를 창출하여 대한민국이 직면한 內憂外患의 亡國의 분위기를 一新함은 물론 미래의 文化福祉 실현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문화의 중심이 되어 새 世界文化를 선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先進文化韓國 VISION 2030’ 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

VISION 2030 년의 추진 및 1목표 주관처

(사)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 2004 한글專用主義의 「國語基本法案」 개정촉구 - 어문단체
- 2007 「國語의 慣習憲法事項」에 대한 연구
- 2011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설립
國語概念 정립 「국어기본법」 憲法訴願 공동추진
- (사)한국어문화 (사)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한자교육국민운동연합 (사)전통문화연구회
학술발표회 - 국어 개념의 정립과 국어기본법의 위헌성
- 2012 헌법재판소에 「국어기본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청구인 333인
- 2014 語正推 法人化 - 한자교육국민운동 전개
- 2015 어문연구서 11집 간행, 연구발표회
- 2016 憲法訴願 심판청구 - 각하 및 기각 - 政治재판
학교 漢字語교육 체계화
사회공헌사업 - 초등학교 벽지도서관 文化院 등
- 2017 교육부 -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 漢字表記정책 폐기에
대한 대정부 질의 3회

VISION 2030 년의 추진 및 2목표 주관처

(사)전통문화연구회

- 1) 동양고전翻譯사업 및 출판사업 : 161종 244책 간행
① 동양고전譯註事業(국고지원) : 43종 111책
② 동양고전국역 오서오경독본 문화문고 등 : 118종 133책
③ 동양기본고전 번역 2050 추진
- 2) 동양고전情報化사업(국고지원)
① 동양고전종합DB 서비스 : 역주서 81책
② 동양고전어휘정보화 : 한글漢字自動變換機 翻譯支援시스템 개발
동양고전知識情報網 2050 추진
- 3) 동양고전敎育사업(국고지원)
① 고전연수원 : 5만여 명 교육
② 사이버서당·서원 : 9만여 명 교육
③ 한문독해捷徑 solution 개발
- 4) 연구사업 및 새문화진흥운동
① 학술발표회 8회 - 고전의 번역 정보화 교육
② 한자교육국민운동 사회공헌사업 《전통문화》 통권 44호
③ 先進文化韓國 VISION 2030 추진



01

어문정책 정상화

국어개념 재정립

- 東北亞 共通文字인 漢字는 한글과 함께 우리 글자
- 國語는 憲法事項, 「국어기본법」 폐지 또는 개정
- 국어 어휘 - 고유어(25%)+한자어(69%)+외래어(6%)

한자어 교육

- 유치원 초중등 한자교육으로 語彙力신장과 學習能力증진
- 中等教育에서 世界文化讀解力 확장
- 半문맹(한자文盲)退治운동
- 국민 生活語순화와 文化國民품격의 礎石
- 先進文化韓國의 기본요소

외국어 교육

- 主要 外國語 교육을 통한 世界文化 교류의 균형 모색

02

동양고전 현대화

동양고전 번역

- 東洋學徒 고전연구, 일반인 人文素養 자료
- 한자문화권 문화·역사의 이해와 對外政策 자료
- 文化國民을 위한 문화독해력 강화

동양고전 교육

- 동양고전 번역 연구와 後續世代 양성 및 교양 함양
- 韓國學 東洋學 연구 교육 심화로 世界化
- 漢字文化圈과 英語圈의 동양고전 速成讀解捷徑 개발

동양고전 정보화

- 동양고전 DB화로 學問과 教育 발전 촉진
- 翻譯支援시스템 및 知識情報網 구현
- 21C 동양학의 중심 Hub로 先進韓國 초석

03

국민의식 전환

인간성 회복

- 윤리 도덕의 회복으로 新人間의 道義社會 구현
- 4次産業 革命時代에 人間 중심의 社會文化 구축
- 性역할의 사회적 고정관념 탈피 - 兩性平等 국가발전

역사·문화의식 전환

- 역사와 문화의 의식개혁과 文化正體性 확립
- 事大意識 극복으로 自尊心 自主性 고취와 意識 世界化
- 국민의 民族意識과 統一意識 교육으로 나라사랑

문화독해력 확장

- 古典讀解力으로 국민의 역사·문화정체성 확립
- 한자문화권 이해 확충으로 地球村의 協力 相生 기여
- 문화의식 世界化와 文化福祉로 文化生活 향상

04

선진문화강국 정립

남북문화 협력

- 전통문화 학술교류와 지원으로 統一 軟着陸 분위기 조성
- 南北統一을 위한 국민의식 통합
- 남북통일은 선진문화강국으로 가는 先決課題

동북아문화 균형발전

- 東亞의 文化交流로 和解와 協力 토대 마련
- 東北亞 勢力均衡을 통한 갈등·분쟁 해소
- 東亞 平和는 韓中日 三國鼎立이 우선

새문화 창출

- 傳統과 현대의 조화로 地球村의 새思想 새社會 구현
- 인간의 和合과 繁榮을 위한 새문화 理想郷 건설
- 새思想 새文化 정착으로 미래 文化福祉국가 실현



21세기 大韓民國 東洋古典翻譯의 尺度,

五書五經讀本

1990년 본회에서는 東洋古典國譯叢書를 기획하여 四書三經 및 《小學》, 《古文眞寶》 등 東洋文化의 근간이자 漢文教育의 기본원전인 책들의 번역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상의 책들은 조선시대 식자층의 기본 교과서이자, 한국학과 동양학을 연구하기 위한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데, 광복 이후 반세기가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주석서가 없는 것에 대해 학계와 재야 한학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통탄을 금하지 못하였다.

당시 고전번역서들은 대체로 띄어쓰기나 간단한 표점을 사용하여 原文을 정리·소개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한학자는 물론 제도권 내의 학자들도 한문원전에는 거의 토씨(口訣)를 달아 읽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토씨는 新羅 薛聰을 기원으로 지금까지도 생명력을 잃지 않은 우리나라 傳統漢文讀法이다.

본회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계승을 표방한 만큼 한문원전의 정리에서도 전통을 繼承하여 點吐를 사용한 정리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전통의 墨守가 아닌 계승을 표방하였기에

토씨의 현대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동양고전국역총서를 계획한 그해 5월, 《論語集註》를 시작으로 이듬해에 《大學·中庸集註》, 《孟子集註》를 완역하였으며, 1993년 《詩經集傳》과 《小學集註》, 1994년 《古文眞寶 後集》, 1998년 《書經集傳》과 《周易傳義》를 발간하여, 근 10년이라는 다소 조금 한 시일에 모두 완간하여 우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번역 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여건도 열악한 상황에서 漢學者 1인에 의존한 번역서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번역자 자신도 시급하게 過慾으로 많은 책들을 번역하여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어의 쓰임이 달라지고 국내의 연구성과가 축적됨에 따라 번역서의 수정은 불가피한 것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였다. 그리하여 2005년, 改訂增補版 四書を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개정증보판 四書を 발간하였음에도, 여전히 과거 先賢들의 많은 註釋書, 끊임 없이 쏟아지는 국내외의 연구 성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 등을 오롯이 담아내지 못했다는 자체평가가 있었다.

또 역사가 이후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한 四書集註의 번역 또한 본회의 개정증보판의 번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본회는 기존의 사서삼경 역주서들이 발간한 지 20년이 지나 전반적으로 시대에 뒤쳐졌다는 판단을 하였고 21세기 버전 주석서를 다시 새롭게 만들기로 하였다. ‘五書五經讀本’은 그렇게 기획된 것이다.

五書五經讀本 발간사업은 傳統과 現代를 아우르면서 역대 국내외의 연구 성과를 망라하여 연구자는 물론 동양학 열풍으로 수준이 높아진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독자의 기호에 따라 연구의 기본자료 또는 교재, 입문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21세기 버전 翻譯書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국내외의 역대 註釋書를 비롯하여 동양고전국역총서 발간 이후 축적된 연구 성과를 종합하였다. 이를 위해 중견 이상의 한 학자 또는 정교수와 일정 수준의 소양을 갖춘 신진학자의 協同翻譯을 지향함으로써 전통과 현대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하여, 연구자, 교수자, 초학자, 原典을 통해 고전을 읽기 원하는 독자 등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접근하여 동양고전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모바일 기

기의 등장과 대중화는 출판환경과 독서형태를 변화시켰다. 변화에 발 빠르게 對應하고 시대를 先導하기 위해 오서오경독본을 스마트화하여 독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圖版 및 종이책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音聲・映像 자료 등을 QR코드 형식으로 제공하여 고전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오서오경독본 발간사업은 기획부터 발간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추동력을 잃지 않고 그 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본회 ‘先進文化韓國 VISION 2030-2050’ 계획에 편입하여 비전목표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음도 밝혀둔다.

오서오경독본은 수준 높은 研究翻譯과 교양을 추구하는 一般翻譯의 장점을 접목하여 새롭게 개척한 또 하나의 번역영역으로서 본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양고전 번역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오서오경독본은 전체 10종 22책으로 구성되어,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출간되어 2019년 완역될 예정이다. ㉞

五書五經讀本 발간사업

五書 : 大學・中庸集註(1책), 論語集註(2책), 孟子集註(2책), 小學集註(2책)

五經 : 詩經集傳(3책), 書經集傳(3책), 周易傳義(3책), 禮記(3책), 春秋左氏傳(3책)

- 총 10종 22책

※ 목적 및 필요성

- 東洋學 연구 土臺로서 기존 東洋古典國譯叢書의 새로운 버전 간행 요구
- 漢文文理 習得을 위한 기본 참고서 및 教授者用 講義教材에 대한 요청
- 講讀에 충실하면서도 現代化된 용어와 最新 研究成果가 반영된 翻譯書 필요
- 모바일 기기 대두로 인한 독서형태 변화에 대응

※ 특 징

- 初學者, 專攻者, 研究者 모두의 요구에 부합하는 21세기版 新譯書
- 原文으로 古典을 읽고 싶은 일반인을 위한 고급입문서
- 국내외 研究 成果를 대폭 반영한 연구서
- 한글・漢字 併記, 현대어법에 맞는 翻譯文의 現代化 구현
- 國內・외의 번역 및 註釋, 연구 성과 반영
- 각종 도판 자료 등 보조자료의 Smart化로 다양한 참고자료 제공

※ 간행계획

- 2018년 : 論語集註, 大學・中庸集註
- 2019년 : 孟子集註, 小學集註, 詩經集傳, 書經集傳, 周易傳義, 春秋左氏傳, 禮記

漢文讀解捷徑 시리즈

본회는 창립과 함께 古典研修院을 개설하고, 2000년에는 사이버書堂과 사이버書院을 오픈하였다. 수만 명에게 한문고전 강좌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한문독해를 위한 다양한 교재를 제공하는 등 한문고전의 보급과 대중화에 일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문독해력 신장을 위한 혁신적인 教材를 개발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회에서는 늦었지만 한문의 오랜 언어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자는 의견을 모았고, 2016년 말부터 본격적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드디어 결과물을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다.



한문은 韻文과 散文, 經史子集의 차이가 확연하고, 산문에도 四書, 五經, 唐宋古文, 史書, 실용문서 등 문체와 난이도가 다양하다. 이 때문에 연구진은 한중일의 교재는 물론이고, 영미권의 한문교재까지 참고하여 내용을 검토,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중요시한 텍스트가 ‘四書’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진은 사서 등 漢文 基本書의 약 11만字的 원문에 모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해석 순서에 따라 축자번호를 붙여 直解하면서, 각각의 字義와 문장의 해석 패턴을 Database로 구축하였다. 동시에 모든 한자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四書を 중심으로 虛字 중심의 기본 패턴을 추출하여 각각 유별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77개 패턴을 선정하여 《漢文독해 기본패턴》을 구성하였다.

다양한 Pattern을 제시하였고, 단위 문장에서는 逐字譯으로 해석방법을 익힌 후 反復的인 읽기와 쓰기로 연결되게 하여, 각 단계를 마칠 때마다 문장 구조의 分析力을 점차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두 번째 책인 《四書독해첩경》은 1책에서 학습한 패턴을 통해 사서를 독해하는 실천편에 해당한다. 1책에서 학습한 77개 패턴 중에서 주요 패턴을 복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四書의 주요 개념어, 어휘, 성어 등을 예문으로 배치하여 사서의 내용을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한문 독해를 위한 기본기를 익히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두 책을 같이 공부해야 한다.

서구의 한문학습 방법을 구문이나 패턴에 의한 理性的이며 분석적 방법으로 본다면, 우리는 懸吐와 誦讀이라는 특수한 형태인 感

性的 방법으로 한문을 익혀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법의 효과에 대한 평은 차치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한국의 한문학습 방법은 中·日이나 西歐와는 달랐다는 것이다.

연구팀에서는 이 둘의 長點을 취합하여 하나의 교육용 콘텐츠(소프트웨어)에 담아내고, 이를 소단원별로 QR코드로 연결하여 학습의 편의를 돕고자 하였다.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독음 익히기, 따라 읽기, 듣기, 구두 끊기, 패턴 찾기, 축자 익히기 등 다양한 학습 기능을 제공하며 점차 강의 등 자료를 확대할 계획이다.

漢文讀解捷徑 온라인 콘텐츠

‘한문독해첩경 시리즈’는 온라인으로도 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활용도 측면에서 장점을 극대화하였다. 도서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수록하지 못했던 패턴예문을 PC나 Mobile로 이용할 수 있어 심화·응용 학습이 가능하다.

Smart 한문독해Beta	제공 콘텐츠	주요 기능
메뉴보기 로그아웃 홈 한문독해첩경1(책) 6. 八字 풀이 패턴 #1 클릭시 재생 가능 ●●●●●●●● 속거보기 제시된 속거를 순서대로 클릭하면서 대응하는 한자를 익히시오. 이용방법! 1 4 3 2 2 1 己 所 不 欲 勿 施 於 人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배물지 마라. 이용안내 보기 ‘김형호’님은 현재 교강사 또는 콘텐츠 권한 계속중 콘텐츠 기간에 상관없이 수시로 접속 가능 수정 type : click1 서비스 : 사이버서울 및 사이버서울 / 제작권 : 동양고전정보화연구소	원 전 : 原文과 懸吐 번 역 : 意譯, 英譯, 諺解 직 해 : 直解 및 해석 순서 주 석 : 주요 어휘 도 표 : 삽화, 지도, 연표, 사적, 문물 강 좌 : 온라인 동영상 강좌	음 원 : 원문/번역의 읽기, 듣기 등 노 트 : 쓰기노트 패 턴 : 주요 구문 패턴 검색 책갈피 : 온라인 책갈피 기능 토론실 : 이용자 토론공간

東洋古典情報 國際化

國際交流 및 國際共同研究事業
(Globalization of Classical Chinese Studies)

漢文古典에 대한 관심이 한문문화권 국가 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 등 전 세계 학계에 확산되어 있으며 범지구적인 精神 遺産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한문고전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이 常時的으로 소통·협력할 채널이 필요하게 되었다.

시대 흐름에 따라 전통문화연구회는 연구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세계 학계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데이터 기반 한문 고전 연구에 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여 본회의 東洋古典教育 및 情報化 事業 성과를 국제적으로 擴散시키고자 東洋古典情報

國際化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시작으로 본회는 올해 5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 디지털인문학센터와 MARKUS 한국 확장판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맺었다. MARKUS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의 한문 고전 태깅 서비스로 문장에서 인명, 지명, 관직명 등을 자동으로 태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본회가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하여 MARKUS를 高度化할 뿐만 아니라 MARKUS Korea edition(한국 확장판)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



하였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한문고전 연구를 수행하여 왔던 두 기관의 성과를 세계에 알려 한문고전 연구 및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동양고전정보 국제화 사업의 주요 사항은 國際 研究 協力이다. 이를 위해 미국 하버드 대학교, 중국 북경대학교, 대만 중앙연구원, 일본 동경대 등 세계 주요 동양 고전 학술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綜合 知識 情報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동양고전 디지털 지식 자원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디지털 한문 고전학 국제학술회의(Digital Humanities in Classical Chinese Studies)를 개최하고 세계 디지털 한문 고전

학 디렉토리(Directory of Digital Chinese Classics)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 디렉토리 서비스는 세계의 한문 고전 관련 데이터베이스, 연구기관, 연구사업, 연구자 및 기여자의 종합 목록 및 교류 안내 정보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또한 영문 홈페이지 'Digital Hub of Classical Chinese studies'를 구축 및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이트는 동양고전 정보화 사업 결과물의 英文 유저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것이고, 국제 협력 연구를 위한 동양고전 데이터베이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개발을 포함한다. ㉠

※ 목적 및 필요성

- 漢文古典에 대한 관심이 全世界 學界에 확산, 범지구적 정신 유산으로 인정받음
- 해외 한문 고전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 상시적인 疏通・協力を 위한 통로 필요성 증대
- 본회의 東洋古典教育 및 情報化 事業 成果를 國際적으로 확산

※ 국제 연구 협력 사항

- 국제 협력 연구
 - 세계 주요 동양 고전 학술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종합 지식정보 시스템 개발 및 동양고전 디지털 지식 자원 공유
- 디지털 한문 고전학 국제학술회의 개최
- 세계 디지털 한문 고전학 디렉토리 발간
- 영문 홈페이지 'Digital Hub of Classical Chinese studies' 구축 및 운영

東洋古典 翻譯・刊行 事業 실적

본회는 창립과 함께 ‘基礎漢文教材 발간사업’과 ‘東洋古典國譯叢書 발간사업’에 착수하여 《四字小學》, 《明心寶鑑》 등의 蒙學書를 번역서, 교수용 지도서, 습자 교본 등으로 간행하였고, 1998년에는 ‘懸吐完譯 四書三經’을 완간하였다.

2001년부터는 교육부의 국고 지원을 받아 ‘東洋古典譯註事業’에 착수, 《春秋左氏傳》, 《通鑑節要》, 《莊子》, 《唐宋八大家文抄》 등 經史子集의 주요 고전을 역주하고 있다.

본회의 역주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한문 이해 방식인 懸吐를 계승하여 선현들의 경전 이해를 반영하고 정확한 번역을 도모하였다.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상세한 주석을 달아 전공자들이 원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특히 원로한학자와 신진학자의 協同研究 翻譯을 추구하는데, 이는 정확한 漢文 文理와 전문적인 전공지식의 融合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韓中日의 중요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東洋學 學界의 研究 推移를 眺望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十三經注疏 발간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십삼경주소’는 동양학의 기본 典籍이자 漢・唐代 古注를 집대성한 성과물로 전통적으로 매우 중시되었다. 경학 전통의 가장 중요한 기록물로 문헌가치가 매우 높으나, 원문이 尙大하고 내용이 難解하여 中國과 日本에서도 아직 完譯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회에서 세계 최초로 ‘十三經注疏’를 번역하는 일은 국학 및 동양학 연구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며 한중일 경학 연구의 주도적 역할을 자임하는 실로 막중한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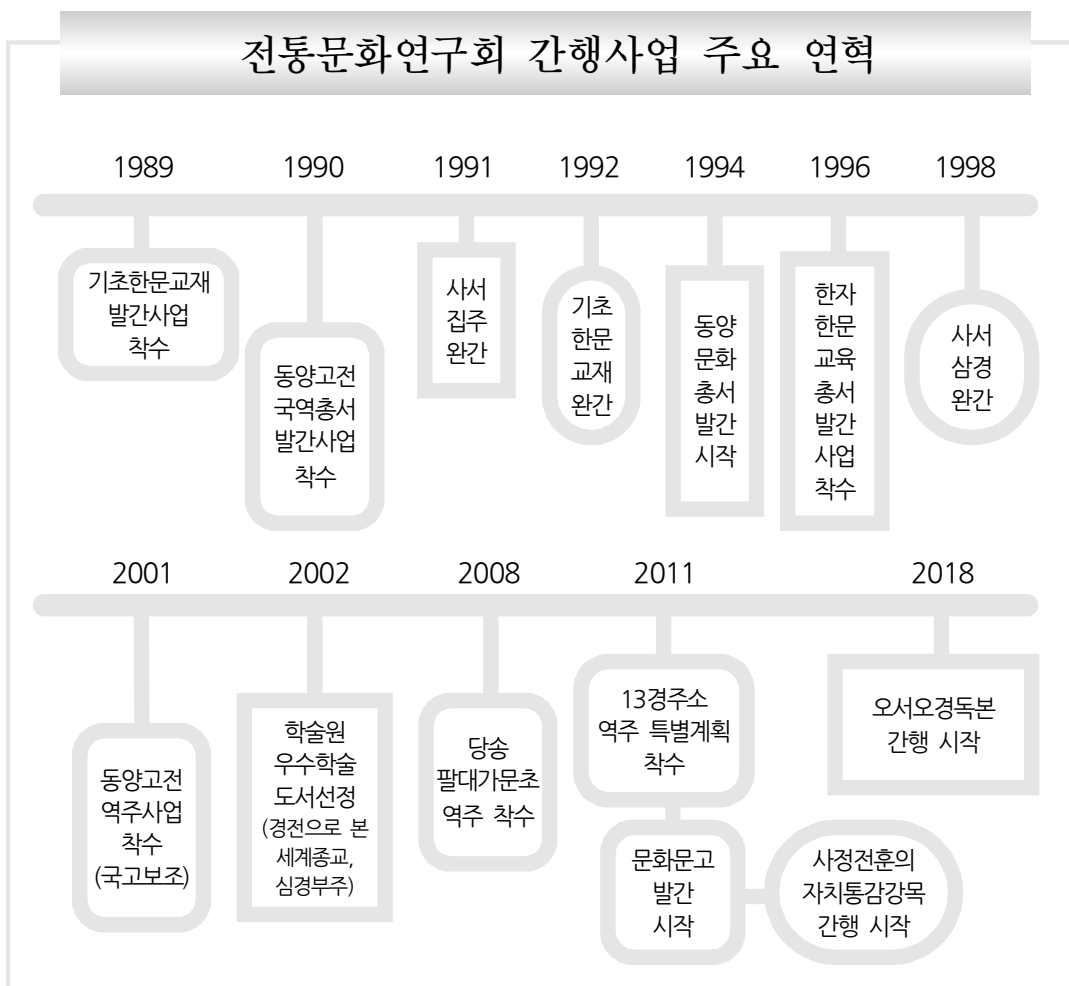
또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의 번역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資治通鑑綱目》은 朱熹가 孔子의 春秋筆法을 바탕으로 司馬光의 《자치통감》을 재편집하여 편찬한 책으로, 조선시대 임금의 經筵에서 가장 많이 읽힌 史書이다. 세종이 기존 중국에서 이루어진 《자치통감》과 《자치통감강목》의 주석을 종합하여 獨自의 註釋書를 편찬한 것이 바로 《사정전훈의 자치통감강목》이

다. 조선시대 왕실과 신하들의 역사관을 살
펴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기본서
라고 할 수 있다.

본회는 무엇보다도 주요고전을 정확하고 상
세하게 역주하는 기본 소임을 충실히 하는 동시
에, ‘동양고전역주사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의
연구성과를 반영하고 번역을 현대화하여 ‘五書

五經’을 새롭게 번역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올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습방식과
번역 추이 등을 분석하여 이에 副應하고 先
導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圖版 자료나 동영상 자료
등을 인터넷 환경에서 제공하여 원전의 맥락
을 더욱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방안을 개
발 중이다. ㉠



□ 기초한문교재 : 7종 8책

- 初學 단계의 漢文教材
- 字義, 語法, 典故 등 필수 학습 정보 제공
- 번역서, 습자교본으로 용도별 구성

註解千字文 | 四子小學 | 推句·啓蒙篇 | 明心寶鑑 | 童蒙先習·擊蒙要訣

□ 동양고전국역총서 : 16종 20책

- 原典의 傳統性和 翻譯의 現代性 구현
- 懸吐를 반영하고 원문에 충실한 번역
- 四書三經을 최초로 懸吐 完譯

論語集註 | 孟子集註 | 大學·中庸集註 | 小學集註
詩經集傳 | 書經集傳 | 周易傳義 | 古文眞寶 後集 등

□ 동양문화총서 : 17종 18책

- 동양문화의 총체적 탐구를 위한 敎養書
- 현대적 감각의 해설, 번역
- 동양고전의 대중화 도모

先賢들의 字와 號 | 古今笑叢 | 漢字部首 解說 | 화합의 길 - 중용 읽기 등

□ 한자한문교육총서 : 31종 31책

- 종합적 한자한문교육 추구, 전통과 현대의 교육 방식 융합
- 字義, 用例, 文法, 典故, 章旨, 解說 등 종합적 정보 제공
- 袖珍本, 교수용 지도서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

‘기초한문교재’의 교수용 지도서 | 한자 자원 교육론 | 실용교양한문
袖珍本(四書三經, 古文眞寶, 小學·孝經, 基礎漢文教材) 등

□ 동양고전역주총서 : 43종 111책

- 韓國學과 東洋學 연구의 先決課題
- 한국학과 동양학 연구의 自生力과 效率性 提高
- 교육자와 문화관계인 및 일반인을 위한 동양문화 교양자료 제공
- 東北亞 政策 및 文化 등 각 분야 기본 자료
- 교육부 국고보조사업(고전문헌 국역지원), 6년 연속 최우수 등급

○ 十三經注疏 : 7종 15책

論語注疏 | 周易正義 | 尙書精義 | 禮記正義(中庸·大學)
毛詩正義 | 孝經注疏 | 孟子注疏

○ 唐宋八大家文抄 : 8종 21책

韓愈 | 柳宗元 | 歐陽脩 | 蘇洵 | 蘇軾 | 蘇轍 | 曾鞏 | 王安石

○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 1종 10책

○ 武經七書直解 : 7종 4책

孫武子直解·吳子直解 | 六韜直解·三略直解
尉繚子直解·李衛公問對直解 | 司馬法直解

○ 其他 : 20종 61책

古文眞寶 後集 | 國語 | 近思錄集解 | 老子道德經注 | 唐詩三百首
大學衍義 | 東萊博議 | 墨子閒詁 | 說苑 | 荀子集解 | 心經附註
顏氏家訓 | 揚子法言 | 禮記集說大全 | 莊子 | 戰國策
貞觀政要集論 | 春秋左氏傳 | 通鑑節要 | 韓非子集解

□ 문화문고 : 28종 29책

- 동양문화·세계고전에 대한 대중적 관심 提高
- 국민의 역사·문화의식 확대 및 강화
- 대중의 교양과 지식 저변 확대
- 문고본의 보급으로 보편적 독서 문화 조성

고문진보 산문선 | 사소절 | 현대인, 동양고전에서 길을 찾다
경전으로 본 세계종교 | 동아시아의 유교와 전통문화 | 십구사략 등

□ 동양고전신역 : 3종 3책

- 동양고전 이해의 기초자료 제공
- 번역문 위주 구성, 가독성 提高
- 고전 이해의 새로운 시각 제공

唐詩選 | 조선 무인 조희순이 설명한 손자병법 - 孫子髓 | 莊子(內篇)

□ 오서오경독본 : 3종 3책

- 21세기版 新譯書, 고급입문서
- 翻譯文의 現代化 구현, Smart化로 다양한 참고자료 제공
- 國內·외의 번역 및 註釋, 연구 성과 반영

大學·中庸集註 | 論語集註

□ 한문독해첩경 시리즈 : 2종 2책

- 서구의 理性的 방법과 우리 전통의 感性的 방법의 장점 융합
- 문장 구조의 분석력을 기르도록 고려
- 온라인으로 다양한 학습 자료 및 시스템 제공

《漢文독해기본패턴》 | 《四書독해첩경》

□ 기 타 : 12종 19책

초등학교 한자 1~4단계 | 설화문학총서 | 창세기 역주 등

※ 전통문화연구회 도서 간행 실적 : 총 167종 259책 (2018년 간행 예정 포함)

주요 간행서 소개

五書五經讀本 [全22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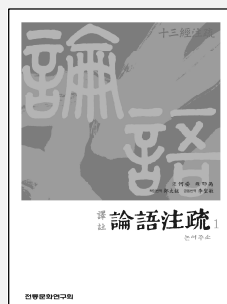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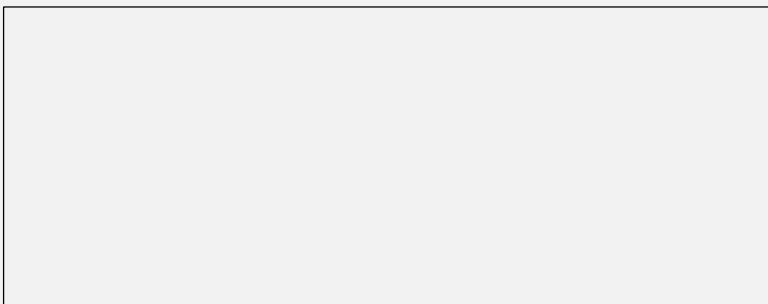
鄭太鉉 外 譯註



儒家 주요 경전의 번역서가 이미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이해하기 쉬운 현대어 번역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연구자의 요구도 만족시키는 번역서는 찾기 어렵다. 본회는 선현들의 注釋과 국내외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되 현대적 번역을 추구하여, 독자의 기호에 따라 연구의 기본자료 또는 교재, 입문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21세기 버전 翻譯書를 간행하고자 한다.

譯註 十三經注疏 [全111冊]

鄭太鉉 外 譯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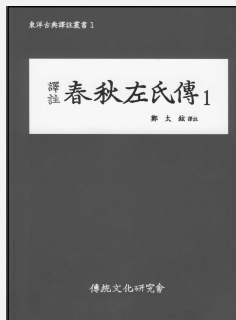


‘十三經’은 《詩經》, 《書經》, 《周易》, 《周禮》, 《儀禮》, 《禮記》, 《春秋公羊傳》, 《春秋穀梁傳》, 《春秋左氏傳》, 《論語》, 《爾雅》, 《孝經》, 《孟子》를 포함하는 총 13종의 儒家 文獻의 총칭이다.

‘十三經注疏’는 이들 문헌에 대한 가장 오래된 주석이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체계적인 주석으로,漢나라와 魏晉 시기의 학자들이 저술한 古注에 唐나라 孔穎達의 疏가 합쳐진 五經正義와 宋나라 학자들의 疏가 추가되어 완성된 것으로 무려 천 년 이상의 학문적 蘊蓄이 빚어낸 결정체이다. 본서는 十三經의 經文과 더불어 注와 疏까지 譯註하였는데, 이는 중국과 일본도 거두지 못한 성과이다.

譯註 春秋左氏傳 [全8冊]

鄭太鉉 譯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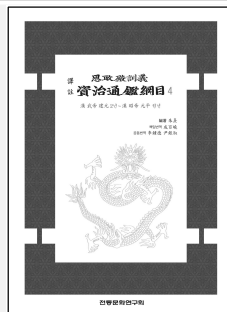


孔子가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 역사서 《春秋》는 編年體 역사서의 모범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大義名分에 근거한 준엄한 역사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春秋》의 筆法은 이후 동아시아의 역사서술에서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春秋》의 주석서 중에 역사적 사실을 가장 풍부하게 담은 책이 《春秋左氏傳》이다. 여기에는 春秋時代 列國의 흥망성쇠와 당시의 정치, 군사, 경제, 외교, 제도, 문물, 풍속 등이 망라되어 있어 사료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으며 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譯註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全39冊]

辛承云 外 譯註



《資治通鑑綱目》은 宋의 朱熹가 孔子의 春秋筆法에 의거하여 司馬光의 《資治通鑑》을 재편집한 책이다. 이 책은 조선시대 임금의 經筵에서 빈번하게 읽혔다. 특히 世宗은 《資治通鑑》과 《資治通鑑綱目》의 주석을 종합하여 군주와 신하들이 읽기 쉽도록 獨自의 注釋書を 편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이다.

譯註 貞觀政要集論 [全4冊]

李忠九 外 譯註



《貞觀政要》는 唐나라 吳兢이 唐太宗 시기의 정치 요체를 집약한 책으로 제왕학의 교과서로 평가될 만큼 동아시아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貞觀政要集論》은 《貞觀政要》가 轉寫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나타나게 되자, 元나라 戈直이 여러 판본을 참고하여 오류를 바로잡고 唐나라 이래의 여러 유학자들의 논평을 모아서 편찬한 책이다.

夏殷周 三代에 개화하기 시작한 中華文明은 春秋・戰國 시대를 거치며 다채롭고 찬란하게 발전하였다. 이 시기 활동했던 사상가나 학술 집단을 일컬어 諸子百家로 총칭하는데, 제자백가의 사상은 동아시아의 사상과 문화를 형성하는 源流로서 이후 동아시아 모든 시기의 사회・문화・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세계사적으로도 이 같이 탁월한 학술적 성과를 이룩한 시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제자백가에 대한 연구는 한자문화권의 始原을 탐구하는 일일 뿐 아니라, 인류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조명하고 계승하는 일이다.

본회는 제자백가 주요 사상가의 저술을 후대 학자들의 권위 있는 주석과 함께 번역하여 학계에 소개하고 있다.



동양 도가철학을 대표하는 《장자》는 지금도 우리를 상상력의 세계로 인도한다. 또한 《장자》는 동양의 대표적 우화집으로 민중의 삶을 대변하면서 동양의 이상적 유토피아를 제시한다. 그러나 《장자》는 매우 난해한 글로도 유명하여 주석이 없는 보기 힘든 책이다. 본서는 郭象 등 위진시대 주석부터 송나라, 명청대 주석 뿐만 아니라 현대 한중일의 연구서까지 반영하였다.



공자 사상의 內聖의 측면을 맹자가 계승했다면, 外王의 측면은 순자가 발전시켰다. 순자는 性惡說을 주장하면서도 教化를 통해 누구나 聖人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순자는 당대의 諸子百家 사상을 비판하는 동시에 그들의 장점을 받아들여 종합하였다.

《譯註 荀子集解》는 《순자》 연구에 가장 권위 있는 판본이자 주석서인 清代 王先謙의 集解를 저본으로 하여 大文뿐만 아니라 집해까지 번역한 책이다.



노자는 道에 따르는 삶을 주장했는데, 이는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道家에서는 無爲自然이라고 한다.

《譯註 老子道德經注》는 《도덕경》의 철학적 原義를 가장 잘 규명했다고 평가되는 王弼의 주석을 번역하여 노자 사상의 진면목을 조망할 수 있게 하였다.

譯註 唐宋八大家文抄 [全24冊]

申用浩 外 譯註



《唐宋八大家文抄》는 明의 茅坤이 韓愈・柳宗元・歐陽脩・蘇洵・蘇軾・蘇轍・曾鞏・王安石 등 唐宋의 문장가 8인의 글을 정선하고 평을 붙여 간행한 文選集이다. 古文 學習의 典範書 역할을 한 책으로, 조선에서도 正祖가 이 중 100편을 정선하여 《唐宋八子百選》을 간행할 정도로 영향이 컸다.

譯註 武經七書直解 [全4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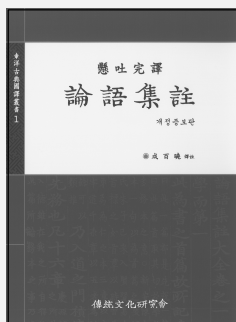
成百曉 外 譯註



宋代에 여러 兵書 중 정선하여 《武經七書》를 간행하였는데, 《孫武子》, 《吳子》, 《司馬法》, 《六韜》, 《三略》, 《尉繚子》, 《李衛公問對》가 이에 속한다. 그리고 明나라 劉寅은 이것을 풀이하여 《七書直解》로 간행하였다. 이후 《七書直解》는 明나라와 조선에서 武科의 필수 교재로 채택되어 가장 널리 읽힌 兵書가 되었다.

懸吐完譯 四書三經 [全9冊]

成百曉 譯註



우리나라 최초로 四書三經을 集註까지 完譯하였으며, 전통적 방식으로 懸吐하고 우리말 번역을 아래에 실었다. 原義를 그대로 살려 번역하였으며, 字義를 하단에 제시하여 한문을 학습하는 이들에게 매우 유용한 강독서라는 평가를 받았다.

四書：《論語集註》，《孟子集註》，《大學・中庸集註》

三經：《詩經集傳》，《書經集傳》，《周易傳義》

동양고전 역주서 간행과 학계의 영향

동양고전의 역주 작업은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일로 한국학·동양학 기반 조성의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0년간 본회가 역주한 수많은 동양고전은 직·간접적으로 학계의 연구 성과로 이어졌다. 본회의 역주총서 중 완간된 서목을 기준으로 학계의 영향관계를 정리해보았다.

□ 본회 역주총서의 간행과 논문 및 연구서 발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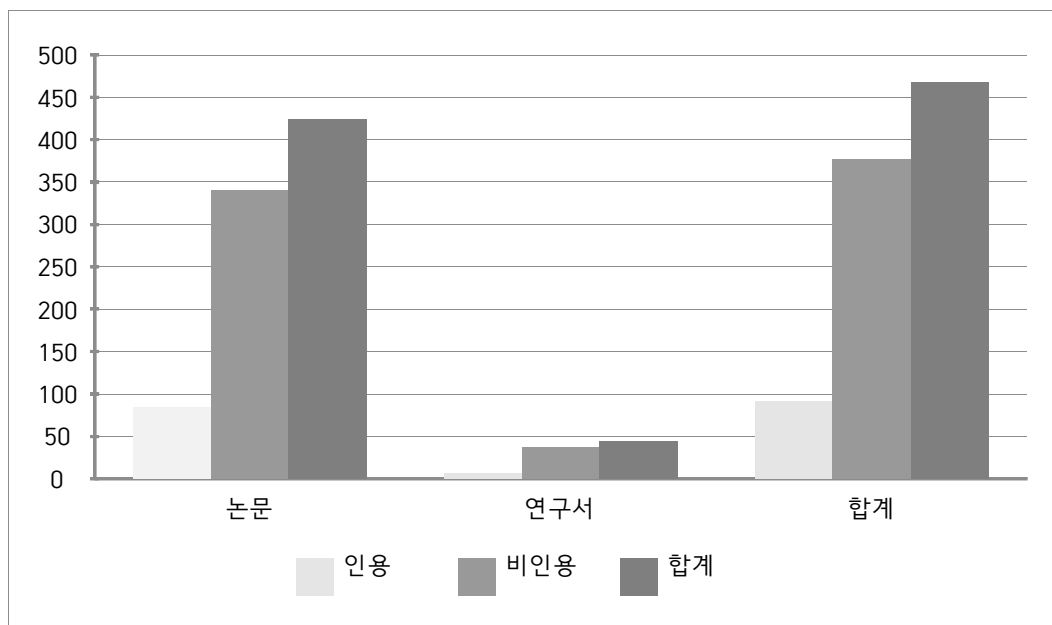
연 번	서 명	四部分類	완간연도	논 문		연 구 서		계
				인용	비인용	인용	비인용	
1	古文眞寶 後集	集部	2001	8	2	0	3	13
2	心經附註	子部	2002	14	20	1	1	36
3	戰國策	史部	2004	7	8	1	0	16
4	近思錄集解	子部	2004	7	10	0	2	19
5	莊子	子部	2006	28	119	0	12	159
6	國語	史部	2006	3	7	0	2	12
7	春秋左氏傳	經部	2009	5	23	2	1	31
8	通鑑節要	史部	2009	1	3	0	0	4
9	唐詩三百首	集部	2009	2	13	2	0	17
10	唐宋八大家文抄(王安石)	集部	2009	0	10	0	2	12
11	唐宋八大家文抄(曾鞏)	集部	2010	0	4	0	0	4
12	唐宋八大家文抄(蘇轍)	集部	2010	0	5	0	1	6
13	唐宋八大家文抄(蘇軾)	集部	2011	2	9	0	3	14
14	唐宋八大家文抄(蘇洵)	集部	2011	1	0	0	1	2
15	說苑	子部	2011	1	11	0	0	12
16	顏氏家訓	子部	2012	2	3	1	0	6
17	唐宋八大家文抄(柳宗元)	集部	2012	0	6	0	1	7

18	孫武子直解・吳子直解	子部	2012	0	12	0	1	13
19	尉繚子直解・李衛公問對直解	子部	2013	0	1	0	0	1
20	六韜直解・三略直解	子部	2013	0	2	0	0	2
21	老子道德經注	子部	2014	0	58	0	7	65
22	司馬法直解	子部	2014	0	0	0	0	0
23	禮記正義(大學・中庸)	經部	2014	0	8	0	0	8
24	論語注疏	經部	2015	3	3	0	0	6
25	孝經注疏	經部	2017	0	2	0	0	2
26	貞觀政要集論	史部	2017	0	1	0	0	1
계				84	340	7	37	468

* 완간년도 기준으로 이후의 연구 자료를 조사

* ‘인용’은 각 논문 및 연구서의 각주나 참고문헌에 본회의 역주서가 명시된 경우

* ‘비인용’은 각 논문 및 연구서의 각주나 참고문헌에 본회 역주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 본회 역주서 간행 이후 논문, 연구서 발표 현황 〉

東洋古典教育事業 실적

어떠한 사업이든 장기적 발전 전망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본회의 교육사업도 이러한 취지에서 본회의 창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동양고전의 교육사업은 전문 인력을 양성할 뿐 아니라 동양고전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1988년 古典研修院을 설치하여 동양학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강좌를 제공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그동안 축적된 교육의 성과를 온라인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동양학의 저변을 획기적으로 넓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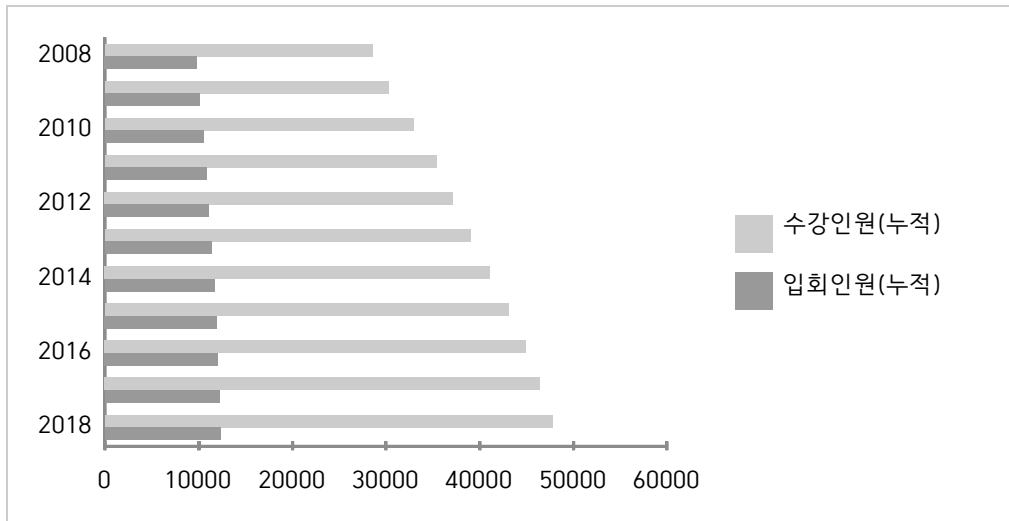
□ 古典研修院 : 1988년 개설

취지

- 한자·한문의 교양교육을 통한 國語能力 강화
- 韓國學 및 東洋學徒의 漢文 讀解力 증진
- 일반인의 교양한문 교육 저변 확대
- 전통문화, 고전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문화 강국 건설의 기반
- 韓國學·東洋學 연구와 고전번역을 위한 後續世代 양성

실적

- 입회인원 : 약 12,000명
- 수강인원 : 약 47,000명 (무료수강생 약 12,000명)
- 개설강좌 : 약 1,200강좌
- 진행기수 : 139기 강좌 진행 중 (2018.11 현재)



〈 최근 10년간 입회인원 및 수강인원 누적 (단위 : 명) 〉

주요강좌

- 기초한문 (42%) : 사자소학, 추구, 계몽편, 동몽선습, 격몽요결, 주해천자문, 명심보감, 기초중국어, 부수로 부수는 한자, 고사성어, 기초한문문법, 문자학특강 등
- 중급한문 (37%) : 소학, 대학, 논어, 맹자, 중용, 고문진보, 통감절요, 당시삼백수, 한국한시, 두보시특강, 설화문학, 삼국사기열전 등
- 고급한문 (21%) : 시경, 서경, 주역, 춘추좌씨전, 예기, 초서, 노자, 순자, 장자, 한비자, 제자백가, 근사록, 여한십가문초 등



〈 고전연수원 강의 〉



〈 고전연수원 답사 〉

□ 사이버서당, 사이버서원 : 2000년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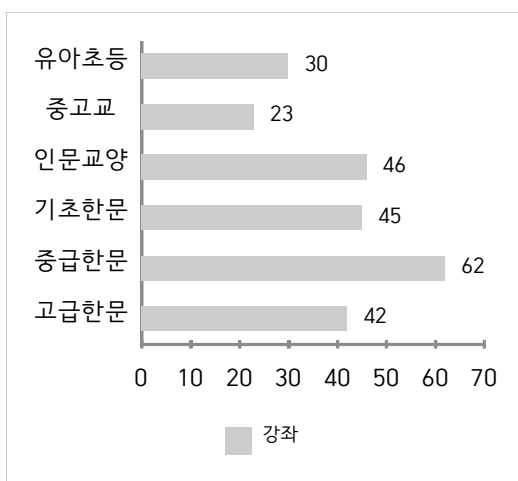
취 지

- 올바른 語文生活과 人文분야 敎養 함양
- 全국민 대상 교육 및 문화콘텐츠 제공
- 國學徒의 漢文讀解力 증진과 漢字・漢文 교육의 지도자 양성
-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학습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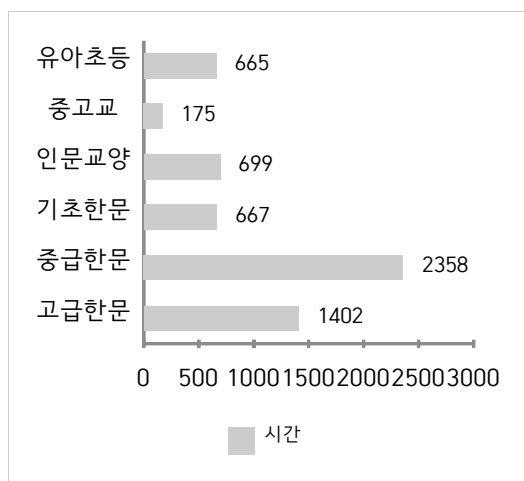
실 적

- 수강인원 : 약 26,000명
- 등재강좌 : 115과목 248강좌 5,966시간

과 정	주요 강좌
유아초등	[초등] 사자소학, [초등] 명심보감, [초등] 논어, 초등한자 1~4단계 등
중·고교	[중등] 논어, [중등] 한시, 수능한문특강 등
인문교양	원문고사성어, 명심보감, 한문문법 등
기초한문	한문독해기본패턴, 추구, 계몽, 동몽선습, 명심보감 등
중급한문	대학, 논어, 맹자, 중용, 고문진보, 당시삼백수 등
고급한문	시경, 서경, 주역, 춘추, 서간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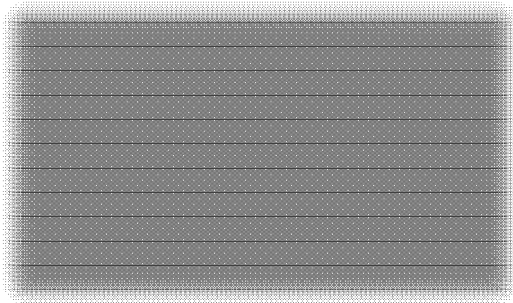


〈과정별 강좌수〉



〈과정별 강의시간〉

사이버 書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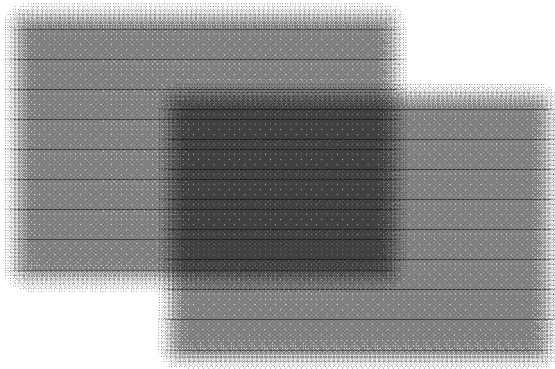


- 99강좌 1,539시간
- ☞ 어린이, 초중고교 및 성인의
한자·한문 능력 신장

주요 강좌

- 유아초등 어린이를 위한 온라인 프린트 학습지 : **상상한자**
- 중·고등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 : **사자소학 추구 명심보감 논어 맹자 한시 등**
- 일반인들의 인문학 소양을 위한 교양강좌 : **인문학특강 사서입문 고사성어 등**
- 2글자부터 8글자까지의 한문독해풀이 패턴을 배우는 필수강의 : **한문독해기본패턴**

□ 사이버서당 온라인 프린트학습지 ‘상상한자’



과 정	콘텐츠 구성
1단계	기초한자(200개)
2단계	破字 / 部首字(50개), 교과서어휘(150개)
3단계	破字 / 部首字(50개), 교과서어휘(150개), 한자성어(50개)
4단계	한자성어(150개), 속담 / 격언 / 명구(100개)

사이버書院



- 195강좌 5,131시간
- ☞ 동양학 입문자 및 전공자를 위한 한문 원전 강독

주요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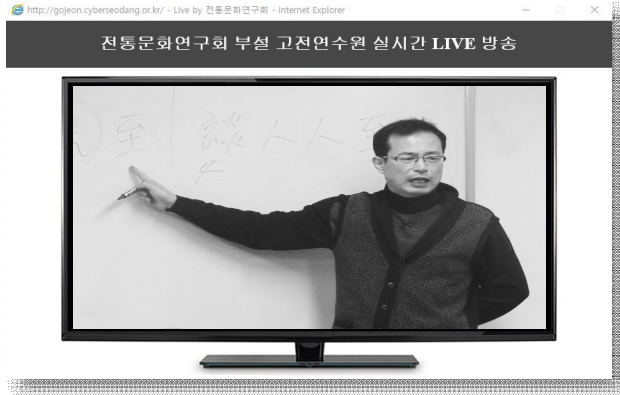
- 2글자부터 短文・長文까지 패턴으로 배우는 독해비법 : **한문독해첩경 시리즈**
- 기초한문 楚石 다지기 : **啓蒙篇 童蒙先習 擊蒙要訣 明心寶鑑** 등
- 儒家 경전의 精髓 : **大學 論語 孟子 中庸 詩經 書經 周易 春秋** 등
- 古典의 진정한 멋과 옛 사람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강좌 : **古文眞寶 唐詩三百首** 등
- 다양한 인문강좌의 寶庫 : **書簡文 草訣歌 荀子 醇言 韓非子** 등

□ 한문독해 입문자를 위한 Smart 한문독해



☞ 기본고전 DB를 활용한 낱글자 풀이순서와 해석방법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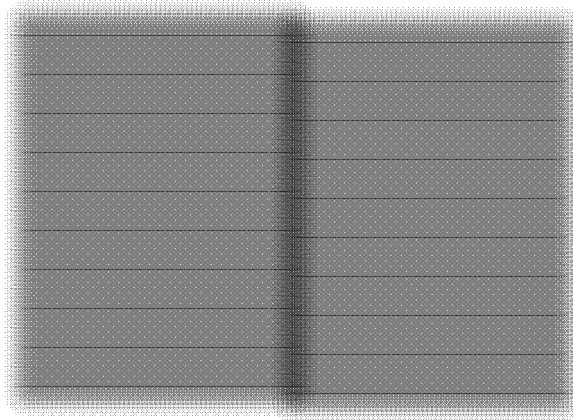
□ 고전연수원 실시간(Live) 방송



2014년도 122기부터
학기별 4~5강좌 방송
누적 65강좌

- 사자소학, 명심보감,
논어, 맹자, 주역,
고문진보, 춘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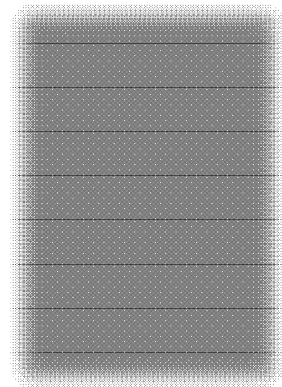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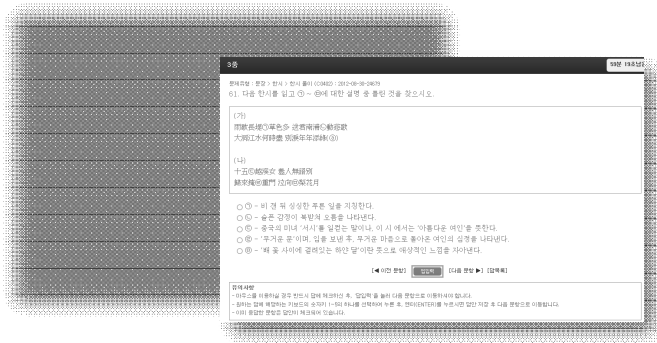
□ 사이버서당·사이버서원 모바일 앱



시간, 장소에 구애 없이
동양고전강좌 시청 가능

사이버서당 : 유아초등
중고교생 인문교양
사이버서원 : 인문교양
기초한문 중급한문 고급한문

□ 온라인한자한문능력검정시험



□ 東洋古典教育사업 연혁

연 도	내 용
1988	「고전연수원」 개원
2000	「사이버書堂」 개설
2001	「사이버書堂」 회원제 전환
2003	원격대학 교양한문 콘텐츠 제공 시작 - 서울디지털대학 등
	「사이버書堂」 동영상 VOD 서비스 개시
2007	「사이버書堂」 확대개편
2009	「사이버書堂」 무료 한자교육 사이트로 전환 - 한문고전연수 사이트 「사이버書院」으로 분리 개편
2013	「모바일 사이버書堂·사이버書院」 개설
	「사이버書堂/書院」 홈페이지 改編
2014	論語 百讀會 강좌 개설
2015	「사이버書堂」 온라인프린트 학습지 ‘상상한자’ 오픈
2016	「사이버書院」 서비스 개편
	「論語集中研修過程」 개강
	「漢文讀解捷徑」 개발 착수
2018	「漢文讀解捷徑」 과정 개설

東洋古典情報化事業 실적

동양고전의 정보화사업은 동양고전전문헌을 현대화하여 21세기 문화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전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양고전의 역주 자료를 정보화하여 일반이용자 및 연구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동양고전에 사용된 어휘를 정보화하여 동양고전 번역의 속도 및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이용자의 가독성을 향상시켰다.

동양고전의 현대화된 연구와 번역의 기반을 제공하고 나아가 한국학 및 동양학 연구 성과를 세계적으로 공유, 교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동양고전종합DB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화면

<http://db.juntong.or.kr> (모바일 화면은 기기에 따라 자동 인식)

□ 동양고전종합DB 사업

동양고전종합DB 구축

▷ DB 구축 : 동양고전역주서 81책, 현토 16책

○ 經部

論語集註 | 孟子集註 | 大學·中庸集註 | 詩經集傳 | 書經集傳 | 周易傳義
春秋左氏傳 | 論語注疏 | 周易正義 | 尚書正義 | 禮記正義 | 禮記集說大全

○ 史部

國語 | 東萊博議 | 資治通鑑綱目 | 戰國策 | 貞觀政要集論 | 通鑑節要

○ 子部

莊子 | 六韜直解 | 三略直解 | 吳子直解 | 孫武子直解 | 司馬法直解
孫子髓 | 尉繚子直解 | 李衛公問對直解 | 近思錄集解 | 小學集註 | 心經附註
顏氏家訓 | 老子道德經注 | 說苑 | 揚子法言 | 荀子集解 | 大學衍義

○ 集部

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 | 唐宋八大家文抄 蘇軾 | 唐宋八大家文抄 蘇轍
唐宋八大家文抄 王安石 | 唐宋八大家文抄 柳宗元 | 唐宋八大家文抄 韓愈
唐宋八大家文抄 蘇洵 | 唐宋八大家文抄 曾鞏 | 古文眞寶 | 唐詩三百首

○ 其他

註解千字文 | 四字小學 | 啓蒙篇 | 童蒙先習 | 擊蒙要訣 | 明心寶鑑 | 推句

▷ 멀티미디어 DB 구축 : 1,761시간

▷ 동양고전종합DB구축 결과 :

“동양고전종합DB <http://db.juntong.or.kr>” 웹사이트 서비스 (2010년 ~ 현재)

□ 동양고전어휘정보화 사업

동양고전어휘정보화 DB구축

▷ DB 구축 : 동양고전어휘 150만, 고전문헌말뭉치 2,600만 어절,
현대문헌말뭉치 5,600만 어절

○ 동양고전어휘

대한화사전 | 한어대사전 | 한국인물대사전 | 한국한자어사전 | 이두사전
옛편지날말사전 | 의궤용어 | 역주 조선왕조실록 사전 | 한국인물대사전
불교사전 | 중국역대인명대사전 | 중국지명사전 | 역주 조선왕조실록 사전
조선왕조실록 출현 인명 | 국제퇴계학회 제공 웹 사전 | 중의대사전 | 한한대사전
문과방목 합격자 정보 | 국역 조선왕조실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전국역서 말뭉치 (경세유표, 고려도경, 고려사절요)

○ 현대문헌말뭉치

세종 원시 말뭉치 외 | 최신 신문 기사, 법률, 교과서 등

▷ 고전문헌말뭉치구축 결과 : 동양고전용레검색서비스 <http://lu.juntong.or.kr>
웹사이트 탑재 (2019년 서비스 예정)

▷ 현대문헌말뭉치구축 결과 : 한자로(漢字路) <http://hanjaro.juntong.or.kr>
웹사이트에서 서비스(2014년~현재)



□ ‘漢字路’ 한글-漢字 자동변환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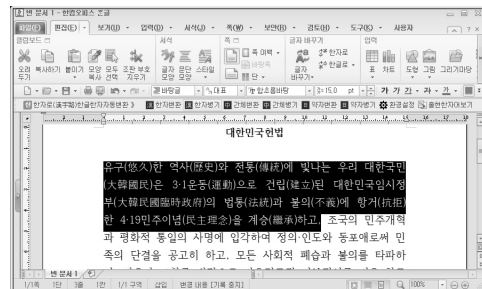
‘한자로’는 한글 문장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알맞은 단어를 한자로 변환해주는 劃期的인 솔루션solution이다. 클릭 한 번이면 선택된 문장·문서 영역에서 해당 한자어를 自動으로 變換·併記한다. 뿐만 아니라 中國의 簡體字, 日本의 略字로도 간편하게 변환할 수 있다. 환경설정에서 변환 한자 범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자 사전 관리에서 변환하고자 하는 단어만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6년 12월 특허 제10-1686114호로 등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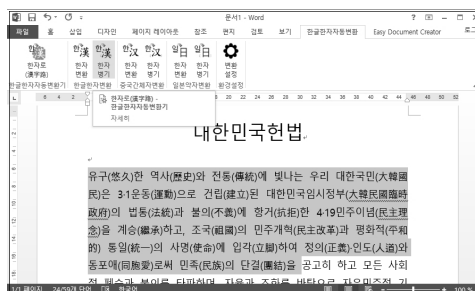
한자로 웹사이트(hanjaro.juntong.or.kr)를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한자로 변환·병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아래아 한글, MS-Word, PowerPoint용 애드인Add-in 프로그램이 공개되어 있어 설치 후 이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한자 사전 기능이 탑재된 크롬, 파이어폭스 등 주요 웹브라우저용 애드인도 공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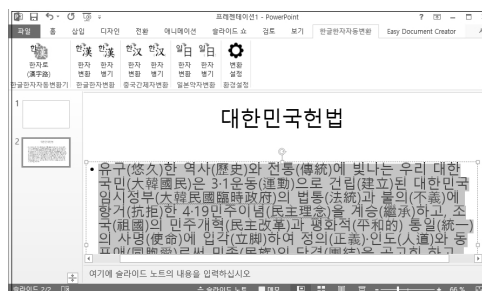
웹사이트



아래아 한글



MS-Word



MS-PowerPoint

□ 東洋古典情報化研究所 연혁

연 도	내 용	비 고
2010	▷ 동양고전종합DB 서비스 개시	국역서 6종 8책 멀티미디어DB 5종 265시간
2011	▷ 동양고전종합DB 서비스	역주 6종 6책, 멀티미디어 250시간
2012	▷ 동양고전어휘정보화 공동연구에 관한 양해각서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동양고전종합DB 서비스	역주 6종 8책, 멀티미디어 184시간
2013	▷ 동양고전종합DB 서비스	역주 4종 11책, 멀티미디어 192시간
2014	▷ 東洋古典情報化研究所 설립	
	▷ 한자로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웹 서비스 공개	hanjaro.juntong.or.kr
	▷ 동양고전종합DB 서비스	역주 2종 4책, 멀티미디어 192시간
2015	▷ 울산대 현대어휘정보화 공동연구개발 契約	
	▷ 한문문장 입력용 사용자사전 배포	기초한문, 사서, 삼경 한문 32,000여 문장 수록
	▷ 스마트폰용 논어 앱 배포	
	▷ 한자로漢字路 애드인 프로그램의 특허등록출원	
	▷ 한자로 Add-in 아래아한글용 한글한자자동변환 프로그램 공개	
	▷ 동양고전종합DB 서비스	역주 14종 12책, 멀티미디어 189시간
2016	▷ 동양고전종합DB 사이트 개편	새로운 레이아웃, 검색 및 디스플레이 성능 개선 역주 9종 12책, 멀티미디어 182시간
	▷ 귀로읽는논어 스마트폰 앱 출시	
	▷ 한자로 Add-in MS-Word용,MS-PowerPoint용 한글한자자동변환 프로그램 공개	
	▷ 스마트폰용 삼경 앱 출시	
	▷ 한자로漢字路 애드인Add-in 프로그램 특허 등록 (제10-1686114호)	
2017	▷ 자로 개발 ▷ 실시간 한자로 웹사이트 오류 수정 ▷ 지능형 번역 지원 시스템 지원 시작 ▷ 漢韓 병렬 말뭉치 구축 시작	
	▷ 동양고전종합DB 서비스	역주 6종 12책, 멀티미디어 180시간
2018	▷ MARKUS 한국 확장판 공동연구 개발 협약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
	▷ 동양고전종합DB 서비스	역주 8종 11책, 멀티미디어 180시간

학술발표회

본회는 동양고전의 번역, 교육, 정보화 사업을 진행하고, 어문정책 정상화 활동을 추진 하면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할 필요를 느꼈고, 長・短期 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과 관계 인사들의 공동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에 각계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 발표회를 연례 사업으로 개최하고 있다.

□ 2007년 학술발표회

구 분	내 용
주 제	漢字・漢文 教育과 訓民正音의 세계화
주 최	한자교육국민운동연합
주 관	전통문화연구회
후 원	조선일보사, 한국경제신문사, 한국어문화
일 시	2007년 10월 9일(화)
장 소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
논 문 발표자	[기조발표] 잘못된 語文政策과 그 分명한 是正策 / 李應百(서울대 명예교수)
	학습자 중심의 漢字 教授-學習 방법 고찰 / 韓殷洙(신우초 교사)
	漢文教育의 現況과 改善 課題 / 成百曉(한국고전번역원 교수)
	訓民正音의 制字 원리와 그 응용 / 方錫淙(前 감리교신학대 교수)

□ 2011년 학술발표회

구 분	내 용
주 제	동양고전 역주의 제문제 및 국어개념 정립과 국어기본법
주 최	전통문화연구회, 한자교육국민운동연합
후 원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어문화, 반디앤루니스 구경서숙
일 시	2011년 11월 10일(목)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논 문 발표자	1부 : 동양고전 번역의 제문제
	《莊子》 翻譯의 몇 가지 문제점 / 安炳周(성균관대 명예교수)
	翻譯制度에 대한 所懷와 拙譯의 誤謬에 대하여 / 鄭太鉉(한국고전번역원 명예한학교수)
	《譯註 唐詩三百首》를 마치며 / 宋載邵(성균관대 명예교수)
	《通鑑節要》를 完譯하고 / 成百曉(해동경사연구소 소장)
	2부 : 국어개념의 정립과 국어기본법 문제
	國語學的 見地에서 본 國語 基本法 / 金慶洙(중앙대 명예교수)
	우리나라 국어 어문정책에 대한 헌법학적 조명 / 崔大權(서울대 명예교수)
	憲法 제9조에 비추어 본 國語基本法の 문제점 / 李仁皓(중앙대 교수)

□ 2012년 학술발표회

구 분	내 용
주 제	十三經注疏 및 懸吐 연구
주 최	전통문화연구회
후 원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고전번역원, 국사편찬위원회

일 시	2012년 11월 28일(수)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논 문 발표자	[기조연설] 漢文 虛辭와 우리의 吐 / 趙鍾業(충남대 명예교수)
	[기조연설] 懸吐에 대해서 / 成百曉(해동경사연구소 소장)
	十三經注疏의 經學史的 意義와 翻譯의 必要性 / 田好根(경희대 교수)
	한문문헌의 斷句와 諺解 / 沈慶昊(고려대 교수)
	한문고전 정리 번역에 있어서 懸吐의 필요성 / 李相夏(한국고전번역원 교수)

□ 2013년 학술발표회

구 분	내 용
주 제	東洋古典 現代化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주 최	전통문화연구회
후 원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협 찬	한국어문화, 반디앤루니스, 한자교육진흥회
일 시	2013년 11월 20일(수)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논 문 발표자	동양고전 翻譯의 현대적 의의 / 田好根(경희대 교수)
	東洋古典 敎育의 現況과 展望 / 鄭載喆(단국대 교수)
	뇌과학으로 본 한자의 특성 / 趙長熙(가천대 석학교수)
	한글漢字 자동변환기술 및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 玉哲榮(울산대 교수)
	東洋古典 語彙情報化의 방법 및 활용 방안 / 金炫(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2014년 학술발표회

구 분	내 용
주 제	東洋古典, 어제와 내일의 架橋
주 최	전통문화연구회
후 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국사편찬위원회
일 시	2014년 11월 25일(화)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논 문 발표자	《顏氏家訓》과 《抱朴子》 - 顏之推와 葛洪의 사상과 처세관 / 鄭在書(이화여대 교수)
	조선시대 《武經七書(直解)》의 간행과 활용의 양상 / 盧永九(국방대 교수)
	동양고전 정보화 방안 - 시맨틱 웹 시대의 ‘十三經注疏’ 데이터베이스 구현 전략 / 金炫(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한자문맹이 가져온 사회적 弊害 - 미디어를 중심으로 / 兪碩在(조선일보 기자)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기 활용 연구 / 玉哲榮(울산대 교수)

□ 2015년 학술발표회

구 분	내 용
주 제	내일을 위한 箴言, 東洋古典
주 최	전통문화연구회
후 원	한국고전번역원,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일 시	2015년 11월 18일(수)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논 문 발표자	論語學에서 《論語注疏》의 가치와 영향 - 朱熹의 《論語注疏》 수용과 재해석을 중심으로 / 鄭太鉉(한국고전번역원 명예한학교수)

논 문 발표자	《大學》과 《中庸》을 통하여 본 明善과 誠身의 삶 / 李光虎(前 연세대 교수)
	고전 자료의 통합과 연계 방안 연구 - 동양고전어휘DB를 중심으로 / 尹鍾雄(윤즈정보개발 소장), 安成守(전통문화연구회 연구원)
	漢字敎育과 21세기 言語文化 改善 運動 / 朴德裕(인하대 교수)

□ 2016년 학술발표회

구 분	내 용
주 제	東洋古典 翻譯의 未來를 위한 提言
주 최	전통문화연구회
후 원	한국고전번역원,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일 시	2016년 11월 24일(목)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논 문 발표자	“東洋古典譯註叢書事業”의 回顧와 展望 / 辛承云(성균관대 명예교수)
	朝鮮朝 漢文에 끼친 歐陽脩의 影響 / 李相夏(한국고전번역원 교수)
	東洋古典情報의 콘텐츠화 摸索 / 崔熙洙(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漢字와 漢字語의 保存을 위한 憲法的 辯論 / 李仁皓(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7년 학술발표회

구 분	내 용
주 제	東洋古典 現代化의 새 地平
주 최	전통문화연구회

후 원	한국고전번역원,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일 시	2017년 11월 15일(수)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논 문 발표자	唐太宗의 貞觀之治와 諫言 受容 / 李忠九(단국대 한중관계연구소 연구원)
	處世에서 義理로 - 王弼 《老子注》의 철학사적 위상과 의의 / 金是天(송실대 초빙교수)
	온톨로지 기반 사전 구축 방안 연구 / 尹鍾雄(윤즈정보개발 인문정보연구소 소장)
	미래형 한문교육 SW 개발의 방향과 방안 연구 / 許喆(단국대 한문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

□ 2018년 학술발표회

구 분	내 용
주 제	傳統文化研究會 30年の 回顧와 展望
주 최	전통문화연구회
후 원	한국고전번역원,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일 시	2018년 11월 21일(수)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논 문 발표자	漢文古典의 범위와 전통문화연구회 역주사업 / 沈慶昊(고려대 교수)
	漢文 文章의 효과적인 解釋 方法은 무엇인가 - '漢文讀解捷徑'을 중심으로 / 安載澈(단국대 명예교수)
	데이터 기반 漢文古典 研究를 위한 試論 / 金炫(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한자교육국민운동

한글은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며 국어의 가장 중요한 표기 수단이지만 한자 또한 우리 문화의 바탕을 이루는 중요한 표기 수단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용 한자조차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 등 국어교육에서 한자교육을 등한시하여 어휘력은 점차 떨어지고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수준도 낮아지고 있다. 국어 교육의 내실화와 어문정책의 정상화가 절실하다. 이에 본회에서는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함께 한자교육국민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 주요사업

- 어문정책 정상화를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 국어기본법의 국어 개념 정립과 違憲性 연구
- 한자어 교육용 자료 개발 및 보급
- 가정, 학교, 직장에 사이버서당 설치
- 사회 취약계층 한자한문 무상교육

□ 주요활동

- 한자교육 및 어문정책 정상화를 위한 건의서 및 질의서 제출 : 수시
- 국어기본법의 국어 개념 정립과 違憲性 연구 및 헌법소원
 - ‘국어기본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1회
- 교육용 한자 1,800자 대표 훈음 선정
- 어문정책 자료집 발간 : 총 13책
- 한자교육 강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
- 한자한문 무상교육 : 32,000명 42단체(저소득층 및 도서벽지학교)

東洋古典譯註事業 長期計劃

전통문화연구회는 2001년부터 동양고전역주사업에 착수하여 동양고전의 연구, 번역, 교육, 정보화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왔다.

2016년에는 東洋古典의 專門研究를 先導하고 東洋古典의 大衆化에 寄與하고자 ‘東洋古典翻譯研究所’를 설립하였다. 각계의 전문가들을 연구소의 편집위원으로 초빙하여 학술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동양고전역주사업 대상서목을 재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 취 지

- 韓國學과 東洋學 연구의 先決課題
- 한국고전의 번역과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한국학과 동양학 연구의 自生力과 效率性 提高
- 東北亞 政策 및 文化 등 각 분야 기본 자료

□ 書目 선정 원칙

- 동아시아 漢字文化圈 共通古典
- 전통시대 韓半島에서 編輯, 刊行, 使用된 圖書
- 학술적 가치가 높은 서목 우선 선정

□ 書目 선정 과정

- 《東洋學文獻類目》(京都大 人文科學研究所)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의 동양고전총서 조사
- 서목의 四部 분류, 빈도수에 따른 배열
- 조선시대 《列聖朝繼講冊子次第》 등에 기재된 侍講 교재, 雜科 과목 등을 조사하여 한국의 특수성 반영
-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우선순위 부여

□ 간행 실적 및 1차 간행 계획

- 간행 실적 (2001~2017) : 43종 109책
- 1차 간행 계획 (2018~2035) : 50종 500책

□ 기대효과

- 우수한 동양고전총서 간행으로 동양고전 번역의 선도적 역할 담당
- 전통적 방식의 懸吐와 현대적 번역의 조화 구현
- 한자문화권의 主要 고전과 韓國의 漢文古典籍 이해에 필요한 고전을 충실한 교감과 학술적 주석을 반영하여 번역
- 정보 기술을 접목하여 學界, 教育界, 大衆의 접근성 제고



十三經注疏 譯註 특별계획

‘十三經’에 해당하는 문헌은 단순히 특정분야의 기록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經史子集을 모두 아우르는 東洋思想의 源流이다. 따라서 ‘十三經注疏’의 충실한 번역은 한국학과 동양학을 비롯한 인문분야는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긍정적인 影響을 미칠 것이다. ‘十三經注疏’의 번역은 학술적 가치뿐 아니라 우리 學問 傳統을 복원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취 지

- 十三經注疏 역주를 통해 국학 및 동양학 연구의 토대 형성
- 十三經注疏의 古注 번역을 통해 宋代 新注 등 후대의 주석들과 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 구축
- 十三經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政治 教科書이자 必讀 教養書
- 우리 先賢들의 經學傳統을 복원함으로써 우리 학문의 발전 가능성 증대

□ 추진방향

- 한학자와 전공자의 협동 연구 번역으로 독법의 전통성과 번역의 현대성 구현
- 十三經注疏의 古注를 중심으로 宋代의 新注, 明清代의 註釋 등 비교 제시
- 우리 先賢들의 연구성과 반영으로 韓國學 研究의 自生力과 效率性 제고
- 韓·中·日 의 최신 연구성과를 반영하고 ‘校勘·校訂·校閱’을 충실히 수행하여 역주서의 신뢰도 제고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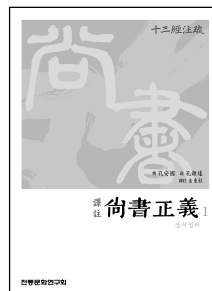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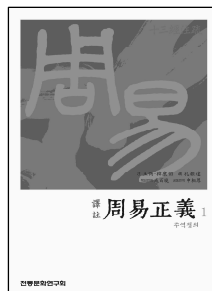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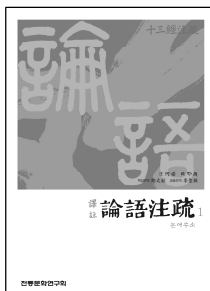
- 十三經注疏의 세계최초 번역을 통한 東洋學 연구의 선도
- ‘십삼경주소’ 역주의 정보화를 통한 국학 및 동양학 연구의 초석 마련
- 동양고전 이해의 저변 확대를 통해 사회적 관심 제고
- 우리 선현의 經學傳統을 복원함으로써 우리 학맥과 풍토를 이해, 진작
- 우리고전 연구 및 번역의 질적 水準 提高

□ 간행실적

書 名	譯註者	진 행	비 고
論語注疏	鄭太鉉 李聖敏	3/3 (2012~2015)	완간
周易正義	成百曉 申相厚	3/4 (2013~2017)	2019년 완간
尙書正義	金東柱	4/7 (2013~2017)	2020년 완간
禮記正義	李光虎 田炳秀	1/20 (2014)	
毛詩正義	朴小東	2/15 (2016~2017)	
孝經注疏	鄭太鉉 姜珉廷	1/1 (2017)	완간
孟子注疏	辛承云 외	1/5 (2017)	

진행예정 : 周禮注疏(0/15), 儀禮注疏(0/12), 春秋左傳正義(0/18),
春秋公羊傳注疏(0/7), 春秋穀梁傳注疏(0/4)

총 111책 계획 진행 중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간행계획

《資治通鑑》은 北宋의 司馬光이 편찬한 編年體 형식의 通史이다. 周나라 威烈王이 끝나
라 3卿을 제후로 公認한 B.C. 403년부터 五代 後周의 世宗 때인 959년까지 16朝 1,362년의
역사를 294권으로 완성하였다. 《資治通鑑綱目》은 《資治通鑑》의 방대한 분량을 요약하
고 正統論의 확립을 목적으로 朱熹가 편찬한 책이다. 編年體의 《資治通鑑》을 정통론의 입
장에서 綱目體로 재구성하였다.

世宗은 《資治通鑑綱目》의 주석 작업을 명하였는데, 이를 ‘思政殿訓義’라고 한다. 思政殿
은 세종이 머물던 景福宮의 便殿으로, 세종은 이곳에서 훈의의 작업을 지휘하였다. 따라서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은 中國史를 연구하기 위한 필독서인 동시에 조선시대 역사관
을 살펴보기 위해서도 반드시 검토해야 할 기본서라고 할 수 있다.

□ 간행실적

分 冊	譯 者	간행년도	시 대
1책	辛承云	2011	周
2책	辛承云 외	2013	秦
3책	成百曉 외	2014	漢
4책	成百曉 외	2015	漢
5책	成百曉 외	2015	漢
6책	成百曉 외	2016	漢
7책	成百曉 외	2016	漢
8책	成百曉 외	2017	漢
9책	成百曉 외	2017	漢
10책	成百曉 외	2017	漢

현재 蜀漢 시대 및 南北朝 시대 진행 중

- 총 39책 계획

東洋古典解題集 사업

수천 년 동안 저술된 동양고전은 그 방대함 때문에 시기별·분야별로 유의미한 書目을 판단하기 쉽지 않으며, 책마다 연구 수준에 차이가 있어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자 하여도 기초적인 자료를 얻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본회에서는 동양고전의 중요 서적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전문 서적 및 자료를 참고하여 서목을 확정하였으며, 해당 분야의 연구자에게 해제 작성을 위촉하였다. 현재 작성된 해제는 본회 동양고전종합DB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해제 작성이 완료된 이후에 자료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 취 지

- 동양고전에 대한 관심을 提高할 수 있는 지침서 간행
- 한국학·동양학의 저변 확대 및 수준 향상
- 연구자와 일반인 모두 概觀할 수 있는 해제집 편찬
- 서적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정리하여 관련 연구에 실질적 도움 제공
- 관련 분야의 연구 성과가 있는 전문 연구자를 위촉하여 신뢰도 확보

□ 구성 및 진행상황

- 구 성 : 개요, 저자 관련 사항, 서지사항, 내용, 가치와 영향, 참고사항 등
- 진행상황 : 전체 500종 중 317종 완료, 183종 예정

東洋古典教育事業 계획

우리나라에서 한자·한문 교육은 외국어를 하나 더 알기 위한 학습이 아니라, 우리말을 더욱 완벽하게 구사하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의무교육이며 국민의 기본권이다. 사용할 수 있는 어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認識과 思考의 범위도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자·한문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死活을 걸고 추진해야 할 국가의 大計이다. 본회는 미래 先進文化韓國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문 운동과 교육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 古典研修院 - 동양고전 교육

취 지

- 한국학·동양학도의 한문고전 讀解力 향상 및 文理 터득
- 인문학·한문학과 한문교양의 연수기회 제공
- 일반인들에 東洋古典와 傳統文化에 대한 지식 충족기회 제공

방 향

- 교양과정은 전통적 蒙學교재로 文字學과 기초한문을 학습
- 중급과정은 四書 중심, 文史哲 기본서 연수로 문리터득 연수
- 고급과정은 五經과 諸子 중심, 文史哲 漢籍의 독해능력 배양

※ 중장기 계획 : 15년 3만명 목표

	1차					2차	3차	계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2028	2029~2033	
인원(명)	2천	2천	2천	2천	2천	1만	1만	3만

□ 사이버書堂 - 한자문화 국민서당

취 지

- 漢字・漢字語 교육으로 학생들의 學習能力 伸張
- 청소년과 일반인들의 國語能力 向上
- 문화한국인의 상식・교양기반 구축
- 동양기본고전 교육으로 人性教育, 文化讀解力 확충

방 향

- 全국민과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상 한자 및 기초한문 맞춤형 교육
- 동영상, 음성, 문서 등 다양한 유형의 교육용 Contents 제공
- 가정・학교・직장에 Mobile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 廉價의 회비 책정으로 한자 학습의 대중성 확보

※ 중장기 계획 : 15년 1,300만명 목표

	1차					2차	3차	계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2028	2029~2033	
인원(명)	20만	40만	60만	80만	100만	500만	500만	1300만

□ 사이버書院 - 동양고전 원격교육

취 지

- 동양고전 연수를 통한 한국학・동양학 研究基盤 구축
- 國譯 研修를 통한 동양고전국역사업 人力基盤 확보
- 고전적 정보화 서비스(동양고전종합DB 및 어휘 검색) 활용
- 동양고전 원격 교육을 통한 전국(지방)의 한국학 自生力 제고

방 향

- 개인회원 단체회원 등 다양한 회원제를 활용, 개인ID 및 단체ID 제공
- 단체 ID는 초중고교, 대학, 공공기관 등 네트워크 버전 보급
- 고전의 지속적 발굴과 우수 강사 초빙으로 우수 강의 콘텐츠 제작 및 보급
- 한국학·동양학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교육인원 확대

※ 중장기 계획 : 15년 130만명 목표

	1차					2차	3차	계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2028	2029~2033	
인원(명)	2만	4만	6만	8만	10만	50만	50만	130만



사이버서당



사이버서원



모바일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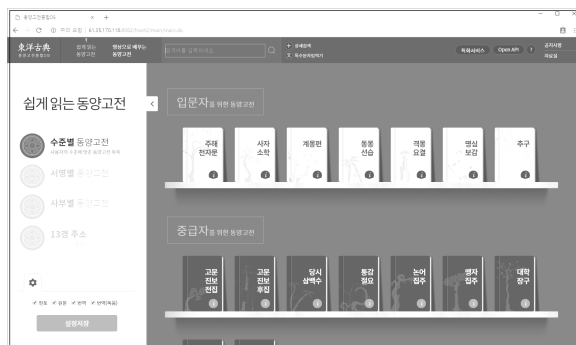
東洋古典情報化事業 계획

□ 동양고전종합DB

동양고전종합DB사업은 동양고전 원문 및 번역물에 대한 디지털화 및 체계적인 정보화 방법을 연구하여 知識情報의 效率인 共有・流通을 목적으로 한다.

동양고전종합DB 웹사이트는 원문 및 번역문 열람, 검색, 강의보기 등 일반 이용자 및 전문가의 필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부터 지속하여 온 DB 사업으로 2018년 완료 기준 97책의 DB를 구축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DB구축과 사이트 보수를 통해 동양고전 대중화 및 번역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추진단계	역주서DB 구축량	서비스 구축	미디어 콘텐츠
1단계(5년) 2010~2014년	年10책/50책	DB검색, 원문열람 모바일 서비스	180시간/년
2단계(6년) 2015~2020년	年20책/120책	국내 고전문헌 연계 DB구축 DB검색, 원문열람	180시간/년
3단계(10년) 2021~2030년	年20책/200책	동아시아 동양고전 지식정보연계, DB검색, 원문열람	180시간/년
합 계	370책	동아시아 동양고전지식망	3780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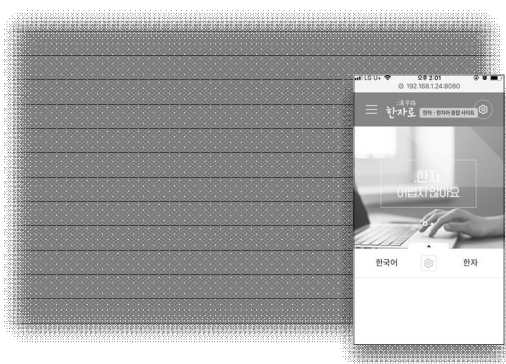
동양고전종합DB 웹사이트/모바일 개편 (2019년 예정)

□ 동양고전어휘정보화

동양고전어휘정보화 사업은 한글전용으로 잃어버린 한자문화권의 문화적 리더십을 회복하고자 시작되었다. 고전 번역의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여 고전 번역 수준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전 및 공구서의 허브 사이트를 구축해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도부터는 ‘고전정보 국제화’를 준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높아진 한문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해외 대표적 한문 고전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채널을 운영하여 본회의 동양고전교육 및 정보화 사업성과를 세계적으로 확산할 것이다.

추진단계	DB 구축량	서비스 구축 / 고도화
1단계(5년) 2013~2017년	동양고전 150만 어휘, 현대·고전말뭉치 1억 어절	한글한자자동변환서비스 동양고전어휘검색서비스
2단계(10년) 2018~2027년	역사문화 200만 어휘, 현대·고전말뭉치 2억 어절, 연계정보구축	동아시아(韓中日) 동양고전어휘 정보망 구축, 지능형번역지원시스템
3단계(8년) 2028~2035년	동양고전 언어별(영어 등) 200만 어휘, 연계정보구축	국제(유럽,미국) 동양고전어휘 정보망 구축
합 계	550만 어휘, 3억 어절	동양고전지식정보망 지능형 번역지원시스템



한자로 웹사이트 확장 개편(모바일 반응형) 예정



동양고전 번역용례 예시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 논문

연구
발표
01

漢文古典의 범위와 전통문화연구회 역주사업

沈慶昊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한국의 고전 연구 역사와 한문고전 재인식의 필요성
 3. 동아시아 및 세계의 한문고전 역주 현황
 4. 전통문화연구회 국역사업의 역주 대상 선정과 역주 원칙
 5. 전통문화연구회의 향후 역주 사업에 대한 제안
 6. 맺는 말
-

1. 들어가는 말

서적으로서의 고전은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고전의 세계는 끊임없이 자신을 확장한다. 고전은 단일한 전통을 주장하지 않고 늘 새로운 주제와 가치를 발현하기 때문이다. 고전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범주가 확장되며, 종래 고전의 지위를 인정받았던 텍스트도 끊임없이 재해석이 요구된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간 주체가 고전 속에서 지적 고유성과 보편적 가치관을 재발견함으로써 고전은 ‘사회적 소외’를 뿌리친다.

한국은 서구 문명이 전통 규범을 뒤흔들 때 고전의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했다. 특히 일제의 식민지 교육은 고전에 대한 자율적 성찰을 방해했다. 민족주의 및 진보주의 진영이 고전 가운데서도 한국인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자료를 정리하고자 부신했으나, 그 결과는 미미한 편이었다. 1960~7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비판적 지성들이 한국 고전 속에서 내재적 발전의 힘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들을 역주하면서 독자적인 고전학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 고전이 한자문화권의 다른 여러 지역들과 공통 기반으로 삼아 왔던 동양 고전 일반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새로 확인하지 못했다. 게다가 역주의 범례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못했다. 곧 종래의 고전 역주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유학·불교·도가의 경전이나 몇몇 역사서는 여러 종류의 번역이 이루어졌으나 동양고전의 범위를 전체적으로 조망한 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파편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고전의 번역에 현대의 세계적 연구성과들이 반영되지 않아, 字句의 逐字譯이나 望文生義의 誤譯이 적지 않았다.

셋째, 일반인의 교양 함양을 표방하여 번역자가 발췌 번역을 하거나, 심지어는 본래 문맥과 무관하게 의역하기도 했다.

전통문화연구회는 이 낙후한 상황을 타개하려고, 2001년 정부의 ‘古典文獻 國譯支援事業’ 가운데 ‘東洋古典譯註事業’의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해오고 있다. 전통문화연구회는 한문 고전의 범위를 재확인했으며, 전문번역 연구자들의 역주 작업을 지원함으로써, 2001년부터 현재까지 43종 111책의 고전전문 역주본을 출간했다. 이 사업은 2035년까지 50종 500책 계획으로 1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200종 1,500책을 간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 한국의 고전 연구 역사와 한문고전 재인식의 필요성

한국의 역사에서 한문고전의 범위를 설정하고 역주에 힘을 쏟은 것은 조선 세종 때부터이다. 이후 정조는 한문고전의 범위를 재설정하고 각종 서적을 편집했다.

15세기의 세종은 고전 연구와 출판에 국가 경영에 긴밀하게 연계시켰다. 등극한 후 훈의본 『자치통감』과 『자치통감강목』을 편찬하여 간행하게 하고, 명나라 영락제 칙명찬의 사서 오경대전과 『성리대전』을 지방 관아에 분담시켜 刊刻하게 한 것은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동시에 한자음을 바로잡고자 韻書를 편찬하게 했다. 즉 1444년 집현전에 ‘운회’를 번역하게 했는데, 이 일은 『東國正韻』의 편찬으로 이어져, 1448년 6권으로 간행되었다.¹⁾

표1. 세종 연간 출판의 한문고전

연 도	서 명	판종, 편찬
1421년 (세종 3) 3월	『자치통감강목』 인쇄령	
1422년 10월	『選詩演義』 간행	庚子字
1423년 8월	『자치통감강목』 인쇄본 하사	
1424년 (세종 6)	『四書大全』 경자자 간행	경자자
1425년	『老子莊子齋口義』 간행	경자자
1427년 7월	『성리대전』	경상감사 崔府 복각
1429년	『諸儒標題註疏小學集成』 간행령	許誠에게 명하여 복각
1429년	『사서오경대전』	지방에서 분담 복각
1434년 (세종 16) 6월	『資治通鑑訓義』 편찬 지시	尹淮 등 담당
1434년 7월 신묘	『자치통감강목』 갑인자본 간행령	
1434년 7월	『選詩演義』 인쇄	경자자
1435년 9월	『分類補註李太白集』 간행	1436년 1월 29일 내사본 현존
1436년 (세종 18) 2월	『資治通鑑思政殿訓義』	甲寅字로 간행
1436년 7월	『자치통감강목훈의』 편찬령	李季甸, 金汶 등

1) 심경호, 「조선전기의 註解本 간행과 문헌 가공에 대하여」, 『大東漢文學』 제20집, 대동한문학회, 2004, 167~248쪽; 심경호, 『한국한문기초학사』, 태학사, 2012; 심경호, 『안평』, 알마, 2018.

1436년	『諸儒標題註疏小學集成』	金汶 校讎. 갑인자 간행
1438년 11월	『자치통감강목사정전훈의』 간행	진양(수양)대군 대자 글씨의 丙辰字로 綱을 인쇄, 중소자의 갑인자로 목을 인쇄.
1438년	『朱文公校昌黎先生集』 간행	崔萬理·金鑣·李永瑞·趙須 등 편찬. 갑인자 간행.
1439년 6월	『治平要覽』 편찬 시작	鄭麟趾에게 『自警編』에 필적할 책을 편집하게 함. 진양대군 총재.
1442년(세종 24) 3월 1일	『龍飛御天歌』 편찬령	權踰·鄭麟趾·安止 등 전담. 용비시는 안평대군이 성삼문과 任元濬을 데리고 제작.
1442년 6월	『選詩補註』 간행	갑인자
1443년 4월	『纂註分類杜詩』 편찬령	안평대군 총괄. 辛碩祖·姜碩德 등 집현전 관원 6인이 담당. 세종 말 갑인자로 초간되었을 것으로 추정.
1443년 12월	훈민정음 창제	집현전학사들에게 制字 원리와 사용법을 연구하게 함
1444년 2월 16일	『韻會』 번역령	집현전학사들에게 『韻會』를 번역하게 함. 동궁과 진양대군 및 안평대군이 관장. 『동국정운』 편찬으로 이어짐.
1445년 정월 이전	『眞西山讀書記乙集上大學衍義』	갑인자본. 일본 교토대 부속도서관 권23-43는 평원대군 勤行之堂 朱印. 교토대 인문과학연구소에도 勤行之堂 주인 갑인자본 1책.
1445년 4월 5일	『용비어천가』 원고 올림.	權踰·鄭麟趾·安止 進箋. 용비시는 안평대군이 성삼문과 任元濬을 데리고 제작.
1445년(세종 27) 10월 27일	『醫方類聚』 갑수령	안평대군 총재
1446년(세종 28) 음력 9월 상순	훈민정음 반포	『해례본 훈민정음』 완성. 세종 28년 1446 9월 29일 갑오의 『실록』 기사에 나옴.
1447년 2월	『용비어천가』 10권 5책으로 성책	용비시를 지을 때 안평대군은 성삼문과 任元濬을 데리고 참여. 이 해 10월 출간.
1448년	『東國正韻』 간행	원고는 1447년 탈고
1448년 경	『洪武正韻譯訓』 시작(1455년 완성)	신숙주·성삼문·曹燮安·金滉·孫壽山 등이 注音. 수양대군과 桂陽君이 출납 監掌. 세종이 편찬에 간여.
1448년(세종 30)	『고려사전문』 완성	權踰 등. 개정된 기전체 『고려사』가 문종 원년(1451년) 8월 완성됨.
세종조 추정	『新刊大字附音釋文三註』 천자문 주석	갑인자. 일본 게이오(慶應)대학 斯道문고에 완결.

조선 초에는 중국 고전을 지방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것도 많다. 지방의 간행물 가운데는 중앙 조정의 기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²⁾

2) 沈慶昊, 「韓国における近世以前の出版文化と中国書籍の刊行方法」, 沈慶昊 外 12人, 『圖書寮漢籍叢考』, 汲古書院, 2018.

고려 말, 원나라 林楨 편 『善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寶』를 田祿生이 刪增한 無註本을 경상도 合浦에서 목판 간행했다.

고려 말~조선 초, 『夾注名賢十抄詩』를 경상도 밀양에서 간행했다.

1393년(조선 태조 2) 경상도 甫州[醴泉郡]에서 杜仁傑(金) 편 『歐蘇手簡』이 목판 간행했다. 이후 1450년 청주에서 증보본을 간행했다.

1416년(태종 16) 『樊川文集夾註』를 忠淸道 公州에서 목판으로 간행했다.

1419년(세종 원년) 魏仲舉의 『五百家註音辯昌黎集』 外集을 경상도 淸州에서 목판으로 간행했다.

1420년(세종 2) 姜淮伯이 忠淸道 沃川에서 林楨의 『善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寶』를 목판으로 간행했다.

1431년(세종 13) 『杜工部草堂詩箋』과 『黃氏集千家註杜工部詩史補遺』을 경상도 밀양에서 목판으로 간행했다.

1431년(세종 13) 『杜詩范德機批選』을 황해도 해주에서 목판 간행했다. 전하지 않는다.

1431년(세종 13) 『春秋經左氏傳句解』를 경상도 淸道에서 목판 간행했다.

1436년(세종 18)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을 충청도 청주에서 목판 간행했다.

1439년(세종 21) 『詩人玉屑』을 충청도 청주에서 복각했다.

1452년(단종 즉위년) 8월 명나라 劉澈 편 『詳說古文眞寶大全』을 경오자로 간행했다.

1471년(성종 2) 『虞註杜律』을 충청도 청주에서 복각했다.

1472년(성종 3) 경상도 진주에서 『詳說古文眞寶大全』를 整版했다.

1473년(성종 4) 方回 편 『瀛奎律髓』를 전라도 진주에서 목판 간행했다.

1474년(성종 5) 『陸宣公奏議』 無注本 22卷을 朝鮮 李益之·鄭敷文의 교정을 거쳐 경상도 지방관 金永濡·李世佐의 주재로 간행했다.

1549년(명종 4) 謝枋得의 『古文軌範』(文章軌範)을 杆城에서 판각했다.

1560년(명종 15) 夏宏仲 편 『聯錦詩集』을 목판 인쇄했다.

1561년(명종 16) 賀欽의 『醫間先生集』을 목판 인쇄했다.

1566년(명종 21) 葉公回(明) 편 『太師徽國文公年譜』를 경상도 密陽에서 목판 간행했다.

조선에서는 宋學을 존숭하여, 관련 서적을 수입하고 새로 편찬하여 간행한 것이 많다. 金仁山(金履祥)의 『濂洛風雅批註』와 청주 개간본 『文公朱先生感興詩』는 대표적인 예이다. 黃瑞節(宋) 附錄(編)의 『朱子成書』 2권 2책도 중종, 명종 연간에 을해자로 간행되어, 일본 內閣文庫에 을해자본이 소장되어 있다. 조선에서는 특히 『주자대전』과 『주자어류』를 교감하여 정본을 만들고, 주자의 저술을 일부 발췌하여 간행하는 일이 많았는데, 18세기에 정조는 주

자의 저술을 망라하여 주자전서를 엮으려고 기획했다. 정조가 체제를 정하여 엮은 『朱子選統』의 유목은 강희제의 『御纂朱子全書』의 유목과 거의 일치한다. 『어찬주자전서』는 강희 45년(1706) 熊賜履·李光地 등 理學의 학자들이 칙명을 받아 1706~1713년 8년에 걸쳐 만든 총 66권의 주자 선본이다. 정조는 『주자선통』을 엮을 때 강희제 편찬 『어찬주자전서』의 유목을 그대로 빌려왔다. 『어찬주자전서』는 정조가 주자의 일통서를 편찬하려는 때에 일정한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데 정조는 「十三經策」의 책문을 게시할 만큼 經學에서 十三經을 중시했으며, 經史講義를 통해 經部와 史部의 새로운 연구를 추진했다.³⁾

한편, 조선의 유학자 지식인들은 제자백가 가운데 『노자』와 『장자』 등을 꾸준히 읽었다. 특히 남송 瑞平 연간(1234~1236)의 진사 林希逸이 선종의 관점에서 口義의 형식으로 해석한 『老子』·『莊子』·『列子』의 『三子齋口義』를 선호했다. 口義는 당나라 明經科 試士의 口試에서 구두로 經義를 答述하게 한 것에서 기원한다. 1425년(세종 7)에 이미 『장자구의』를 『노자구의』와 함께 경자자로 간행한 일이 있다. 1492년(성종 5) 徐居正이 작성한 「新刊老列二書跋」에 의하면 그 무렵 강원감사 李封이 원주에서 『노자구의』와 『열자구의』를 목판 간행한 듯하다. 같은 해 경상감사 金永濡는 『장자구의』를 각 읍에 나누어 판각하게 한 뒤 판목을 경주에 모았다.

조선에서는 劉績補(明) 註, 王溥較 刊 『淮南鴻烈解』 28권 7책을 목활자로 간행했다. 일본 內閣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1573년(선조 6)에는 補鑄 을해자에 종래의 활자를 혼용한 銅活字로 劉寅直(明) 解 『七書直解』(六韜直解, 唐太宗李衛公問對直解, 三略直解, 司馬法集解, 吳子直解, 尉繚子直解, 十一家注孫子 등 7종)를 한꺼번에 인쇄했다. 일본 宮內廳 書陵部に 1577년(선조 10) 內賜의 을해자본이 있다.

조선 중기부터 지식인들은 諸子百家에 큰 관심을 두었다.⁴⁾ 1692년에는 沈津(明) 編 『百家類纂』 40권이 경상도에서 覆刊되었다. 陳深의 『諸子品節』도 널리 읽혔다.

이미 許筠(1569~1618)은 『惺所覆瓿稿』에 제자백가의 독후기를 남겼다.⁵⁾ 그는 老子, 列子, 莊子, 管子, 晏子, 商子, 韓非子, 墨子, 荀子, 揚子, 子華子, 孫子, 吳子, 呂子, 淮南子, 文仲

3) 심경호, 「정조의 경학 연구 방법에 관한 규건」, 『태동고전연구』 제21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5, 27~84쪽.

4) 심경호, 「조선 후기 지성사와 제자백가-특히 『管子』와 『老子』의 독법과 관련하여-」, 『한국실학연구』 제 13호, 한국실학학회, 2007, 365~405쪽.

5) 『惺所覆瓿稿』 卷13 文部10 讀 序. “余在扶寧無事, 適得諸子全書, 慣讀之, 因疏所得, 題于各子之後. 非敢自是鄙見也, 聊以形吾穢耳.”

子 등의 독후시를 남겼다. 숙종 때 남인 문인 許穆도 제자백가에 대해 평어를 남겼다.⁶⁾ 남인 계열에 속하되 정계에서 벗어나 있던 李玄錫(1647~1705)은 대장부의 일을 以精思實踐爲學과 以經濟世務爲業의 둘로 보고, 제자백가의 통람을 중시했다.⁷⁾ 즉, 義理家·經綸家·文章家·時務家·兵家·游藝家 등 ‘游齋六家’를 새로 규정하고 주요 서적을 열거했다. 경륜가를 시무가와 구별하고, 『管子』를 경륜가의 필독서로 들었으며, 諸葛孔明·陸贄·邵翁·胡安國을 중시했다. 노론의 金春澤(1670~1717)도 沈津의 『百家類纂』을 기초로 ‘諸子通選’을 편집한 뒤 서문을 남겼다.⁸⁾ 정조는 주자학을 숭상하고 이단을 배격한다고 했으나, 『千古百選』을 編定했다. 단편적인 글이지만 老子·莊子·管子·列子·荀子·孫武子·佛經의 제자백가를 초록하였다.⁹⁾

3. 동아시아 및 세계의 한문고전 역주 현황

한문고전은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에서 널리 활용되어, 현재의 일본과 중국, 대만에서는

6) 『記言』 卷1 上篇 學「談評」(原註：金山寺閱諸子，作談評九百餘言)．‘強圉協治中秋節前七日，台嶺老人眉叟，著.’라고 서명했다.

7) 『游齋先生集』 卷22 雜著 下「讀書雜錄」．“大丈夫不可苟生於天地間，則其功業要當與天地參，必也先立其志，知所用力，以精思實踐爲學，以經濟世務爲業．唯此二件事外，更無所用其心．飢飽寒暑，不足以撓此志．榮辱得喪，不足以移此心．然後庶追古人之功業而方可免枉出世一遭也．本之以四書五經，沈浸乎義理之府，參之以諸史百家，泛濫乎治亂之源，于以治心而養氣，于以博古而通今，涵以爲德器，聚而爲才具，則庶幾學可以致用，才可以應務．又何暇雕琢敲推，勤一世以盡心於虫篆之小技也爲哉？又如掇拾訓詁間言語，自以爲論性理，而略無干涉於身心，涉獵章奏上文字，自以爲談世務，而實昧措置之方略，則雖日誦千言，曷謂之學也？居敬窮理，存養得力，然後優遊乎六家，立的於四子，以進吾學而成吾才，是爲士者之所當勉也．”

8) 『北軒居士集』 卷17 鷺山錄 文 ○序「諸子通選序」．“(前略)會謫居臨陂，顧陋鄉無書籍，間從吾友蘇堤宋伯純氏，借所謂百家類纂者讀之，書卽明人沈津氏所編也．其類凡八，曰儒曰道曰法曰名曰墨曰縱橫曰雜曰兵，而編凡四十，卽所謂古今之辭多者也．沈之所爲，類蓋倣古藝文經籍等例，非專用己私也，而以余觀之，其所謂儒者，姑置荀·揚諸人，卽如廣川·汾亭，頗爲洛閩所稱，而卽亦所謂不能純且全者也．余以謂其儒者，既所宜擇，而他亦或難盡廢，是又所謂求珠玉於瑕類者也．今於其儒者，得晏子春秋·新語·荀子·新書·春秋繁露·韓詩外傳·新序·說苑·鹽鐵論·法言·潛夫論·昌言·申鑑·中論·文中子．於法者得管子，於雜者得呂覽·淮南子·白虎通，於兵者得三略，而其他或雖近理，既以不類，故不取．其與理遠者，則擇無所施，而於所擇十九家之中，又各采其英而拔其秀，其略僅四卷而止．(後略)歲庚寅仲冬，靈鷲山人，書于汲古齋．”

9) 蔡濟恭, 『樊巖先生集』 卷29 獻議「御定千古百選議」．“奉聖諭：近日始得閒歇，點檢筆研問事，適有意到於選文，名之曰千古百選．取經文諸子文章家並異端諸書，以寓皆我師之微意．每經每人，約定二三策，以準百選之數爲計，而人見有萬不同，欲聞衆見之沕合與否，依下方假領，明再明問，以意見書入爲可．易書禮春秋戰國策論語孟子中庸大學孝經老子莊子管子列子荀子孫武子佛經參同契韓嬰陸賈賈誼司馬遷董仲舒劉向班彪班固諸葛亮杜預韓愈柳宗元陸贄李翱歐陽脩蘇洵蘇軾蘇轍王安石曾鞏濂溪康節橫渠明道伊川朱子，此外如有當入而遺者，添入亦可．”

새로운 정리와 역주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근세기 이후, 한문고전의 역주본들을 각 출판사별로 지속적으로 출판해 왔다. 특히 注疏, 新注, 新解를 종합한 형태의 1차 가공서와 새로운 연구 성과까지 참조한 번역서가 여럿 나와 있다.¹⁰⁾

일본은 근세기 이후 독자적인 유서 편찬, 불서의 정리, 총목록의 작성, 고전 전집의 간행 등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왔다.¹¹⁾ 그 가운데 한문고전의 정리와 역주는 민간 출판사가 주도하고 있다.

표2. 日本의 한문고전 관련 총서

	출판사(25곳)	총서(43종)
1	角川書店	鑑賞中国の古典(1987~1989)
2	講談社	講談社文庫(1973~2000)
		講談社學術文庫(1980~2014)
		中國の古典(1989~1991)
3	國民文庫刊行會	國譯漢文大成(1921~1924)
		續國譯漢文大成(1928~1932)
4	汲古書院	古典研究會叢書(1988~2012)
		漢文講讀課本(1978~1991)
5	農林省農業總合研究所	翻譯叢書(1957~1961)
6	徳間書店	中國の思想(1973)
7	東洋文庫	東洋文庫論叢(1960~2015)
8	東洋文化協會	全譯中國文學大系(1958~1959)
9	東海大學出版會	東海大學古典叢書(1973~2002)
10	明德出版社	中國古典新書(1967~1984)
		中國古典新書續編(1985~2006)
11	明治書院	新釋漢文大系(1961~현재)
		中國の名詩鑑賞(1976~1978)
12	博文館	漢文叢書(1913~1914)
13	富山房	漢文大系(1909~1916)
14	岩波書店	新修中國詩人選集(1983~1984)
		岩波文庫(1928~2008)
		中國詩人選集 1집, 2집(1958~1963)

10) 심경호, 「일본과 중국에서의 한문원전정리와 한문고전의 현대역」, 『민족문화』 30, 한국고전번역원, 2007.

11) 石上英一, 「日本における古典籍の整理事業の現況と展望」, 『민족문화』 28, 민족문화추진회, 2005.

15	有朋堂	有朋堂文庫-漢文叢書(1919~1923)
16	日本評論社	東洋思想叢書(1942~1943)
17	早稻田大出版部	漢籍國字解全書(1909~1917)
18	朝日新聞社	中國古典選(1978~1979) 中國文明選(1971~1976)
19	集英社	世界文學全集(1969~1971) 全釋漢文大系(1973~1980) 中國の詩人(1983) 中國詩人選(1966) 漢詩大系(1964~1968)
20	筑摩書房	世界古典文學全集(1965~2005) 世界文學大系(1961~1968) 中國詩文選(1973~1984) 筑摩叢書(1963~1992)
21	平凡社	東洋文庫(1963~2005) 中国の古典シリーズ(1972~1973) 中國古典文學大系(1968~1975)
22	學習研究社	中國の古典(1981~1986)
23	弘文堂	アテネ新書(1957)
24	さ・え・ら書房	中国の古典文學(1976~1977)
25	東海大學出版部	鍾嶸詩品(1冊), 古樂府(1冊), 訓讀說文解字注(8冊), 史通內篇(1冊), 史通外篇(1冊).儀禮(5冊) 등 東海大学古典叢書(1978-현재)

중국은 乾嘉學派 이래 古籍整理 방면의 경험이 풍부하다. 乾嘉學者는 校勘의 방법을 운용하여 秦漢 이래의 子書들을 모두 校訂하거나 字句를 심리했으며 章節을 조정했다. 그 뒤 中華人民共和國 정부는 고적 정리 사업에 힘을 기울였다.¹²⁾ 1958년 國務院古籍整理出版規劃小組(‘古籍小組’으로 약칭)는 전국적 규모의 고적정리 계획과 출판을 지도했다. 文化大革命 이후 1981년 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 37호 문건『關於整理我國古籍的指示』에 따라 古籍小組가 다시 회복되고 1992년에 이르러 古籍小組는 다시 조정되었다.¹³⁾ 1962년, 1982년, 1992년에 각각 전국 규모의 古籍整理出版規劃會議가 개최되었다. 현재 각 출판사에서 주요한 한문고전의 교감본이나 역주본을 간행해오고 있다.

12) 이하는 刘石(北京清華大學人文學院中文系教授), 「中國古籍整理事業的狀況與展望」, 『민족문화』 28(민족문화추진회, 2005)을 근거로 필자가 재정리했다.

13) 1999년 ‘國務院古籍整理出版規劃小組’는 명칭을 ‘全國古籍整理出版規劃領導小組’로 바꾸었다(약칭은 여전히 ‘古籍小組’). 그리고 2001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全國古籍出版社編輯培訓班을 개설하고 있다.

표3. 臺灣과 中國의 東洋古典叢書 조사 대상 목록

	출판사(38곳)	총서(50개)
1	國立編譯館(臺灣)	단행본(1954~1955)
2	臺灣商務印書館(臺灣)	道典詮釋書系(2006~2007)
		中華古籍今注今譯叢書(1966~2012)
3	臺灣學生書局(臺灣)	古籍今註今譯(2012)
4	文津出版社(臺灣)	文學津梁叢書(1974)
5	三民書局(臺灣)	古籍今注新譯叢書(1972~2016)
6	世界書局(臺灣)	大學用書(1961)
7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臺灣)	現代國民基本知識叢書(1952~1958)
8	江西人民出版社	단행본(1982~1996)
		蒙學叢書(1996)
9	建文書局	단행본(1964~1966)
10	廣西人民出版社	中國古典文學理論名著(1982~1990)
11	廣州出版社	中國古典名著注譯叢書(2001~2008)
12	貴州人民出版社	中國古典文學名著選譯(1992)
		中國歷代名著全譯叢書(1999)
		中華道教典籍全譯叢書(1984~1995)
13	吉林文史出版社	中國古代名著今譯叢書(1986~1998)
		中國古典文學名著今譯叢書(1991)
14	寶文堂書店	中國古典文學普及叢書(1982~1990)
15	四川人民出版社	단행본(1982~1985)
16	山東大學出版社	中國古典文學今譯叢書(1986~1991)
17	三秦出版社	國學大書院
		傳統文化經傳讀本
18	上海古籍出版社	新世紀古代歷史經典讀本(2003~2005)
		新世紀古代哲學經典讀本(2004~2006)
		新世紀古典文學經典讀本(2002~2004)
		十大文言短篇小說今譯叢書(1955~1995)
		十三經譯註(2004)
		中華古籍譯註叢書(1984~2000)

19	上海科學技術出版社	南京中醫學院傷寒教研組編(1959~1986)
20	上海人民出版社	단행본(1974~1977)
21	書目文獻出版社	古籍選讀叢書(1985~1986)
22	陝西人民出版社	단행본(1980~2010)
		中國六大史學名著叢書(1990~2008)
23	岳麓書社	古典名著今譯讀本(1987~1997)
		古典名著普及文庫(1985~1998)
		古典名著標準讀本(2004~2008)
		唐宋八大家古文選讀(1984)
24	安徽教育出版社	단행본(1984)
25	人民文學出版社	中國古典文學今譯叢書
		中國古典文學讀本叢書(1987~1989)
26	濟南齊魯書社	中國古典名著普及叢書(1993~2004)
27	重慶大學出版社	단행본(1994)
28	中國社會科學出版社	道學經典注譯(1996~2004)
29	中州古籍出版社	國學經典叢書(1984~2000)
30	中華書局	古典文學普及讀物(1959~1962)
		中國古典名著譯注叢書(1960~2010)
31	天津古籍出版社	今譯 단행본
32	春明出版社	中國文學名著叢選(1955~1956)
33	巴蜀書社	古代文史名著選譯叢書(1988~1991)
		國學大書院(2007)
		傳統文化經傳讀本(1990~1998)
		中國古代哲學名著今譯叢書(1990)
		中国古代哲學名著全譯叢書(1999~2002)
		中國古典文學賞析叢書(1988~1994)
		中華文化要籍導讀叢書(1987~1999)
34	河北人民出版社	단행본(1992~2004)
35	漢語大詞典出版社	二十四史全譯(2004)
36	解放軍出版社	中國古代兵法譯叢(1986~1992)
37	湖南大學出版社	단행본(1989)
		大中華文庫(1999~2008)
38	湖北人民出版社	단행본(1983~2012)

국내에서 동양고전의 번역서를 출간하는 기관은 여러 곳 있지만, 그중에서 전문 학술서로 활용 가능한 역주서를 지속적으로 간행하는 곳은 많지 않다. 현재 국내의 한문고전 중에 한국고전은 한국고전번역원이, 동양고전은 전통문화연구회가 주로 담당하여 번역하고 있다. 전통문화연구회의 역주서는 특히 懸吐 전통을 계승하여 전통시대 선조들의 한문 이해 방식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전통문화연구회가 2001년부터 정부의 ‘古典文獻 國譯支援事業’으로 진행하고 있는 ‘東洋古典譯註事業’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표4. 전통문화연구회 東洋古典譯註叢書 주요 간행 실적

- 十三經注疏 : 7종 15책
 論語注疏 | 周易正義 | 尚書精義 | 禮記正義(中庸·大學)
 毛詩正義 | 孝經注疏 | 孟子注疏
- 唐宋八大家文抄 : 8종 21책
 韓愈 | 柳宗元 | 歐陽脩 | 蘇洵 | 蘇軾 | 蘇轍 | 曾鞏 | 王安石
-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 1종 10책
- 武經七書直解 : 7종 4책
 孫武子直解·吳子直解 | 六韜直解·三略直解
 尉繚子直解·李衛公問對直解 | 司馬法直解
- 其他 : 20종 61책
 古文眞寶 後集 | 國語 | 近思錄集解 | 老子道德經注 | 唐詩三百首
 大學衍義 | 東萊博議 | 墨子閒詁 | 說苑 | 荀子集解 | 心經附註
 顏氏家訓 | 揚子法言 | 禮記集說大全 | 莊子 | 戰國策
 貞觀政要集論 | 春秋左氏傳 | 通鑑節要 | 韓非子集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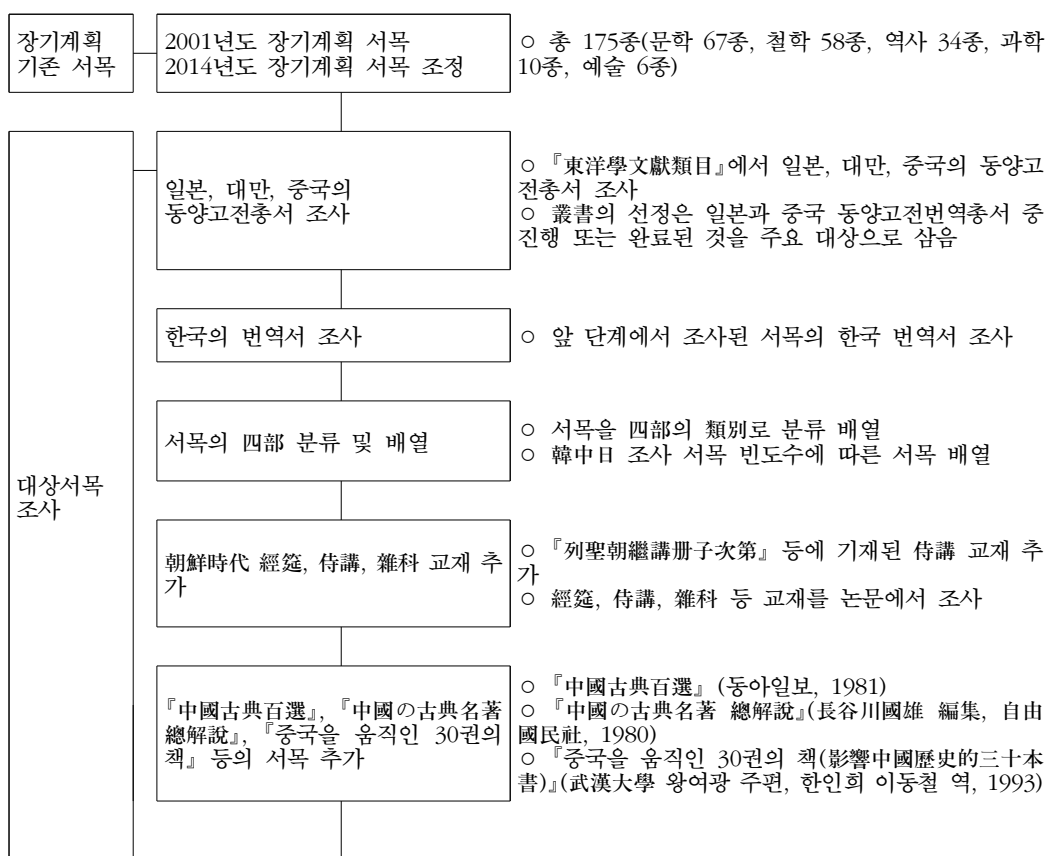
4. 전통문화연구회 국역사업의 역주 대상 선정과 역주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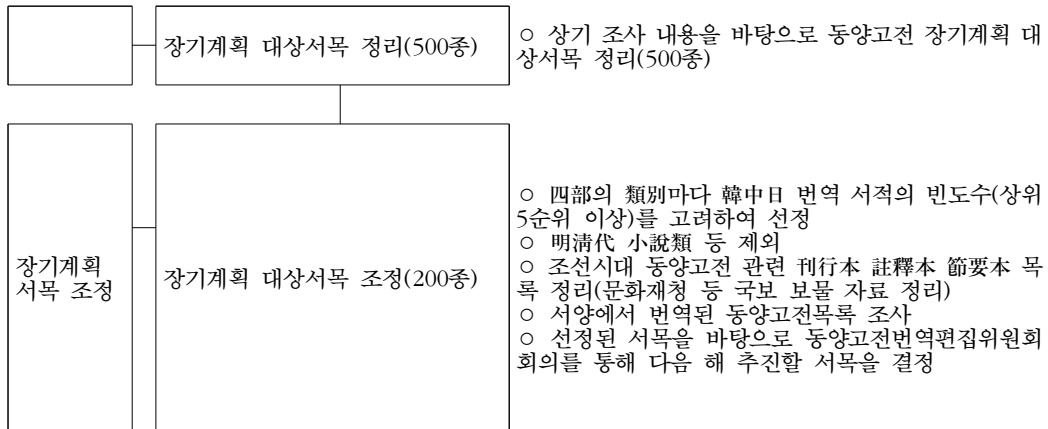
전통문화연구회는 한자문화권과 서구 동양학계에서 고전으로 평가하는 한문고전 중에서

한국의 전통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미래 문화의 바람직한 기초를 이룰 서적들을 엄선하여, 일정한 계획에 따라 매년 번역·간행하고 있다. 특히 전통문화연구회의 국역 사업은 한국의 전통시대에 이루어진 주석이나 주로 참고로 했던 주석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번역하고 상세하고 긴요한 注釋(註釋)을 붙이고 있으며, 원문에 대한 校勘과 解題, 현대적 연구성과 및 참고자료의 제시를 병행하고 있다. 그 결과물로서 속속 간행하는 東洋古典譯註叢書는 고전국역의 지표이자 모범으로서 학계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동양고전역주총서의 모든 데이터는 인터넷상에서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동양고전종합DB 사이트에서 원문과 번역문 등을 제공하고 있고, 이 데이터는 한국고전번역원 DB에서도 검색이 가능하게 하여 한국고전과 동양고전의 역주 자료를 상호 참조할 수 있게 했다.

표5. 전통문화연구회의 장기 역주 대상 선정 과정





전통문화연구회에서 ‘東洋古典譯註事業’ 대상서목 200종으로 번역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주요书目은 아래와 같다.

표6. ‘東洋古典譯註事業’ 대상서목 200종 주요 목록

○經部：十三經注疏, 禮記集說大全, 東萊博議, 韓詩外傳 등
○史部：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歷代君鑑, 歷代臣鑑, 列女傳, 明儒學案, 宋元學案 등
○子部：揚子法言, 荀子集解, 管子, 韓非子集解, 墨子閒詁, 論衡, 世說新語補, 孔子家語, 山海經, 列子, 大學衍義, 二程全書 등
○集部：唐宋八大家文抄, 明清八大家文抄, 儒林外史, 古文觀止 등

한편 전통문화연구회는 국고 보조의 ‘동양고전역주사업’ 외에도 자체적으로 여러 목적의 책들을 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로 기획한 ‘五書五經讀本’총서 사업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국내 번역서들은 한문 문장의 뜻에 너무 집착하여 현대적인 어감을 살리지 못했거나, 또는 반대로 문장을 매끄럽게 만드는 것에만 신경 써 原義를 훼손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五書五經讀本’은 전통시대 기본고전이었던 四書五經과 『小學』을, 원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대어에 맞도록 번역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역대 주요 주석서와 국내외 연구성과 등을 충실히 반영하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향후 동양고전 번역이 지향해야 할 하나의 모범을 제시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5. 전통문화연구회의 향후 역주 사업에 대한 제안

새 시대가 한문고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민족적인 전통의 유일한 정수를 확인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의 범주를 확장하고 재편하며 고전 텍스트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재평가한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은 학술적으로 탄탄한 역주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문화연구회가 다음 부류의 고전들을 향후의 역주 사업 대상으로서 추가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1) 전통문화연구회 역주 사업은 경부 주석에서 정주학의 新注만이 아니라 十三經注疏의 注疏도 함께 역주하고 있다.¹⁴⁾ 그런데 注疏와 新注는 경문에 따라서는 사상적 기반이 달라서 절충시키기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會通시킬 수 있는 것도 있으며, 並存시켜야 할 것도 적지 않다. 이미 청나라 중엽에는 황제의 칙명에 의거하여 官學에서 그러한 비교, 회통, 병존을 수행한 일이 있다. 정조도 經解에서 그 결과물들을 참조했고, 스스로도 비교, 회통, 병존을 시도했다.¹⁵⁾ 전통문화연구회는 이 점에 주목하여, 淸朝 勅撰의 다음 會注本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역주할 필요가 있다. 이때, 경서의 章節마다 정조 연간의 경서강의가 인용한 사실 여부를 부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康熙 54年(1715) 御纂 『周易折中』 22卷

康熙 60年(1721) 欽定 『春秋傳說彙纂』 38卷

雍正 5年(1727) 欽定 『詩經傳說彙纂』 20卷 序2卷

雍正 8年(1730) 欽定 『書經傳說彙纂』 24卷

乾隆 13年(1748) 欽定 『周官義疏』 48卷

乾隆 13年(1748) 欽定 『儀禮義疏』 48卷

乾隆 13年(1748) 欽定 『禮記義疏』 82卷

乾隆 20年(1755) 御纂 『周易述義』 10卷

乾隆 20年(1755) 御纂 『詩義折中』 20卷

14) 심경호, 「十三經注疏 번역의 필요성과 방법」, 한국고전번역학회 주최 「경부 역주의 현황과 문제점」 발표논문집, 2018.

15) 심경호, 「正祖與『通志堂經解』」, 『域外漢籍研究集刊』第16輯, 中華書局, 2018.

乾隆 23年(1758) 御纂『春秋直解』16卷

乾隆 38年(1773)~47年(1782) 欽定『四庫全書總目』

(2) 중국 전통시대에 解經의 저술만을 모은 총서로서 한국의 경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들은 선별하여 역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¹⁶⁾

『古經解彙函』, 鍾謙鈞(淸) 편. 漢에서 唐에 이르기까지 解經 저술을 모음.

『皇清經解』, 阮元(淸) 편. 청대의 解經 저술을 모음. 188종 1408권.

『皇清經解續編』, 王先謙(淸) 편. 1430권.

『正誼堂全書』, 張伯行 편. 宋明 理學 관련 저작만 수집.

『通志堂經解』, 納蘭性德 찬, 徐乾學 刻. 宋·元·明 解經 저작만 수집. 140종 1700여 권.

이 총서들에 들어 있는 解經의 저술을 經解本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다시 협의의 經解本이라고 하면 『通志堂經解』 소제 解經 저술을 가리키고, 『皇清經解』는 ‘淸經解本’ 혹은 ‘淸經解續編本’이라고 말하며, 『古經解彙函』은 ‘古經解本’이라고 말한다. 乾隆 때 『四庫全書薈要』를 편찬할 때 經部 수록의 서적은 152종이었는데, 그 가운데 『通志堂經解』本에 의거해서 謄錄한 것이 99종이나 된다. 嘉慶 연간에 張金吾가 편집한 『詒經堂續經解』, 道光·咸豐 연간 錢儀吉이 편찬한 『經苑』은 『通志堂經解』를 계승하여 宋·元 說經의 遺編墜簡을 대량으로 수집하여 간행했다.¹⁷⁾

『황청경해』는 청나라 兩廣總督 阮元(1764~1849)이 고증학의 解經 저적을 모은 것으로 『學海堂經解』이라고도 한다. 188종 1408권을 수록했다. 夏修恕·阮福 등이 編輯, 校勘, 監刻, 出版했다. 뒤에 王先謙(1842~1917)이 보완하여 『續編』(1430권)을 편집했다. 또한 내용별로 분류한 『正續皇清經解分類彙編』(藝文印書館)도 있고, 별도로 『皇清經解正續編書題索引』(文史哲出版社)이 있다. 조선시대의 학자 가운데 丁若鏞은 『통지당경해』를 활용하고 金正喜는 『황청경해』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3) 類書와 雜考 가운데 근대 이전 한국의 정책 결정이나 지식학에 중대한 문헌을 선정하

16) 심경호, 『한학입문』, 황소자리, 2008.

17) 林慶彰·蔣秋華 主編, 黃智明 編輯, 『通志堂經解研究論集(上·下)』, 中央研究院中國文哲研究所, 2005.

여 충실하게 역주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문물제도의 개념과 정의를 싣고 관련 정보를 집적한 편찬물들은 類書, 通書, 筆記漫錄의 체재를 지녔는데, 세 부류의 여러 서적들이 조선시대의 지식 정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유서’의 체제는 당나라 『藝文類聚』가 가장 표준적이다. 대개 우주 및 인간 삶에 관한 모든 사물을 포괄해서 각 세목 아래에 그에 관한 단편적인 문구를 집록(이것을 ‘載文’이라 한다)하고 그 다음에 시문 1·2 내지 4·5구를 곁들였다.

‘유서’라고 통칭되는 전적들을 살펴보면 事物掌實檢索類書, 事物起源檢索類書, 文章辭藻檢索類書 등의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문헌에 산재하는 고려시대 문헌을 執一하기 위하여 중국 역사서와 政書는 물론, 『冊府元龜』·『太平廣記』·『玉海』·『山堂考索』·『事林廣記』·『記纂淵海』·『古今合璧事類備要』·『翰苑新書』·『海錄碎事』·『事物紀原』·『類說』·『古今圖書集成』 등의 유서를 활용한 사례가 있다.¹⁸⁾

『太平廣記』, 『新編古今事文類聚』, 『山堂肆考』는 특히 한국의 전통 지식사회와 정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명나라 때는 ‘사문유취’의 이름을 지니면서도 축목의 『신편고금사문유취』와는 별도로 劉應李가 祝穆의 『事文類聚』를 모방하여 詩文作成 典故集으로 엮은 『新編事文類聚翰墨全書』가 유통되었다. 줄여서 『翰墨全書』라고 한다. 1433년(세종 15) 2월 9일(癸巳)의 『실록』 기록에 보면, 성균 司藝 金泮이 疑義로 시험하는 것에 반대하고 講經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면서 朱熹의 「科舉私議」를 『한묵전서』에서 인용했다. 선조 연간의 李滉은 『한묵전서』를 故實 검토에 사용했다.¹⁹⁾ 그 후 金長生은 『家禮輯覽』에서 「家禮圖」를 논하면서 이황이 『한묵전서』에 근거해서 논의를 펼친 사실을 환기했다.²⁰⁾

표7. 중국의 주요 類書

서명	시기	편찬자	권수
藝文類聚	唐	歐陽詢 등	100卷 48部 727類
初學記	唐	徐堅 등	30卷 23部 313類

18) 이근명·채웅석·김상범·조복환·장시동, 『송원시대의 고려사 자료』(1), 외대역사문화 연구총서1, 신서원, 2010.

19) 裴龍吉, 「啓蒙傳疑考義」, 『琴易堂集』 권4 雜著. “五音司日之末三元之義, 按先生答禹景善書曰: 『翰墨全書』謂, 正朝爲三元, 歲元月元日元. 又按日家一氣十五日, 分上中下三元, 每元六十時, 或備一說.”

20) 심경호, 「조선후기 물명고와 유서의 계보와 그 특징: 경험사실의 분석과 분류 방법의 모색」, 심경호 외 14명, 『한국학의 학술사적 전망』 1(고전편), 소명출판, 2014, 124~184쪽; 심경호, 「조선시대 지식정보 회집 편찬물의 연구를 위한 초보적 탐색」, 『한국사상사학』 59, 한국사상사학회, 2018, 101~131쪽.

白氏六帖	唐	白居易	30卷 1970門
太平廣記	宋	李昉·扈蒙 등	500卷 92類
太平御覽	宋	李昉·扈蒙 등	1000卷 55部 4558類
冊府元龜	宋	王欽若·楊億 등	1000卷 31部 1104編
海錄碎事	宋	葉廷珪	22卷 16部 584門
事實類苑	宋	江少虞	78卷 28門
玉海	宋	王應麟	200卷 21部 240類
錦繡萬花谷	宋	찬자미상	前·後·續集 각 40卷
古今事文類聚	宋	祝穆	前·後·續·別集 총 170卷
古今合璧事類備要	宋	謝維新	前·後·續·別·外集 총 366卷
源流至論	宋	林駟	前·後·續·別集 총 40卷
事物紀原	宋	高承	10卷 55部
孔氏六帖	宋	孔傳	30卷
韻府群玉	元	陰時夫	20卷
天中記	明	陳耀文	60卷 796類
山堂肆考	明	彭大翼	20卷
廣博物志	明	董斯張	50卷
古今圖書集成	清	蔣廷錫 등	10,000卷 6編 32典 6109部
淵鑑類函	清	張英·王士禎 등	450卷 43部 2536類
佩文韻府	清	張玉書·陳廷敬 등	444卷
子史精華	清	張廷玉·蔣廷錫 등	160卷 30類 280目
格致鏡原	清	陳元龍	100卷 30門
古文淵鑑	清	徐乾學	64卷

한편 ‘통서’는 역사·문물·제도·문헌을 통람하고 각 사항에 관한 고증을 더한 政書 부류의 편찬물을 말한다. 중국의 경우 ‘九通’ 혹은 ‘十通’을 손꼽는다. 즉 당나라 杜佑의 『通典』 200권, 송나라 鄭樵의 『通志』 200권, 원나라 馬端臨의 『文獻通考』 348권, 청나라 嵇璜·劉墉 등의 『續通典』 150권, 혜황·유용 등의 『續通志』 640권, 張廷玉의 『續文獻通考』 250권, 혜황·유용 등의 『清通典』 100권, 혜황·유용 등의 『清通志』 126권, 장정옥의 『清文獻通考』 300권, 劉錦藻의 『清續文獻通考』(1935년 간행) 등을 10통이라고 한다. 중국의 ‘통서’ 가운데서도 『문헌통고』는 한국 학문과 정치, 문화,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다.

조선 후기의 지식정보 회집 편찬물은 중국의 유서들과 통서들을 참고하는 것은 물론 명·청 시대에 나온 필기·잡록의 부류를 참고하기도 했다. 명·청의 대표적인 필기잡록류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농업 생산 부문 : 徐光啓 『農政全書』, 실명씨 『沈氏農書』
- ② 수공업과 상업 부문 : 宋應星 『天工開物』, 張瀚 『松窓夢語』
- ③ 사회경제와 풍속 부문 : 范濂 『雲間據目鈔』, 錢泳 『履園叢話』, 葉夢珠 『閱世編』
- ④ 제도·문물·경제·민풍 부문 : 王世貞 『弇州山人別集』, 胡應麟 『少室山房筆叢』, 沈德符 『萬曆野獲編』, 謝肇淛 『五雜俎』, 朱國禎 『湧幢小品』
- ⑤ 농민 봉기 관련 : 毛奇齡 『後鑑錄』, 李世雄의 『寇變記』, 吳偉業 『綏寇紀略』, 徐從治 『平秋紀事』
- ⑥ 역사지리와 자연지리 부문 : 王士性 『廣志繹』, 顧炎武 『天下郡國利病書』, 顧祖禹 『讀史方輿紀要』
- ⑦ 명칭의 역사 문헌과 인물 전기 : 何喬遠 『名山藏』, 李樂 『見聞雜記』, 焦竑 『獻徵錄』, 王世貞 『弇州山人史料前後集』, 李元度 『先正事略』
- ⑧ 인물 전기 : 黃宗羲 『明儒學案』, 蔣之翹 『堯山堂外紀』, 江藩 『漢學師承記』와 『宋學淵源記』, 錢林 『文獻徵存錄』
- ⑨ 학술 저작물 : 高謨 『日知錄』, 趙翼 『陔餘叢考』, 錢大昕 『十駕齋養新錄』

중국의 잡고류 가운데 한국 조선후기의 학술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고염무의 『일지록』이다. 李瀾이나 丁若鏞의 학술을 『일지록』의 논거를 수용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취한 것이 많다.²¹⁾

6. 맺는 말

한국학이나 동양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漢文 典籍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지만, 실제 연구 현장에서는 전문적 주석들을 선별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 숙련된 연구자라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문헌을 섭렵하고,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번역서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한문 전적을 정확하게 역주하여 기초 자료를 제공할 한문 전문 번역가의 수는 제한되어 있고, 그들이 역주할 문헌은 너무나 방대하다.

전통문화연구회는 2001년부터 東洋古典譯註事業을 통하여 동양고전의 국역과 현대화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를 축적해왔다. 그 사업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21) 심경호, 「성호의 사설과 지식 구축 방식(1)」, 『민족문화』 49, 한국고전번역원, 2017, 137~186쪽; 심경호, 「성호의 사설과 지식 구축 방식(2)」, 『민족문화』 50, 한국고전번역원, 2017, 243~297쪽.

- ㉠ 한자문화권의 여러 지역 국가들이 공통 기반으로 삼아왔던 동양 한문고전의 범위를 재확인함.
- ㉡ 장기계획에 따라 생성된 고전역주 결과물이 동양학 연구자와 전공자들에게 전문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함.
- ㉢ 고전역주 결과물이 현장 교육에서 활용되어 한자문화권의 전통 문화와 학문 방법을 분석할 수 있는 신진 연구자들을 양성하는데 기여함.
- ㉣ 동아시아의 여러 갈등을 해소하고 이 지역의 안정과 공동 발전을 추동할 수 있도록 외교와 교류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함.
- ㉤ 한국의 한문고전 연구가 세계 동양학 연구를 선도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적 위상을 각인시키는데 기여함.

전통문화연구회의 역주 사업은 기존 계획에 더하여, 청나라 칙찬 회주본, 경해, 유서 및 잡고류의 중요 서적들 가운데 한국 전통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향후 한자문화권의 학술사상 연구에 기초가 될 서적들을 역주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은 2035년까지 종결될 수가 없다. 1차 장기 사업이 일단 종료되는 2035년 이후로도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列聖朝繼講冊子次第』 규장각본.

『東洋學文獻類目』,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附屬 東洋學文獻センター 著,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附屬 東洋學文獻センター, 1934~2012.

『中國研究文獻案内』, 市古宙三 ; J.K. フェアバンク 著, 東京大學出版會, 1974.

『中國の古典名著 總解説』, 長谷川國雄 編集, 自由國民社, 1980.

『中國古典百選』, 月刊 新東亞 編輯室 編, 동아일보, 1981.

『중국을 움직인 30권의 책』, 武漢大學 왕여광 주편, 한인회 이동철 역, 1993.

アジア歴史事典(1~12), 平凡社.

東洋歴史大辭典(1~9), 平凡社.

中國歴史大辭典(1~12), 上海辭書出版社.

中國大百科全書(1~32)

- 辛承云, 『국가진흥을 위한 기획조사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
- 劉 石, 「中國古籍整理事業의 現況과 展望」, 『민족문화』 28, 한국고전번역원, 2005.
- 심경호, 「조선전기의 註解本 간행과 문헌 가공에 대하여」, 『大東漢文學』 제20집, 대동한문학회, 2004.
- 심경호, 「정조의 경학 연구 방법에 관한 규건」, 『태동고전연구』 제21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5.
- 심경호, 「일본과 중국에서의 한문원전정리와 한문고전의 현대역」, 『민족문화』 30, 한국고전번역원, 2007.
- 심경호, 「조선후기 지성사와 제자백가-특히 『管子』와 『老子』의 독법과 관련하여-」, 『한국실학연구』 제13호, 한국실학학회, 2007.
- 심경호, 『한학입문』, 황소자리, 2008.
- 심경호, 『한국한문기초학사』, 태학사, 2012.
- 심경호, 「조선후기 물명고와 유서의 계보와 그 특징 : 경험사실의 분석과 분류 방법의 모색」, 심경호 외 14명, 『한국학의 학술사적 전망』 1, 소명출판, 2014.
- 심경호, 「성호의 사실과 지식 구축 방식(1)」, 『민족문화』 49, 한국고전번역원, 2017.
- 심경호, 「성호의 사실과 지식 구축 방식(2)」, 『민족문화』 50, 한국고전번역원, 2017.
- 심경호, 『안평』, 알마, 2018.
- 沈慶昊, 「韓国における近世以前の出版文化と中国書籍の刊行方法」, 沈慶昊 外 12人, 『圖書寮漢籍叢考』, 汲古書院, 2018.
- 沈慶昊, 「正祖與『通志堂經解』」, 『域外漢籍研究集刊』 第16輯, 中華書局, 2018.
- 심경호, 「조선시대 지식정보 회집 편찬물의 연구를 위한 초보적 탐색」, 『한국사상사학』 59, 한국사상사학회, 2018.
- 심경호, 「十三經注疏 번역의 필요성과 방법」, 한국고전번역학회 주최 「경부 역주의 현황과 문제점」 발표논문집, 2018.
- 이근명·채웅석·김상범·조복현·장시동, 『송원시대의 고려사 자료』(1), 외대역사문화 연구총서 1, 신서원, 2010.
- 石上英一, 「日本における古典籍の整理事業の現況と展望」, 『민족문화』 28, 민족문화추진회, 2005.
- 林慶彰·蔣秋華 主編, 黃智明 編輯, 『通志堂經解研究論集(上下)』, 中央研究院中國文哲研究所, 2005.

漢文 文章의 효과적인 解釋 方法은 무엇인가?

- ‘漢文讀解捷徑’을 중심으로

安 載 澈

(단국대 명예교수)

..... 목 차

- I. 序言
- II. 效果的인 漢文 解釋 方法
- III. ‘漢文讀解捷徑’의 이해
- IV. 結言

.....

I. 序言

漢文은 중국 고대 언어로 현재는 口語로 사용되지 않는 문자언어인 文言文이다.

우리나라(한국)의 기록물들은 거의 모두가 漢字로 기록되거나 漢文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 한문으로 기록된 서적들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해결하여야 할 커다란 문제는 讀解技能의 伸張과 漢籍 理解能力의 향상에 있다 할 수 있다.

오늘날 학습자들에게 독해력과 이해력을 향상시키려면, 과학적인 教授法에 의거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책이 있어야, 비로소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의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문을 학습하려는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적 방법을 살펴보고,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책의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效果的인 漢文 解釋 方法

1. 傳統的인 한문 해석 방법

지난날 서당에서 한문을 학습할 때에는 ‘歸納하여 規則化된 것’을 배우기보다는 그저 읽고 또 읽어 터득하는 학습형태를 취하였다.¹⁾



서당에서의 교육



전통문화연구회 고전연수원

1) 李應白 등, 《국어교육》(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0), 294쪽.

우리 倍達民族은 漢民族과 언어구조가 달라 漢文文法을 따지고 분석하기에 곤란한 점이 꽤 있다. 그리하여 우리 선조들은 한문문법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讀書百篇義自見’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무조건 문장을 읽다 보면, ‘文理’가 나서 뜻을 저절로 알게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 여기서 말하는 ‘문리’란 ‘單語들이 배열되는 일정한 規則, 즉 文章의 體系’로 文法을 뜻한다.²⁾

2. 漢文文法の 중요성

오늘날 사회는 多様な 지식을 추구하는 사회이다. 다양한 사상과 학문을 접하게 되는 세대들에게 漢文만을 붙잡고 읽고 외우라고 할 수는 없다. 오늘날 세대들은 좀더 科學的이고 體系的이며 合理的이고 經濟的인 방법으로, 漢文의 體系와 構造를 파악하여 讀解 能力을 向上시킬 수 있는 방법을 원한다.

文法이란 文의 法則으로, 언어 자체의 結構 방식이나 規則이다. 문법이란 단어와 문장조직의 條理를 연구함으로써 그것의 규칙을 把握하는 것이다.³⁾

단어와 문장조직의 구조를 연구함으로써 그것의 規則을 把握하는 것을 연구하는 文法論은 形態論과 統辭論을 포함하는 학문분야이다.

문법교육은 궁극적으로 教授者가 學習者에게 ‘文法能力’을 높이고 키워주는 것이다. 한문에서 ‘문법 능력’이란 ‘한자의 音韻체계, 形態체계, 統辭체계, 意味체계’ 등을 통달하여 갖게 되는 지식과 그 지식에 입각하여 상황과 목적에 맞게 해석하고 읽기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基底 능력 전체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漢文教育의 目的 중의 하나가 漢文 讀解 能力 伸張에 있다고 할 때, 그 독해 능력의 根幹이 되는 것은 漢文 文法이다. 학습자가 한문문법 統辭論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정확한 漢文(文言文) 이해의 基準을 提示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外國語를 배우는 데도 좋은 기초가 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또한 東아시아(한국, 일본, 중국 등)의 文言文으로 된 文獻을 읽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한문은 중국 古代 言語로, 현재는 口語로 사용되지 않는 文字言語인 文言文이지만, 현재 연구되고 있는 문법적인 이론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2) 安載澈, <學校 漢文文法の 品詞 分類 및 그 內容에 관한 問題>, 《한문교육연구》 제17호(한국한문교육학회, 2001), 44쪽.

3) 黃六平 著, 洪淳孝·韓學重 譯, 《漢文文法綱要》(미리내, 1994), 7~21쪽.

문법 이론에는 構造主義 이론⁴⁾, 變形生成 문법 이론⁵⁾, 話用論⁶⁾ 등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 한문 문법 교육은 다양한 언어학 이론 중에서도 구조주의 문법이론으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效果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언어 자료화한 내용 속에서 歸納的으로 문법 規則을 발견하고 記述하기 때문이다.

한문 문장의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漢字의 음과 訓(뜻)을 익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한자의 음과 훈을 흥미 있게 학습할 수 있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으려면, 한자의 字源을 통하여 한자의 본래의 意味를 파악하고, 그 變遷과정을 통해 異體字 및 古今字를 익히며, 同字異音異義字 및 同字同音多義字를 알게 되었을 때일 것이다.⁷⁾

漢字는 한 字가 한 單語인 單語 文字이다. 이러한 한자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자의 品詞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學校文法에서는 10品詞로 구분하고 있다. 10품사는 크게 實詞와 虛詞로 구분하며, 다시 단독으로 語彙的 의미를 가지는 ‘實詞’와 어휘적 의미가 없거나 단지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虛詞’로 나눈다. ‘實詞’에 속하는 품사로는 名詞, 代名詞, 數詞, 動詞, 形容詞, 副詞 등이 있고, ‘虛詞’에 속하는 품사로는 介詞(前置詞), 連詞(接續詞), 語助詞(語氣詞), 感歎詞 등이 있다.⁸⁾

그 다음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漢字語’의 結合關係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漢字는 다른 한자와 결합하여 ‘漢字語’를 구성한다. 이러한 한자어는 ‘單語’, ‘語彙’라고도 불리어지며, 문장의 統辭構造를 갖추고 있기도 한다. 이렇게 통사구조를 갖춘 한자어들은 결합관계의 原理를 통하여 한자어의 뜻을 이해시키면 흥미 있게 학습자들을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과정으로 한문의 통사구조를 통한 한문 문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자와 한자어가 결합하여 한문 문장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한자어, 즉 단어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한

4) ‘구조주의 이론’은 경험론에 바탕을 둔 이론이며, 언어자료에 입각하여 귀납적으로 문법 규칙을 발견하고 기술하는 이론이다.

5) ‘변형생성 문법 이론’은 언어는 선천적인 언어 습득 능력에 의해 스스로 터득한 내재적 능력이며, 인간은 자발적인 능력에 의해 창의적으로 언어를 배운다는 이론이다.

6) ‘화용론’은 의사소통 시 發話에 대한 언어 이론으로, 언어의 구조와 기능은 물론, 주어진 상황에 맞는 언어 사용의 규범적 사회적 특징을 기술하는 發話 중심의 이론이다.

7) 안재철, <韓國 漢文文法の 音韻論 敎育論 研究>, 《한자한문교육》 제36집(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4), 87~96쪽.

8) _____, <학교 한문문법의 품사 분류 및 그 내용에 관한 문제>, 《한문교육연구》 제17호(한국한문교육학회, 2001), 32~65쪽,

문문장은 문장을 구성하는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인 統辭論(Syntax)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을 통해서 독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고 본다.

한문의 통사론의 내용으로는 문장의 구성 원리, 한문 문장의 구조 유형(문장 성분의 배합 관계, 기본구조, 확장구조, 복합문의 구조 등), 한문 문장의 유형, 문장의 실제 분석 연구 등이 포함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

1) 文章 構成 原理를 통한 讀解 敎育

문장은 규칙성, 형식성, 종결성, 의미성을 가진 언어 단위이다. 문장은 몇 개의 構成要素(constituent)로 이루어지며, 이 구성 요소를 文章成分이라 한다. 문장성분에는 문장을 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必須成分과 문장의 뼈대를 만드는 데 없어도 되는 성분인 附屬成分이 있다. 필수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이고, 부속 성분은 冠形語, 副詞語, 獨立語이다.

문장은 주어, 서술어를 포함한 몇 개의 단어가 線的秩序에 의하여 배열되어 상호 관계를 맺고,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주는 일정한 부호로 마무리 지어야 하며, 확실하고도 完結된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문장 구성 원리란 곧 話者が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를 크게 주어-서술어 관계로 나타내되, 주어-서술어-목적어, 또는 주어-서술어-補語의 순서로 배열하고, 부속성분인 冠形語(定語)는 體言 앞에, 그리고 副詞語(狀語)는 대체로 용언 앞에 배열하고, 종결부호로 마무리함으로써 구성되어 진다.

2) 漢字語(詞)의 生成과 漢文構造를 통한 讀解 敎育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한자어의 구조는 한문문장의 구조와 類似하다. 이러한 한자어들은 실제로 한문 문장에서 유래한 漢字語들로 상당히 많다. 그러므로 한자어의 구성 방식의 이해를 통하여 한문 문장 讀解에 접근한다면, 쉽고 재미있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통사론 학습 내용도 쉽게 체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예) 日出(주술 구조의 한자어) → 日出於東山

讀書(술목 구조의 한자어) → 讀書百遍義自見

修身(술목 구조의 한자어) → 欲齊其家者先修其身

9) _____, <漢文文法の 統辭論 敎育論 研究>, 《한문교육연구》 제42호(한국한문교육학회, 2014), 253~259쪽.

3) 漢文 文章의 構造類型을 通한 讀解 敎育

現存하는 한문 문장은 동아시아 선조들이 사용한 古代의 문장으로 현재에는 口語로써 사용하지 않는 문장이다. 그렇지만, 고대에 사용하던 言語이기에 언어의 核을 이루고 있는 主語, 敍述語, 目的語 등이 존재할 것이라고 假定할 수 있다.

현재 각 민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은 言語의 核을 이루고 있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이 있다. 한문 單文에도 그 언어의 核이 있다고 여겨져, 그 類型을 假想하여 만들고 敎育을 하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정우상 교수님은 1970年代初부터 현대적으로 한문敎育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假想的 한문 文章의 構造類型을 만들고¹⁰⁾, 그 구조유형을 통해 한문 문장을 쉽고 흥미있게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법을 연구하여 왔다. 하여 지금은 대부분의 敎授者들이 한문의 기초 문장의 풀이는 구조유형의 분석을 통한 학습 방법으로 敎育하고 있다.

또한 두 개 이상의 單文으로 이루어진 문장인 複合文도 그 결합 방법에 따라 그 구조 유형을 並列복합문, 主從복합문, 包有복합문, 混合복합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한 복합문도 유형별로 나누어 해석을 하면 좀 더 쉽게 체계적으로 풀이를 할 수 있게 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1) 單文에 있어 文章 成分의 配合關係

문장 성분은 必須成分(S, P, O, C)끼리 배합되어 基本構造를 이루고, 基本構造에 附屬成分(D, A)이 배합되어 擴張構造를 이룬다.

(가) 基本構造

- ① 주어(S)+ 서술어(P) : 鳶飛. 魚躍. 山高. 水深. 月落. 鳥啼.
- ② 주어(S)+ 서술어(P)+ 목적어(O) : 周公相武王. 齊伐燕.
- ③ 주어(S)+ 서술어(P)+ 보어(C) : 子路宿於石門.
- ④ 주어(S)+ 서술어(P)+ 목적어(O)+ 보어(C) : 靑取之於藍. 堯讓天下於許由.

(나) 擴張構造

- ① 주어(S)+ 서술어(P)의 확장 : 靑山高. 靑風西來. 夫子之道忠恕而已矣.
- ② 주어(S)+ 서술어(P)+ 목적어(O)의 확장 : 仁者樂山. 山吐孤輪月. 旅鳥懷舊林.
- ③ 주어(S)+ 서술어(P)+ 보어(C)의 확장 : 和氣滿堂. 忠言逆於耳.

10) 鄭愚相, 《漢字漢文敎育論叢》(전통문화연구회, 2011), 243~259쪽.

④ 주어(S)+ 서술어(P)+ 목적어(O)+ 보어(C)의 확장 : 先帝三顧臣於草廬之中

(다) 倒置構造의 理解

한문에서 서술어가 敎示, 授與의 의미일 경우, 목적어 다음에 오는 성분(보어)이 대체로 목적어 앞으로 도치되어 나타난다.

(예) 孔子問禮於老子.(正置)

后稷敎稼穡於民.(正置) → 后稷敎民稼穡.(敎가 ‘敎示’의 의미) <倒置>

張良遺書於漢王.(正置) → 張良遺漢王書.(遺가 ‘授與’의 의미) <倒置>

(2) 複合文의 構造 類型

복합문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이루어진 문장으로, 그 결합방법에 따라 並列, 主從, 包有, 混合 복합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병렬복합문은 두 개 이상의 문장이 대등한 자격으로 병렬된 문장이다. 종속복합문은 둘 이상의 문장이 主節과 從屬節(假定, 條件, 因果, 讓步)의 관계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若(如, 苟), 雖, 縱, 則, 然, 故, 是以(是故), 若(如, 苟)~則, 雖~然’ 등의 접속사나 부사가 쓰인다. 포유복합문은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을 成分節로 안고 있는 문장을 일컫는다. 즉, 주어절, 서술절, 목적절, 보어절, 관형절, 부사절 등 성분절이 내포되어 있는 문장이다. 혼합복합문은 병렬관계, 주종관계, 포유관계 등 서로 다른 구조를 이룬 복합문이 둘 이상 혼합되어 이루어진 문장을 말한다.

(예) 子欲養 而 親不待. (병렬복합문)

春若不耕 秋無所望. (주종복합문)

子之廢學 若 吾斷斯織也. (포유복합문)

公心欲逐之 而 恐蛇驚傷人. (혼합복합문)

4) 漢文 文章 類型을 通한 讀解 敎育

한문은 ‘構造’에서는 單文, 複合文으로 나누고, 文法에서는 敍法(敍述文, 疑問文, 命令文, 請誘文, 感歎文 등)을 기준으로 나누며, ‘機能’에서는 주어의 행위(能動文, 被動文), 동작주 행위(主動文, 使動文), 명제의 진위(肯定文, 否定文) 등을 기준으로 구분해서 교육할 수 있다. 그 밖에 比較文, 限定文, 反語文 假定文 등을 추가하여 교육하면, 문장 해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예문) * 평서문 (舟已行矣. 父子君臣長幼夫婦朋友者人之大倫也.)
- * 부정문 (吾未見好仁者. 罪莫大於不孝.)
 - * 의문문 (漢陽中誰最富? 昭公知禮乎?)
 - * 반어문 (王侯將相寧有種乎? 我丈夫也 吾何畏彼哉?)
 - * 비교문 (君子之交淡若水. 霜葉紅於二月花.)
 - * 가정문 (王若隱其無罪而就死地 則牛羊何擇焉?)
 - * 한정문 (我知種樹而已. 直不百步耳 是亦走也.)
 - * 사동문 (天帝使我長百獸. 遂令天下父母心 不重生男重生女.)
 - * 피동문 (勞力者治於人. 彼偃胥父兄爲戮於楚.)
 - * 금지문 (無道人之短. 己所不欲 勿施於人.)
 - * 감탄문 (嗚呼老矣! 牧丹之愛 宜乎衆矣!)

5) 漢文 文章의 大單元 分析을 通한 讀解 敎育

한문 문장의 大單元의 글은 몇 개의 小段落으로 이루어지고, 한 개의 소단락은 몇 개의 複合文으로 이루어진다. 한 개의 복합문은 두 개이상의 單文으로 이루어지고, 한 개의 단문은 한 개 이상의 句(詞組)로 이루어지며, 한 개의 구(사조)는 두 자 이상의 漢字가 모여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漢字→漢字語→句(詞組)→單文→複文→段落→大單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하여 대단원의 문장을 실제 분석을 통해 글의 주제와 전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방법은 ‘上向式方法’으로 ‘漢字→漢字語→句(詞組)→單文→複文→段落→大單元’으로 한 단계씩 문장을 파악하면서 올라가는 방법이고¹¹⁾, 둘째 방법은 ‘下向式方法’으로 ‘大單元→漢字’로 거슬러 내려오면서,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주제와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11) 安載澈, 《한문과 교재연구 방법론》(박이정, 2004), 199~203쪽. 첫 번째 ‘상향식방법’으로 이태백의 ‘春夜宴桃李園序’의 문장을 분석한 내용이 예시되고 있다.

Ⅲ. ‘漢文讀解捷徑 시리즈1’의 《漢文 독해 기본 패턴》 책 이해

1. 《漢文 독해 기본 패턴》 책의 특징

- 1) 이 책은 한문을 공부하려는 초보의 학습자들에게 한문독해력 신장을 위해 한문의 기본적인 유형을 익히게 하여 독해 학습에 도움을 주려고 제작한 책으로,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북’이다.



(1) 정보화 기술의 측면

① 자료 정리 및 교재 개발 측면에서의 정보화

3. 독자정보

한자	구문 ¹⁾ 번호	자음 ²⁾	음운 ³⁾	자음 ⁴⁾ /부분발음	음운 ⁵⁾ 음운	2회역	원도/비고
구문검색							
[한글 디두리] 는 직해강과 서비스중 [한글 디두리] 는 준비중, 사용중이므로 수정시 유의							
1 子	0	자 자 공자	공자가	= 공자가	1	0	<<<
2 日	0	랄 랄 말하다	말하였다	= 말하였다	2	0	<<<
음운쓰기식적							
구문검색							
“ ” ‘ ’ 「 」 << >>							
1번부터							
3 學	0	학 학 배우다	“배우	# 배우	1	0	<<<
4 而	236	이 이 ~하고	고	= 고	2	0	<<<
5 時	0	시 시 때때로	때때로	= 때때로	3	0	<<< 360537
6 習	0	습 습 익히다	익히면	# 익히다	5	0	<<<
7 之	0	지 지 [지시] 그, 이	그것을	= 그것을	4	0	<<<
음운쓰기식적							
구문검색							
“ ” ‘ ’ 「 」 << >>							
1번부터							
8 不	49	불 불 않다, 아니하다	않겠	= 않겠	3	0	<<<
9 亦	49	역 역 또한	또한	= 또한	1	0	<<<
10 說	0	열 열 기뻐하다	기쁘지	= 기쁘지	2	0	<<<
11 乎	49	호 호 ~인가?	는가?	= 는가?	4	0	<<<
구문검색							
1번부터							

〈한문독해첩경의 DB 구축화면〉

② 연수 및 학습을 위한 IT 기술의 활용

• 句讀학습

한문독해捷徑 전체목록 **내용보기** 원문검색 자의검색 패턴검색 이종안내

입경학습 심화학습 홈 > 한문독해기본패턴 > 75. 패턴 49 1/5

독음쓰기 제시된 문장의 한자음(漢字音)을 본래 한자음으로 쓰세요. **두음법칙 무시?**

若口讀而心不體 身不行이면 則書自書 我自我니 何益之有리오

약구독이심불체 신불행 이면 [] 니 [] 리오

확인하기

약구독이심불체 신불행 ×××× ××× ××××

약구독이심불체/신불행/즉서자서/아자아/하익지유

다음으로 계속

〈구두 익히기 화면〉

• 逐字학습

한문독해捷徑 전체목록 **내용보기** 원문검색 자의검색 패턴검색 이종안내

입경학습 심화학습 홈 > 한문독해기본패턴 > 75. 패턴 49 3/5

축자익힐 해석을 보면서 문장의 字를 축자순으로 클릭하세요. **이용방법?**

만약 입으로 읽기만 하고 마음으로 체득하지 않고 몸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책은
따로 책이고, 나는 따로 나일 것이니,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1 2 3 4 5 6 7 8 10 9 1
若 口 讀 而 心 不 體 身 不 行 則 書 自 書 我 自 我 何
益 之 有

〈축자역 익히기 화면〉

- 기 타 : 듣기, 읽기, 따라 읽기, 문제풀이 화면 등등

2) 책의 구성 및 특징

- (1) 이 책은 기초부터 학습순서를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즉, 기초 개념학습(한자의 결합 관계 및 문장의 성분의 이해), 3~8자의 패턴학습(한문 어순의 이해), 기본패턴학습(주요 허자 및 숙어의 이해), 유형별 패턴 학습(語氣에 따른 주요 숙어 및 구조 이해) 등으로 구성하였다.
- (2) 이 책은 典據가 분명한 것, 춘추 전국시대의 문장, 四書, 잘 알려진 한국 고전의 문장 중에서 嚴選된 例文을 拔萃하여 제시하고 책의 내용을 有機的으로 구성하였다. 즉, 예문을 77개의 패턴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패턴에 2~3개 내외의 예문을 제시하였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복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고졸 정도의 학력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고려하였다.
- (3) 원문에 懸吐한 원칙은 3~8자 단구 이외의 문장은 현토를 하였으며, 諺解가 있는 주요 고전은 언해의 토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어려운 현토는 현대어로 수정을 하였다.
- (4) 번역 및 해설은 문장구조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되도록 直譯 중심의 풀이를 하였으며, 좀 어려운 구절은 풀이순서를 제시하였으며, 意譯이 필요한 경우는 직역과 함께 별도로 제시하였다.
- (5) 한문교육용기초한자 중, ‘중학교용 900자 초과하는 한자’에 훈음을 제시하였다.

2.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크게 편집자 서문, 일러두기, 목차, 본문(5개의 단원), 부록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문과 부록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본 문 : 5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었다.

(1) 한문 패턴의 기초

- ① 글자 결합 패턴 : 차례대로 풀이하는 경우(예 : 天高, 白雲)
거꾸로 풀이하는 경우(예 : 好學, 在位)
- ② 한문문장의 구조 : 주술구조(예 : 山高, 花落), 주술목구조(예 : 君子憂道)
주술보구조(예 : 良藥苦於口), 주술목보구조(예 : 兄弟投金於水)

(2) 3~8字 풀이 패턴

- ① 3자풀이 패턴(예 : 梅花落) ② 4자풀이 패턴(예 : 近墨者黑)
- ③ 5자풀이 패턴(예 : 山吐孤輪月) ④ 6자풀이 패턴(예 : 大丈夫當容人)
- ⑤ 7자풀이 패턴(예 : 古之人與民偕樂) ⑥ 8자풀이 패턴(예 : 三歲之習至于八十)

(3) 공통 기본 패턴

- ① 서술의 패턴(A者B, A是B, A於B)
(예) 庶人者水也. 勤爲無價之寶. 獲罪於天無所禱也.
- ② 접속의 패턴(A而B, A與B, 既A又B, 非徒A而又B)
(예) 父母有疾憂而謀瘳. 富與貴是人之所以欲也. 舜既爲天子矣, 又帥天下諸侯.
非徒無益而又害之.
- ③ ‘之’의 패턴(A之B, A之B也. A之於B也)
(예) 他山之石, 可以攻玉. 仁之勝不仁也, 猶水勝火. 君子之於禽獸也, 見其生.
- ④ ‘以’의 패턴(以AB, A以B, A以B)
(예) 弟以其一與兄. 吾道日以貫之. 君使臣以禮.
- ⑤ ‘以爲’의 패턴(以A爲B, A以爲B)
(예) 百姓皆以王爲愛也. 事君盡禮 人以爲諂也.
- ⑥ ‘所’의 패턴(A所, 所A)
(예) 爲政以德 譬如北辰 居其所 而衆星共之.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 ⑦ ‘所以’의 패턴(所以A, 所以A者以B(也))
(예) 不患無位 患所以立. 君子所以異於人者 以其存心也.
- ⑧ ‘謂, 曰, 云’의 패턴(謂A曰B, A謂之B, A云爾)
(예) 子謂伯魚曰女爲周南召南矣乎.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不知老之將至云爾.
- ⑨ 시간의 패턴 (A者, A而)
(예) 古者易子而教之. 吾十有五而志于學.
- ⑩ 범위·이동의 패턴(自A, 自A至B)
(예) 有朋 自遠方來 不亦樂乎. 十有二月者 自正月二月 至十二月也.
- ⑪ 도치의 패턴(不AB, A何B)
(예) 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 四時行焉, 百物生焉, 天何言哉.

(4) 문장 유형별 패턴1

① 가능의 패턴(可(以)A, 得(以)A, 足(以)A)

(예) 二者, 不可得兼, 舍魚而取熊掌者也. 吾力足以舉百鈞.

② 부정의 패턴(無不A, 不必A, 必無A)

(예) 吾矛之利於物, 無不陷也. 有言者, 不必有德. 待有餘而後濟人, 必無濟人之日.

③ 금지의 패턴(勿A, 莫A, 無A)

(예) 言勿異於行. 主忠信, 毋友不如己者. 無道人之短.

④ 의문·반어의 패턴(奚A, A乎, 豈A哉, 何如)

(예) 子奚不爲政. 爲人謀而不忠乎. 豈無所用其心哉. 其如土石何.

⑤ 비교의 패턴(A如B, A不如B, A於B)

(예) 人生不學 冥冥如夜行. 善政不如善教之得民也. 人固有一死 或重於泰山.

⑥ 선택의 패턴(與其A也寧B, 與其A(也)不如/不若B, A與(B與)~抑C(D與))

(예) 禮與其奢也寧儉. 與其生辱 不如死快. 南方之強與, 北方之強與, 抑而強與.

(5) 문장 유형별 패턴2

① 피동의 패턴(被AB, 見AB, 爲A所B, A於B)

(예) 信而見疑, 忠而被謗, 能無怨乎. 先卽制人, 後則爲人所制. 勞力者治於人.

② 사동의 패턴(使AB, 教AB, 令AB, 遣AB)

(예) 子使漆彫開仕. 莫教乳口爭長短. 賢婦令夫貴. 遣春秋入高句麗.

③ 가정·조건 of 패턴(若A, A則B, 不A不B)

(예) 若得美味, 歸獻父母. 水至清則無魚. 不入虎穴, 不得虎子.

④ 한정의 패턴(唯A, A也已, 直A耳)

(예) 唯上知與下愚, 不移. 攻乎異端, 斯害也已. 直好世俗之樂耳.

⑤ 감탄의 패턴(嗚呼, A哉B(也), 其A乎)

(예) 嗚呼, 曾謂泰山, 不如林放乎. 大哉, 問. 始作俑者, 其無後乎.

2) 부록 : 6가지로 되어 있다.

* 패턴 색인, 연습문제 풀이, 한자 훈음, 출전 정보, 주요 인물, 참고 문헌 등

3. 이 책의 장점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점이 있다.

- 1) 이 책은 한문 독해력 신장의 모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업계 처음으로 전통적인 문리 이론¹²⁾과 현대 언어학 이론¹³⁾의 접목을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2) 이 책은 한문 학습의 上向式 3단계인 ‘漢字→漢字語(語彙)→漢文’의 단계를 활용하여 기초부터 어려운 단계로 접근하도록 학습단계를 배려하고 고려하였다.
- 3) 이 책의 가장 특징점은 한문 문장을, 기초적인 어휘부터 複文까지, ‘기본패턴, 공통패턴, 문자 유형별 패턴’을, ‘기초 蒙學도서, 四書, 중 고교 한문교과서 등’에서 찾아내고, 77가지 패턴의 각 예문으로 구성하여 보급용 도서로 처음으로 제작하였다는 점이다.
- 4) 이 책은 소프트웨어로도 개발되어, 학습자가 지정된 문장을 새로 학습하거나 반복학습하거나, 聲讀학습, 誤答학습, 듣기학습, 쓰기학습 등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 5) 이 책의 단원구성은 ‘단원명, 주제에 대한 설명, 상단에 예문, 하단에 직역 및 의역 문법 해설, 낱가에 출전 인물 등에 대한 해설, 단원 요점 정리, 본 단원에서 필요한 예화 및 알아두기, 연습문제 등’으로 구성되어 기존의 다른 책과 달리 학습자를 위한 배려가 돋보였다.
- 6) 이 책은 학습자들에게 ‘알아두기’난을 두어 재미난 일화나 어휘 등을 마련하여 어렵고 지루하게 느끼는 요소들을 배려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 7) 부록의 ‘패턴 색인’은 본문에 있는 다양한 패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고려하여, 이 책에서 주요 학습요소로 삼고 있는 패턴 학습에 편리함을 더하였다.
- 8) ‘한자 훈음 일람’은 한문문장 속의 다양한 한자의 훈음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문장에 따른 한자 훈음의 변화는 한문 문장 학습과정에 꼭 알아야할 요소로서 한문독해력을 늘이기 위한 요소이다.

12) 전통적인 문리 이론은 서당교육에서 교육하였던 ‘逐字譯 풀이 학습법’, ‘반복학습법’과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주요한 학자-김종직, 이항, 김수온, 김득신, 정약용, 이덕무 등-들의 학습법을 참고하였다.

13) 현대 언어학 이론으로는, ‘크라센의 자연접근법’, ‘히데오 다케무라의 반복훈련 학습법’, ‘민병철의 동기 유발 학습 이론’, ‘박진길의 언어 최소량 이론’ 등을 참고하였다.

IV. 結 言

한문 문장의 독해 방법은 초보단계에선 ‘漢字의 이해 → 漢字語(語彙)의 이해 → 漢文 文章의 이해’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통문화연구회 고전교육 연구실에서 편찬할 예정인 ‘漢文讀解捷徑’ 시리즈1인 ‘漢文 독해 기본 패턴’의 책은, 전통적인 한문 학습법의 초보단계의 학습법, 즉 ‘한자의 이해 → 한자어(어휘)의 이해 → 한문 문장의 이해’ 단계의 학습법을 활용하였으며, 동시에 현대적인 학습법을 원용하여 꾸민 책이다. 하여 이 책은 전통과 현대적인 학습법의 조화를 바탕으로 집필된 책이기에, 한문독해 入門者들을 위한 책으로 매우 적합한 책이라 생각된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점을 지니고 있다.

1. 기초부터 학습 순서를 고려하였고, 각 패턴별로 엄선된 예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책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하여 복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중 고등학교 교육용한자 1,800자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예문들을 구성하여서 고졸 정도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독해가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3. 각 중 예문들은 가급적 四書의 문자 위주로, 典故가 분명한 것으로 가려서 하였으며, 한국 고전도 많이 알려진 내용은 수록하도록 하였다.
4. 예문의 풀이는 직역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풀이가 어려운 내용은 풀이순서를 숫자로 표시하여 이해를 한결 쉽도록 하였다.
5. 오늘날 현대인들이 쉽게 정보화 기기를 이용하여 한문 학습을 보다 편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스마트북’을 마련하였다.

필자는 앞으로도 전통문화연구회가 100년을 바라보고, 다음과 같은 책들이 집필되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1. ‘漢文讀解捷徑 시리즈’의 2단계인 핵심 문장 단계를 고려한 책(四書독해첩경)과 3단계인 ‘문사철’ 학습단계를 고려한 서적도 기획, 개발되어야겠다.
- 초고 단계의 <四書독해패턴>의 일부를 잠깐 살펴보았는데, 이 책은 1책인 <한문독해기본패턴>의 복습을 위한 내용과 四書의 내용 이해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

리즈 1에서 학습한 중심 내용인 패턴을 충실하게 응용하여 볼 수 있도록 구성된 점과 사서의 중요 어휘들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된 점 등에서 기대가 된다.

2. 중장기적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권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외국인용 한문 독해 콘텐츠도 기획, 개발되어야겠다.

필자는 또한 전통문화연구회가 한문에 관한 교육 및 교재에 관한 콘텐츠 개발이 지속적인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여 동서양 최고의 한문 독해력 습득 콘텐츠를 개발하는 연구회로 자리매김을 하기를 소원하며 무궁무진한 발전이 이루어지기길 기원하여 봅니다.

金 炫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목 차

1. 시맨틱 웹 시대의 한문 고전 정보화
2. 시맨틱 經學 DB와 漢文古典 敎育
3. 데이터 시대의 한문 고전 연구·편찬 사업 추진 전략
4. 맺음말

.....

1. 시맨틱 웹 시대의 한문 고전 정보화

1) ‘시맨틱 웹’이란?

시맨틱 웹(Semantic Web)이란 웹 문서 중에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의미 정보를 기술하는 메타 데이터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자동화된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이다. 현재의 웹에서는 사람만이 산재한 정보의 의미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지만, 시맨틱 웹의 세계에서는 컴퓨터가 그 관계를 추적하여 인간의 지식 증대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 한문 고전 분야에서도 시맨틱 웹 기술의 도입과 응용은 그 지식이 미래의 디지털 지식 유통 환경에서 생명력을 유지하며 활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 강구해야 할 과제이다.¹⁾

2) 고전 자료 정보화 사업의 문제점

현재까지의 고전 자료 정보화 사업은 온라인 서비스가 책 간행에 부수적으로 수반하는 형태였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정보화를 위한 최적의 데이터 편찬을 추구하기보다는 책자 형태로 간행된 자료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여 디지털 신호로 전환하는 일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정보화는 자료에 대한 접근성, 보급의 용이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기여하였으나,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크게 증대시키지 못하였다.

오늘날 세계의 곳곳에서 다양한 유교 경학 텍스트가 서비스되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이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정보화 방식에 기인한다.

3) 고전 자료 정보화 사업의 개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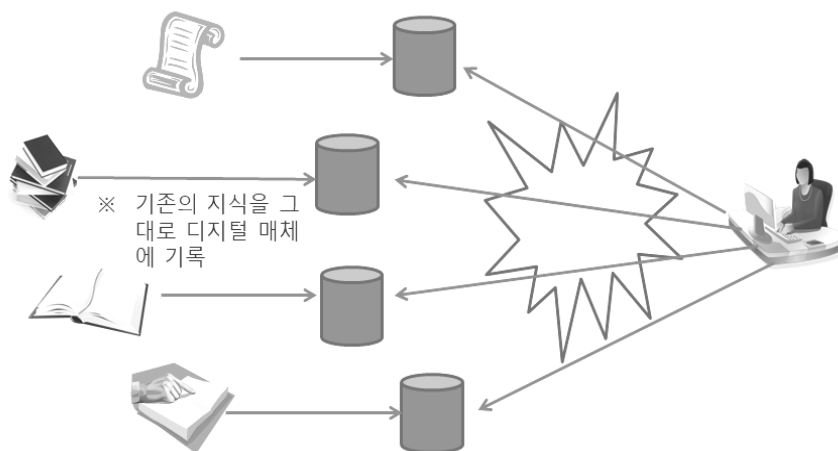
디지털 환경에서 고전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디지털화 기술을 활용하여, 자료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경로를 마련하고 자료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발굴할 수 있는 구조로 데이터를 편찬해야 한다.

유교 경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사업이라면, 경문이나 주석문 상의 주요 개념 용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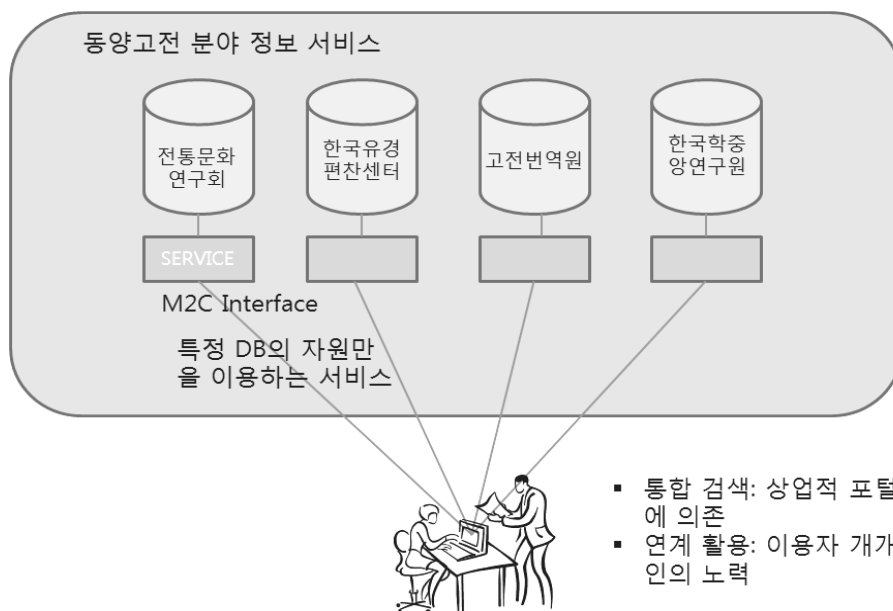
1) 시맨틱 웹이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한 의미를 부가한 데이터의 웹이다.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 기술 규칙을 만드는 것은 정보기술의 영역에서 추구할 과제이지만, 그 규칙을 응용하고 확장하여 미래의 사이버 공간에서 인문지식이 소통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인문학자들의 과제이다. (김현 외, 《디지털 인문학 입문》, HUBOOKs, 2016. p.147.)

문맥 요소를 식별하여 다른 텍스트의 주석 등 유관한 지식 정보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현재의 고전 자료 정보화 :



※ 현재의 고전 자료 정보 서비스



현재의 동양고전종합DB는 《論語》의 경문과 주석문, 번역문 텍스트를 전통적인 편제에 따라 순차적인 텍스트로 제공한다.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이 텍스트를 독자의 관심과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편성해서 볼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텍스트 속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위에 예시에서 보인 것처럼, 독자가 《論語》에서 仁에 관한 글을 찾을 때, 검색의 결과로 텍스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話者와 聽者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그 때의 仁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인물을 고려하여 언급된 것인지를 알게 한다. 검색 결과 화면에 나타난 경문 텍스트를 클릭하면, 순차적 텍스트 상에서 전후 문맥을 살필 수 있고, 인물을 클릭하면 그 사람에 대한 백과사전적 정보를 볼 수 있다.

3) 디지털 원어민 세대를 위한 한문 고전 교육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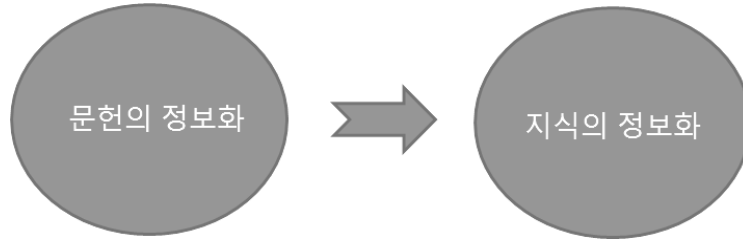
21세기 데이터 시대의 디지털 저작물은 텍스트(text)뿐만 아니라, 그 텍스트 속의 文脈(context)도 데이터로 기록하여 독자들이 하여금 의미 있는 지식을 보다 넓고 깊게 탐구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부를 위한 자료만이 아니라 공부의 행위도 디지털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한문고전을 공부할 이들은 ‘디지털 原語民’(Digital Natives)⁴⁾들이다. 이들은 우리와는 다른, 그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지식을 탐구하고 지혜를 얻으려 할 것이다.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 고전 텍스트 속에 있는 지식을 자유롭게 발굴하고 재미있게 엮어낼 수 있다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 자원의 보고에 접근하여 데이터와 씨름하며 그들에게 의미 있는 지식을 탐구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전통문화연구회가 디지털 원어민 세대의 고객들에게 봉사할 한문고전 데이터베이스는 마치 레고 블록 같은 조립식 장난감을 다루듯 그 속에 있는 지식의 조각들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의미의 연결고리를 쫓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형태여야 한다.

4) Marc Prensky,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On the Horizon 9(5), Bradford, UK : MCB University Press, 2001. 10.

3. 데이터 시대의 한문 고전 연구·편찬 사업 추진 전략

1) ‘문헌의 정보화’에서 ‘지식의 정보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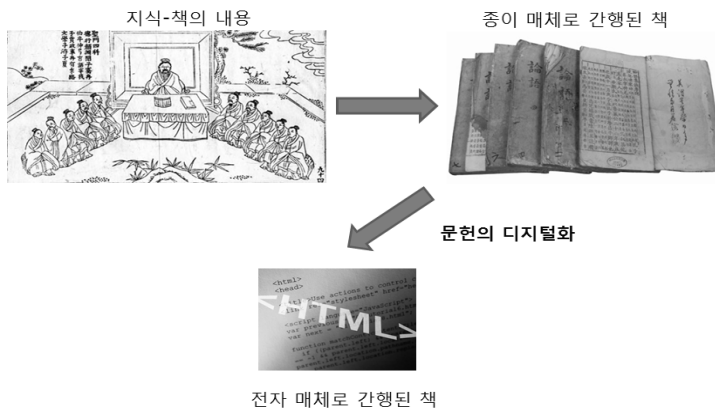


중국 위진시대나 송대의 경전 편찬은 여러 주석가들이 남긴 해석의 자취를 단순히 수집하여 간행한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의 도움을 받아 경전 텍스트 속에 내재된 지식을 발견하고, 그것을 새로운 체계로 기술한 것이다.

오늘날의 고전 정보화는 21세기 시점에서 유효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고전 텍스트 편찬사업이어야 한다. 과거에 만들어진 문헌을 디지털 미디어에 전사하는 일을 넘어서서, 문헌에 담긴 옛 지식을 찾아서 그것이 오늘날에 효용성 있게 쓰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재조직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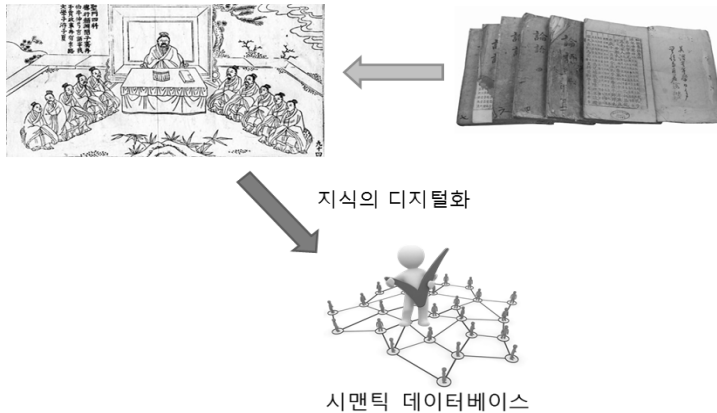
※ 문헌의 정보화

- ▶ 지금까지의 고전 자료 정보화는 책에 담긴 지식을 정보화하기보다는 종이 매체로 만들어진 문헌을 정보화 하는 것으로 이해
- ▶ 대상 문헌의 내용과 편찬 체계를 그대로 디지털 저작물 형태로 복원



※ 지식의 정보화

- ▶ 종이 책이 채용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지식의 활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디지털화
- ▶ 정보화의 대상이 되는 고전 자체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찾아내고, 그 데이터의 특성에 적합한 디지털화 방법을 강구



2) 고전 번역 사업과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편찬

시맨틱 데이터베이스의 구현을 위해서는 텍스트 속의 중요한 의미 요소⁵⁾를 식별해 내고, 그 요소들 사이의 의미론적 연관관계를 데이터로 기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일은 우리가 현재 고전 번역을 위해 수행하는 고전 연구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전 번역은 옛 언어로 기록된 사실과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번역(원문과 다른 언어로 텍스트를 기술하는 것)은 그 해석의 결과를 현대의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 번역에서는 문장을 문장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내용 해석을 위해 찾아낸 수많은 관련 지식을 역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업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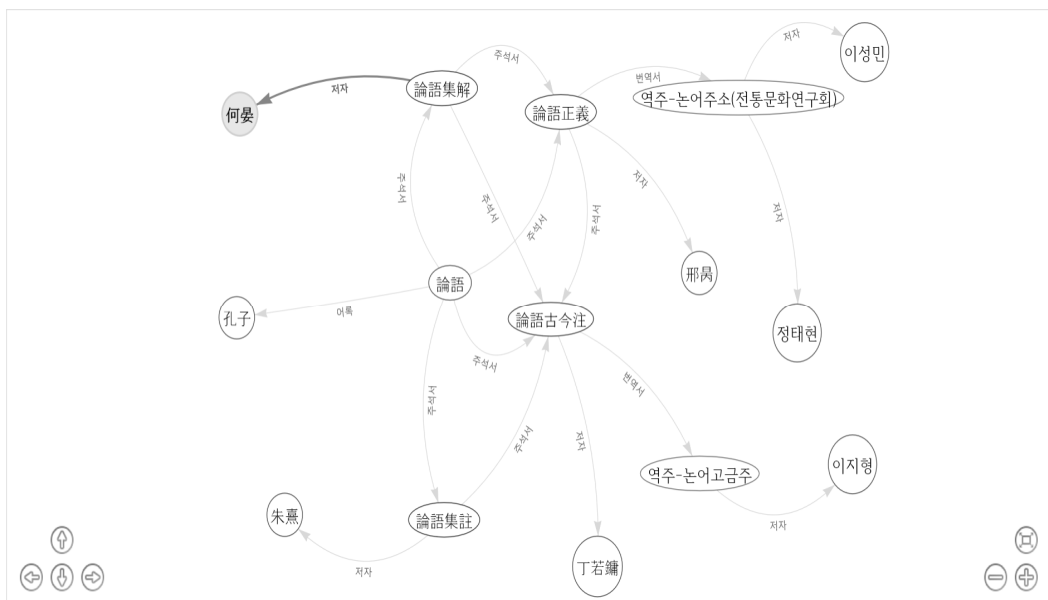
5) 의미 요소(Semantic Elements), 또는 문맥 요소(Contextual Elements) : 텍스트의 문맥을 구성하는 키워드, ‘인명’, ‘지명’, ‘역사적·사상적 개념어’, ‘문헌 전거’ 등의 정보 요소를 말한다. 텍스트의 의미 요소로 취급되는 어휘들은 기존의 번역사업에서 역주의 대상이 되었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맨틱 데이터베이스는 이 요소들 사이의 의미론적 연관관계를 기계가독형 텍스트의 표준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문으로 기술하는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다.

해석과 주석 작업을 수반하는 고전 번역·편집 과정에서는 당연히 텍스트 속에 있는 지식의 단위 요소들-개념어, 고사성어, 인명, 지명, 인용전거 등-이 하나하나 식별되고 그 의미가 파악된다.

이 정보가 일정한 약속을 따르는 데이터로 기술되어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조합과 구성이 가능하게 된다면 이것은 고전 번역 사업의 수행을 통해 시맨틱 경학 데이터베이스를 편찬하는 일이 될 것이다.

3) 《論語》 주석서 시맨틱 데이터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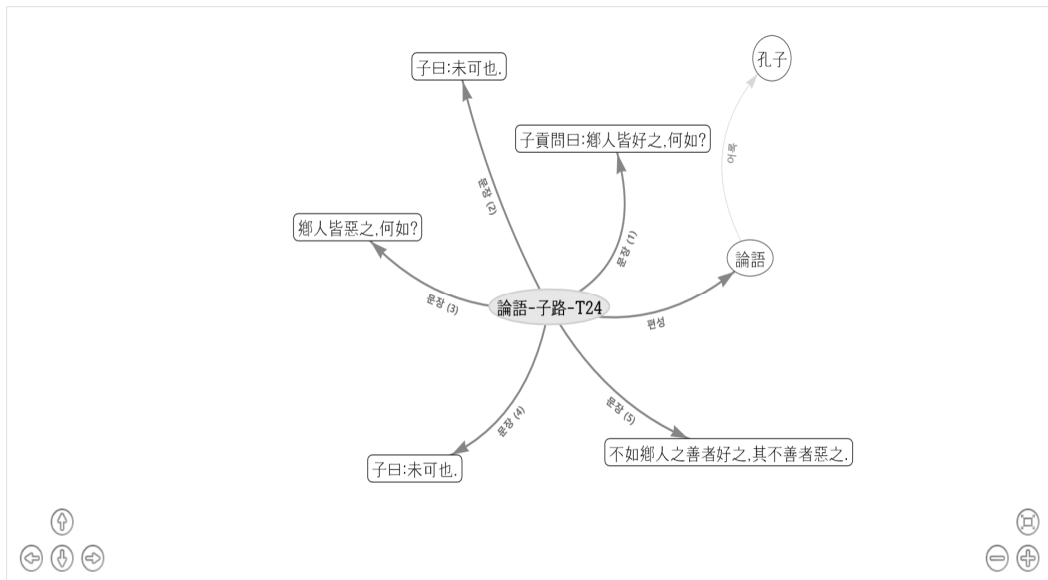
시맨틱 데이터로 편찬된 디지털 텍스트는 독자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편성될 수 있다. 앞에서 보인 예시처럼 특정 개념어나 인물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재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문 텍스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남긴 역대 주석가들의 주석문이 어떠한 역사적 연원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도 보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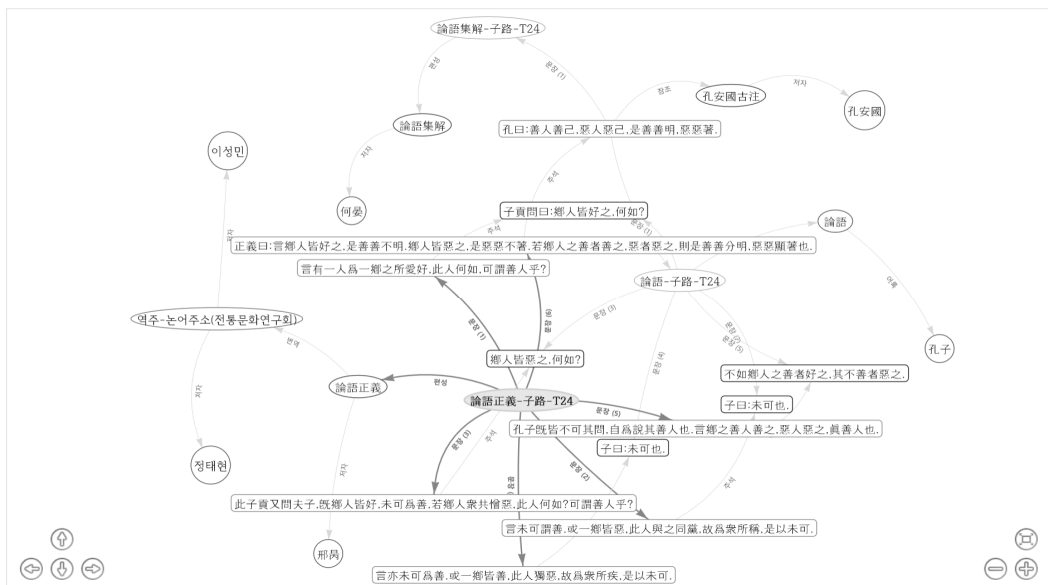
《論語》 주석서: 《論語集解》, 《論語正義》, 《論語集註》, 《論語古今注》⁶⁾

6) <http://dh.aks.ac.kr/~tutor/Graph/W20181121/E2B1.htm>

※ 《論語》經文과 注疏의 연관 데이터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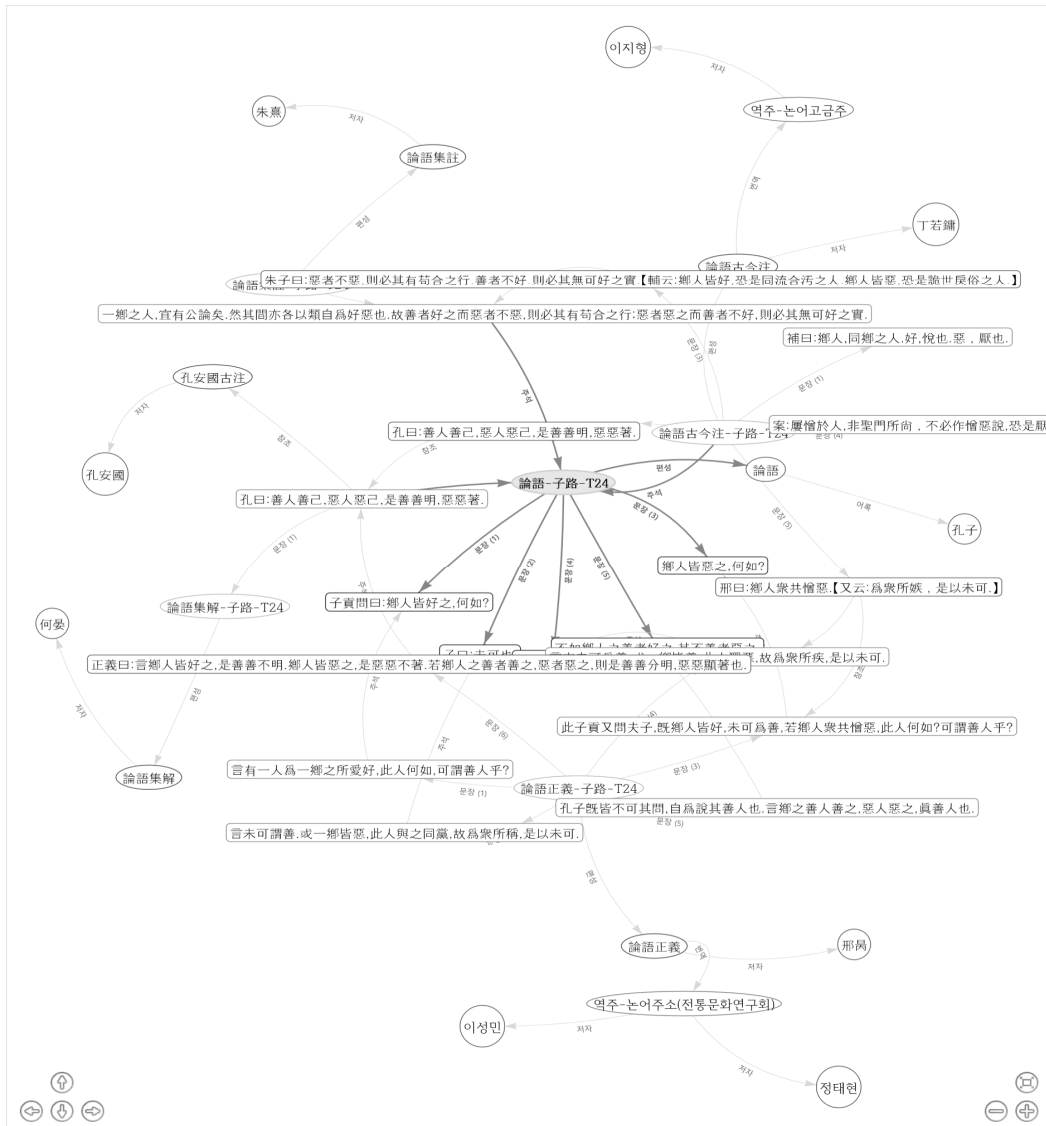
《論語》 經文의 편성 예시 (〈子路〉 24章)⁷⁾

《論語注疏》 〈子路〉 24章 經文/註釋 연관 관계⁸⁾

7) <http://dh.aks.ac.kr/~tutor/Graph/W20181121/E2A2.htm>

8) <http://dh.aks.ac.kr/~tutor/Graph/W20181121/E2A3.htm>

※ 《論語注疏》(何晏·邢昺) / 《論語集註》(朱熹) / 《論語古今注》(丁若鏞) 주석의 인용 ·
참조 관계 데이터 네트워크



《論語》 / 《論語注疏》 / 《論語集註》 / 《論語古今注》 주석의 인용 · 참조 관계⁹⁾

9) <http://dh.aks.ac.kr/~tutor/Graph/W20181121/E2B2.htm>

4. 맺음말: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편찬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한문 고전 연구/번역

시맨틱 웹 기술의 도입과 응용은 오늘날의 디지털 지식 유통 환경에서 고전 지식이 생명력을 유지하며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진화된 시스템의 구현은 연구 대상 고전 텍스트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과 정리의 노력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고전 연구/번역’과 ‘고전 자료 정보화’를 별도의 사업으로 간주하고, 고전 전문가들이 후자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시맨틱 경학 DB의 구현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며, 번역하고, 가르치는 고전 연구, 교육의 모든 과정이 디지털 환경에서 수행되고, 그 결과와 흔적이 표준적인 디지털 데이터로 남도록 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에 활동하는 고전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다.